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박종서

장인수·최선영·임지영·계봉오·유삼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삼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3-33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87-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33>

발|간|사

일반적으로 인구 변동은 사회 변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된다. 사회 변동의 정도와 특성이 인구 변동으로 이어지고 인구 변동은 다시 사회 변동의 동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회 변동이 급격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구 변동 또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 변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조사는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원은 인구 행동 관찰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가족과 출산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조사 중 하나로, 그 뿌리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사회조사의 시초 격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변화의 맥락에 맞게 이 조사의 내용과 체계를 적절히 개편해 왔다. 2021년도에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고, 조사 대상을 기혼여성에서 성인남녀로 확대하여 남성과 미혼남녀를 단일 표본으로 통합하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사 내용 또한 사회 변화의 맥락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조사의 내용과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가오는 2024년 본 조사를 대비하여, 2021년도 개편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찾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원 직접 조사체계에서 민간 조사업체 위탁 수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진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본 특성의 적정성과 조사 내용의 보완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전 지역 10개 조사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업체의 전반적 조사체계를 파악하여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조사를 담당할 연구진이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박종서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고, 원내에서 장인수 부연구위원, 최선영 부연구위원, 임지영 전문연구위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외부에서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와 유삼현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게 자문의견을 개진해 준 우리 원 이소영 연구위원과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참여한 모든 연구진의 공동 연구의 산물임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가족과 출산 조사의 변천 과정	17
제1절 2000년대까지의 변화	19
제2절 최근 주요 개편 내용	21
제3장 표본 특성과 시험조사	27
제1절 표본의 적절성	29
제2절 시험조사	36
제3절 소결	53
제4장 동거와 결혼 영역 개편 방안	57
제1절 서론	59
제2절 문헌 검토	60
제3절 문항 구성 분석과 자료 분석	63
제4절 소결	80

제5장 임신과 출산 영역 개편 방안	83
제1절 서론	85
제2절 문헌 검토	86
제3절 설문 문항과 자료 분석	95
제4절 소결	119
제6장 부모와의 관계와 성장기 주거이동 영역 개편 방안	123
제1절 서론	125
제2절 문헌 검토	127
제3절 자료 분석	132
제4절 소결	162
제7장 일 영역 개편 방안	165
제1절 서론	167
제2절 문헌 검토	168
제3절 기초분석	171
제4절 주제분석	184
제5절 소결	201
제8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1



부 록	223
1. 시험조사 조사구 사항과 에러체크 내용	223
2. 시험조사에 대한 연구진 제언	227
3. 조사원 및 관리자 간담회 내용	240

표 목차

〈표 2-1〉 조사 특성의 변천 내용	20
〈표 2-2〉 2018년 조사 내용	22
〈표 2-3〉 2018년 조사 자료의 연령(15~49세 기혼여성 조사) 분포	24
〈표 2-4〉 전체 개인 응답자의 표본 특성(50세 이상 포함)	25
〈표 3-1〉 분석 대상의 변천 내용	29
〈표 3-2〉 2015년, 2018년 표본 수와 임신 횟수의 비중	32
〈표 3-3〉 2015년, 2018년 표본 수와 출생아 수의 비중	32
〈표 3-4〉 표본 크기 변화에 따른 임신 횟수 분포 추정 결과	33
〈표 3-5〉 표본 크기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 분포 추정 결과	34
〈표 3-6〉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1998~2018년)의 출생 순위별 출생 건수	35
〈표 3-7〉 조사 일정	36
〈표 3-8〉 시험조사 투입 면접원 현황	38
〈표 3-9〉 조사원 교육 프로그램	39
〈표 3-10〉 동행조사 관찰 내용	41
〈표 3-11〉 조사구 확대 현황과 사유	46
〈표 3-12〉 조사 완료 가구 현황	47
〈표 3-13〉 가구 방문 현황	48
〈표 3-14〉 가구 방문 비성공 사유	49
〈표 3-15〉 가구 방문 시간 분포	50
〈표 3-16〉 가구 방문 요일 분포	50
〈표 3-17〉 가구원 조사 성공률	51
〈표 3-18〉 조사 완료 가구 현황	51
〈표 3-19〉 조사 완료 가구 현황	52
〈표 4-1〉 ‘영역 2. 동거와 결혼’의 하위 문항 구성	64
〈표 4-2〉 개인의 결혼사 문항 검토: 총 결혼횟수 분포	67
〈표 4-3〉 결혼유형 영역의 하위 문항 구성과 해당 문항	68
〈표 4-4〉 응답자의 결혼유형 분포	69



〈표 4-5〉 응답 가구의 혼인 및 동거 특성 분포	70
〈표 4-6〉 문항 10: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71
〈표 4-7〉 연령집단별 파트너십 형성 방식의 분포	74
〈표 4-8〉 결혼유형별 결혼시점 판단기준	75
〈표 4-9〉 결혼가치의 영역 구성	76
〈표 4-10〉 '영역 2. 동거와 결혼'의 미혼자 대상 문항 구조	79
〈표 5-1〉 전체 표본(50세 미만)의 생식건강 이상 경험	98
〈표 5-2〉 전체 표본(50세 미만)의 특성과 성별에 따른 피임 경험	101
〈표 5-3〉 유배우 남녀(8,096명) 특성별 결혼 당시 자녀계획 및 계획 자녀 수 분포	115
〈표 5-4〉 자녀 출산 관련 의견 반영 정도: 자녀 출산 여부 VS. 출산 시기와 자녀 수	116
〈표 5-5〉 전체 표본(50세 미만)의 특성별 기대 자녀 수 분포	118
〈표 5-6〉 전체 표본(50세 미만) 중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	119
〈표 6-1〉 성인기 부모 및 자신과 동거하는 기간의 비중	129
〈표 6-2〉 전체 비동거 부모의 생존 및 경제적 상황	136
〈표 6-3〉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도움 교환	139
〈표 6-4〉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교환	143
〈표 6-5〉 비동거 부모의 생존 여부, 경제적 상황,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148
〈표 6-6〉 추가출산 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149
〈표 6-7〉 본인 및 남편의 비동거 부모의 생존, 경제적 상황, 연락 빈도, 도움 교환 비교	154
〈표 6-8〉 남편의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본인의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	155
〈표 6-9〉 성장기 주거이동	159
〈표 6-10〉 성장기 주거이동과 추가출산 의향	161
〈표 7-1〉 일자리 순위별 취업 기간의 특성 분포	173
〈표 7-2〉 일자리 순위별 취업 단절 기간의 특성 분포	174
〈표 7-3〉 연령대별 총 취업 기간 분포	175
〈표 7-4〉 교육수준별 총 취업 기간 분포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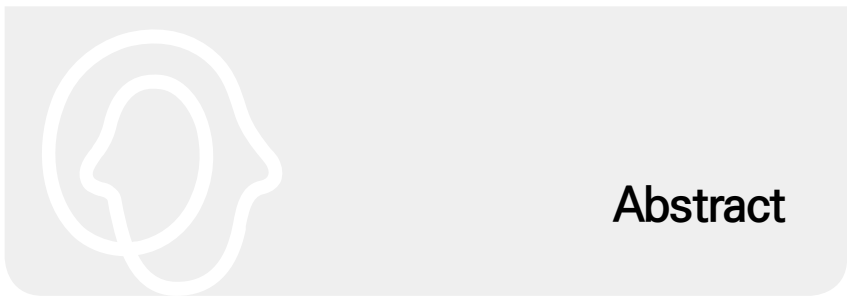
〈표 7-5〉 가구소득별 총 취업 기간 분포	176
〈표 7-6〉 혼인상태별 총 취업 기간 분포	177
〈표 7-7〉 성별 총 취업 기간 분포	177
〈표 7-8〉 연령대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78
〈표 7-9〉 교육수준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79
〈표 7-10〉 가구소득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79
〈표 7-11〉 혼인상태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79
〈표 7-12〉 성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80
〈표 7-13〉 혼인상태별 및 성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80
〈표 7-14〉 기혼여성 표본의 연령대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181
〈표 7-15〉 순위별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특성 분포	181
〈표 7-16〉 표본의 연령대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포	182
〈표 7-17〉 표본의 교육수준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포	183
〈표 7-18〉 표본의 가구소득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포	183
〈표 7-19〉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의 특성	186
〈표 7-20〉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의 집단 간	187
〈표 7-21〉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의 집단 간 비교(교육수준 통제)	188
〈표 7-22〉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 연령의 기본적 특성	190
〈표 7-23〉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일자리 시작 연령 및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190
〈표 7-24〉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191
〈표 7-25〉 두 번째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범주별 변화 분포	192
〈표 7-26〉 두 번째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일자리 특성 변화 범주별 분포	193
〈표 7-27〉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 연령의 기본적 특성	193
〈표 7-28〉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 연령의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194
〈표 7-29〉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 연령의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195



〈표 7-30〉 두 번째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범주별 변화 분포 ...	195
〈표 7-31〉 두 번째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의 일자리 특성 변화 범주별 분포 ...	196
〈표 7-32〉 출산 순위별 출산 시점과 순위별 육아휴직 사용 시점 간 차이의 특성	198
〈표 7-33〉 일자리 유형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	200
〈부표 1〉 조사구 대체 및 확대 결과	223
〈부표 2〉 시험조사 에러체크 내용	224
〈부표 3〉 임신과 출산 영역 개편에 관한 개선 방향과 제언 요약	227

그림 목차

[그림 3-1] 사례업체의 자료 검증 5단계	44
[그림 4-1] 상황별 결혼가치 평균점수의 분포	77
[그림 4-2] 상황별 하위 영역별 결혼가치 점수	78
[그림 5-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설문지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 관한 표	106
[그림 6-1]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받음과 추가출산 의향 기대확률의 관계	151
[그림 6-2] 본인과 남편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기대확률	157
[그림 6-3]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받음과 추가출산 의향 기대확률의 관계	158



Abstract

A Study for Redesigning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Project Head: Park, Jongseo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has served as a ‘government-designated statistical survey’ since it was approved by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 1982. Renamed from the previous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in 2021,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has changed in content and sample frame to reflect current social changes. While the pre-2021 versions surveyed only 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2021 survey covers adult men and women aged 19-49, combining single men and women and married men into one sam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various changes made in the design of the 2021 survey and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in preparation for the 2024 survey. We also make in-depth observations on a pilot survey conducted as part of this study, where the overall process was entrusted to a private survey company,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new survey system that keeps up with the changing survey environment.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1 survey sam-

Co-Researchers: Chang, Insu · Choi, Sunyoung, Lim, Jiyoung, Kye, Bongoh · Yoo, Samhyun

2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ple and conducting the pilot survey, we found that the sample frame should remain as it was modified in 2021. Additionally, it would be necessary to keep the sample size for married women above 6,000 in future surveys.

The changes made to the survey in 2021 consisted of the change of its name and an expansion of the sample frame to include men and single women. It is important that these changes are built into a stable system that can be maintained for the next 20-30 years.

While the sample frame of the target population should remain largely unchanged as it was modified in 2021, extra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a sufficient sample of married women. In addition, in order to better cope with the changing survey environment, it may be worth considering contracting out the survey, conducted thus far directl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o a private survey company. The direct survey system is assessed as unsustainable, and private survey companies are considered more reliable.

Keyword : Family and childbirth survey, population behavior, low fertility, family dynamic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82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거쳐 ‘국가지정통계’로 조사되고 있다. 2021년도 조사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다.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고, 조사 대상과 일부 조사 내용을 최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였다. 이전의 조사가 가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2021년 조사에서는 19~4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미혼남녀와 기혼남성이 한 표본으로 통합되었다. 성별과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대상 연령계층의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도에 개편한 제반 조사 설계 요소를 점검하고, 2024년 조사에 반영할 개선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업체를 사례로, 조사 전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관찰 및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대안적 조사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족과 출산 조사의 표본 특성을 고찰하고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에 개편한 표본 특성을 대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남성을 표본에 통합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혼남녀를 하나의 표본으로 통합함으로써, 결혼 특성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은 현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 향후 조사할 때 기혼여성 표본 규모를 6,000명

4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표본 크기를 기혼여성 기준으로 6,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대체적인 기술적 분석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시험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례 조사업체의 조사 수행체계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조사 준비 과정부터 수행 과정, 조사 완료 후 자료 처리와 결과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매우 안정적인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전에 설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조사구를 관리하고 있었다. 파라미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한 비성공 사유는 '대상제외'(40.2%)였고, '강력거절'은 3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파라미터로서 가구원 조사 성공률은 68.4%로 나타났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동거와 결혼' 영역을 점검한 결과, 결혼관계에 진입하는 방식과 시기, 서로 다른 결혼형태와 결혼해소 등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인 비혼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문항은 부족하다. 또한 현재 단순하게 '결혼의향'만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의향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없는 성인이 미래의 결혼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의식과 실천 양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결혼희수 조사 결과 2회를 초과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결혼유형 식별에서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을 재고하고, 결혼 방식의 비공식화 경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혼인지 기준별 시점 조사는 지나치게 자세하다. 분석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결혼상태별 특성 문항의 경우,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이행과 재혼 이행을 구분하여 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다음으로 사실혼에 대한 문항은 사실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불필요한 문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임신과 출산’ 영역을 점검한 결과, 구체적인 이유 없이 난임에 관한 세부 문항을 유배우 여성으로 제한한 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신력 문항에 원치 않은 임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지만, 출생아의 체중은 누락되어 있다. 난임에 관한 세부 영역은 같은 영역 내 임신력 관련 문항을 수정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내 자녀계획 역시 동거와 결혼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부모와의 관계와 성장기 주거이동’ 영역을 점검한 결과,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결합 표본 분석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배우 커플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집단보다 더 양호함을 보여주며, 이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가출산 의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배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가 유배우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도 조사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장점은 추후 조사체계 개편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석 표본과 관련하여, 남편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편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낮기 때문에 커플 수준의 다양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남편의 응답률을 높임으로써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일’ 영역을 점검한 결과, 교육 부분에서는 전공과 일자리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문항 구성이 필요하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에는 응답자 및 배우자의 교육 관련 문항에는 최종학력

의 전공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역시 일자리 차수별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 당시 해당 일 자리의 평일/주말 일 시간에 대한 문항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일자리 차수별로 존재한다면, 응답자의 일자리 변화가 근로시간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직업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주기 과정 내 결혼과 출산 행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 영역 내 제도 관련 사항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단적 측면에서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정보와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응답자의 행태 변화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육아휴직 전후 여성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변화, 육아휴직 전후 가사분담 비율, 가사 만족도, 육아시간 변화 등을 향후 조사에서 추가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 표본 확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최대한 활용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무응답 및 잘못 입력된 결측값이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 영역의 문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표본의 특성을 제외한 무응답과 관련된 표본 탈락(attrition)의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이전 조사와 다른 큰 변화가 시도된 조사였다. 조사 대상을 남성과 미혼남녀까지 확대하고, 조사 명칭도 변경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향후에도 안정적 체계로 구축되어 20~3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조사가 인구 행동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성인기 이행과 가족형성 과정으로서 결혼, 임신, 출산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대상 등의 표본 특성은 대체로 2021년 개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충분한 기혼여성 표본의 확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직접 조사체계를 민간 조사업체 위탁 조사 수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접 조사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며, 민간 조사업체의 조사 수행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 조사의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탁 조사에 반영 승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가족과 출산 조사, 인구 행동, 저출산, 가족 변동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64년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에서 연원한 조사로, 197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1982년 통계청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국가지정통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서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고, 조사 대상과 일부 조사 내용을 최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개편한 바 있다.

2021년 조사는 기존의 조사 변화 과정과 비교하면 크게 개편된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표본 특성의 변화였다. 이전의 조사에서 가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2021년 조사에서는 19~4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미혼남녀와 기혼남성이 기혼여성과 함께 한 표본으로 통합되었다. 성별과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대상 연령계층의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조사 내용 측면에서 이전에는 기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2021년 조사에서는 결혼, 피임, 임신, 출산 과정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인기 이행 과정을 포함하고, 결혼에서 동거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가족 구성의 다양한 측면과 성인기 이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의미 있는 변화였다.

2021년 조사 개편 과정에서 연구진은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과 인구 행동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

와 같은 개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조사 전반의 안정된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조사체계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적고 동일한 체계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2021년의 개편 내용을 점검하고 2024년 조사에 즉시 반영할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2021년에 개편한 표본 특성의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향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된 표본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 내용 측면에서 조사 영역 구성과 영역 내 문항의 구성 역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최대한 다음 회차 조사에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2021년에 개편한 조사 설계 제반 요소를 점검하고, 다음 회차 조사인 2024년 조사에 보완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한편, 안정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조사 환경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조사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대안적 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직접 조사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조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조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조사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응답 대상자의 조사 참여율이 하락하고 숙련된 조사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의 익명성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조사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이 고령화되고 있고 신규 조사원 충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향후에는 숙련된 조사원에 의존하는 조사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민간

조사업체의 조사체계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 조사업체와 함께 시험조사를 실시하면서, 민간 조사업체의 조사 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2021년도 조사와 이번 시험조사의 Para-data를 비교하여 민간 조사업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 조사업체를 사례로 조사 전 과정을 참여·관찰하고 향후 대안적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연구 목적에 해당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1년도에 개편한 제반 조사 설계 요소를 점검하고, 2024년 조사에 반영할 개선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업체를 사례로 조사 전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관찰하여 향후 대안적 조사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2021년도 개편 과정을 주요 항목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표본 특성과 시험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표본 특성에서 주요하게 고찰하는 것은 조사 대상 설정과 대상 집단별 표본 규모이다. 시험조사에서는 조사 개요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험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민간 조사업체를 사례로 선정하고,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내용을 설명하고, Para-data를 구축한다. 시험조사 Para-data는 가능한 부분에서 2021

년도 Para-data와 비교하여 민간 조사업체의 조사체계가 나타내는 특성을 살펴보려고 구축한 데이터이다.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조사 내용의 영역 구성과 조사 문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다. 제4장은 동거와 결혼 영역, 제5장은 임신과 출산 영역, 제6장은 부모와의 관계와 성장기 주거이동 영역, 제7장은 일 영역에 대하여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장)별로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2021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영역별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 문헌 분석을 주요하게 검토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양적 분석의 주제를 설정한다.

2021년도 조사 자료의 양적 분석은 주로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변수의 분포와 교차표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활용도, 신뢰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심층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활용성을 점검한다.

대안적인 조사 환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업체와 함께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시험조사는 대전 지역 10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은 2021년도 조사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조사표는 2021년도 조사표 중에서 자녀양육 영역과 산전·산후 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실시한다. 일부 영역을 제외한 것은 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향후 조사 문항의 축소를 고려한 것이다.

시험조사 과정에 대해서 연구진이 참여·관찰할 것이며, Para-data는 비교분석을 기초로 하고, 시험조사에서 구축한 원자료는 통계적 분석은

하지 않는다. 구축된 원자료의 통계적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여·관찰은 조사 전 과정에 대하여 연구진이 진행한 것이다. 특히 민간 조사업체 관계자 사전 면담, 조사원 교육, 현장 가구 방문 시 참여·관찰을 진행한다. 시험조사에 대한 Para-data를 구축하여 2021년도 Para-data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표본 특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2021년도 조사 대상 변경에 따른 표본 특성 변화, 표본 설계 방법, 가중치 계산 방법, 표본 규모에 대한 점검 등에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가족과 출산 조사의 변천 과정

제1절 2000년대까지의 변화

제2절 최근 주요 개편 내용



제 2 장 가족과 출산 조사의 변천 과정

제1절 2000년대까지의 변화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1964년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로 시작하였고, 197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1982년에 국가통계 제331001호로 지정되었다.

조사 명칭은 1985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로,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로, 2021년부터 ‘가족과 출산 조사’로 개칭되었다. 조사 내용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2003년부터 현재 체계로 개편되었다.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관련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출산 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4).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모자보건 내용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김승권 외, 2004).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복지 측면을 강화하였다(김승권 외, 2004).

표본 특성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거쳤다.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남성과 여성, 기혼여성과 유배우 여성, 연령 기준 등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표본 특성의 변화는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기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유지되던 표본은 기혼과 미혼의 표본 구분, 출산력 측정 시 미혼여성이 표본에서 배제되었다는

20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점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표 2-1〉 조사 특성의 변천 내용

연도	명칭	가구 조사	기혼여성	임신, 출산 등 분석 유배우 부인	기타
1982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7,375 가구	15~49세 5,371명	15~44세 4,351명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7,415 가구	15~49세 8,421명	15~44세 7,010명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1,864 가구	15~49세 7,792명	15~44세 6,515명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1,540 가구	15~49세 7,384명	15~44세 6,270명	18~34세 미혼 남녀(3,715명)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0,613 가구	15~49세 6,060명	15~44세 5,183명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1,216 가구	15~49세 6,450명	15~44세 5,417명	65세 이상의 노인(2,207명)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1,388 가구	15~64세 10,715명	15~44세 6,408명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5,758 가구	15~59세 10,078명	15~44세 6,598명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4,497 가구	15~59세 8,774명	15~44세 5,395명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3,883 가구	15~64세 9,807명	15~44세 4,867명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4,970 가구	15~64세 8,179명	15~44세 4,546명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1,009 가구	15~49세 11,009명	15~49세 10,324명	미혼 표본 분리: 20~44세 미혼 남녀(2,383명)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1,207 가구	15~49세 11,207명	15~49세 10,630명	미혼 표본 분리: 20~44세 미혼 남녀(2,462명)
2021	가족과 출산 조사	9,999 가구	19~49세 4,632명	19~49세 7,032명(미혼 여성 포함)	기혼, 미혼, 남, 여 모두 하 나의 표본으로 통합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최근 주요 개편 내용

1. 2015년 개편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60년대에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관련 조사로 시작하여, 점차 출산 수준 및 행태 변화, 모자보건,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 등이 내용에 추가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계속되는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 및 가족복지 측면이 추가되었다. 특히 2003년부터 조사 명칭에도 가족복지가 추가되었고, 조사 내용에도 가족복지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2015년에는 조사 내용에서 가족복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외하였지만 명칭에서는 가족복지를 유지하였다. 당시 연구진은 조사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자 하였다. 2015년 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조사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함께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내지 태도를 파악”하고,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이와 같은 조사의 목적과 체계는 대체로 2018년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2018년 조사도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상황을 파악하고,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또는 태도를 파악하고,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2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표 2-2〉 2018년 조사 내용

		(단위: 개, %)	
영역	내용	문항 수	비중
변수 설명 항목	조사 대상 여부 및 정보	7	2.3
가구원에 관한 사항	가구원 인구 사회적 지위	13	4.3
가구 및 주택 관련 사항	주거실태, 소득, 지출, 재산, 부채	14	4.7
교육 및 경제활동	교육 정도, 경찰 세부 (기간, 직종, 지위, 소득, 근로시간, 중단 이유, 중단 기간)	36	12.0
부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결혼이력, 동거상태, 결혼 당시 주거 상황	24	8.0
임신, 출산,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사항	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	3	1.0
임신에 관한 사항	임신이력, 횟수, 결과	24	8.0
피임에 관한 사항(가족 계획실태)	피임 경험, 방법, 추가 자녀계획	15	5.0
난임(불임)에 관한 사항	난임 원인, 치료	13	4.3
모자보건 사항	산전·산후진찰, 국민행복카드, 분만 시기, 체중, 산후우울, 모유수유	36	12.0
자녀양육 및 보육	아동돌봄 미취학, 초등 대상 시설, 사람, 만족도, 비용, 가사분담, 친인척돌봄	36	12.0
일·가정 양립	취업 상황, 부인, 남편, 일·가정 양립 어려 움 정도, 제도 이용 여부	30	10.0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결혼 가치관, 부모 독립 경험, 이성교제 시 기, 계기, 신혼부부지원정책	22	7.4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자녀 필요성, 이상자녀 수	5	1.7
자녀가치 및 태도	자녀 필요성, 이상자녀 수, 자녀가치	15	5.0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정책	3	1.0
출산정책 관련 사항	저출산정책 인식	3	1.0
계		299	100.0

자료: 저자 작성.

가족과 출산 조사는 2015년 개편을 통하여 조사 내용에서 더욱 인구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내용에서 가족복지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외하였고, 조사 대상을 가임기 기혼여성으로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개편의 큰 특징은 조사 대상 연령을 15~49세 가임기 기혼여성으로 한정된 것이고, 따라서 분석 표본의 크기도 2배 이상 증가한 점이다. 2000년대 조사의 가임여성 표본은 4,000~6,000명 수준이었지만, 2015~2018년 조사의 가임여성 표본은 1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2015년 개편이 큰 변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행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큰 틀은 지난 조사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료의 시계열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었고 생각된다.

2. 2021년 개편

2021년 개편은 인구 행동 측면에서 좀 더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생애과정의 변화가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에, 인구 행동의 선택 경로 역시 전통적 경로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즉 결혼으로 이행하는 보편적 규범이 약화되었고, 결혼-임신-출산 이행의 선후관계가 다양해졌다. 개인과 배우자 조합의 이행관계도 복잡했고, 결혼-임신-출산 의사결정의 권력관계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의 포괄성이 필요했다. 기존 조사는 미혼 표본과 기혼 표본이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남성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혼-임신-출산 과정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관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2021년 조사에 혼인상태와 성별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미혼남성과 기혼남성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기혼남성의 경우 2021년 이전에는 한 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기혼남성은 기혼여성의 배우자 관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다. 출산 행동은 여성이 중심이 되지만 의사결정과 임신 기간 및 양육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산 의향 등 출산 행동에 관하여 여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 파악되지 않았다. 2021년도 개편을 통하여 기혼남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남성의 출산계획 및 의향, 출산 결정 과정의 영향 정도, 가치관 등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남성 조사 대상자의 경우 조사 문항 중에서 임신과 출산 영역, 산전·산후 관리와 수유 영역에 대한 응답은 받지 않았고, 그 이외의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은 받았다.

〈표 2-3〉 2018년 조사 자료의 연령(15~49세 기혼여성 조사) 분포

(단위: 명, %)

연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8	2	0.0		
19	1	0.0		
20	5	0.0		
21	5	0.0	70	0.6
22	11	0.1		
23	14	0.1		
24	32	0.3		
25~29	539	4.8	539	4.8
30~34	1,711	15.3	1,711	15.3
35~39	3,097	27.6	3,097	27.6
40~44	2,884	25.7	2,884	25.7
45~49	2,906	25.9	2,906	25.9
전체	11,207	100.0	11,20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21년도 개편에서 또 한 가지 쟁점은 조사 대상 연령이었다. 기존 조사에서는 15~49세를 조사 대상 연령으로 설정하였지만, 연령 하한을 19세로 조정하여 조사의 편의를 높였다. 미성년층을 대상으로, 특히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 임신, 출산 등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8년도 조사에서 15~49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19세 미만 연령은 2명뿐이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 하한 연령을 19세로 높여도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1년도 최종 조사가 완료된 개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49세 성인남녀와 그의 배우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49세 이상 응답자도 포함되어 있다. 총 응답자는 14,538명이며, 이 중 여성은 7,040명, 남성은 7,498명이었다.

〈표 2-4〉 전체 개인 응답자의 표본 특성(50세 이상 포함)

(단위: %, 명)

구분	미혼 1인 응답	단순 동거 2인 응답	이혼/별 거/사 별 1인 응답	법률혼 1인 응답	법률혼 2인 응답	사실혼 1인 응답	사실혼 2인 응답	합계	사례 수
전체	남자	48.6	0.1	1.9	0.4	47.0	0.0	100.0	7,498
	여자	34.0	0.1	4.4	25.6	33.4	0.9	100.0	7,040
	전체	41.5	0.1	3.1	12.6	40.4	0.5	100.0	14,538
	(사례 수)	(6,038)	(11)	(453)	(1,827)	(5,881)	(69)	(259)	
배우 자 등 있음	남자		0.2		0.7	94.9	0.1	100.0	3,714
	여자		0.1		41.6	54.4	1.5	100.0	4,332
	전체		0.1		22.7	73.1	0.9	100.0	8,047
	(사례 수)		(11)		(1,827)	(5,881)	(69)	(259)	
배우 자 등 없음	남자	96.3		3.7				100.0	3,783
	여자	88.5		11.5				100.0	2,708
	전체	93.0		7.0				100.0	6,491
	(사례 수)	(6,038)		(45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배우자 등'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애인과 파트너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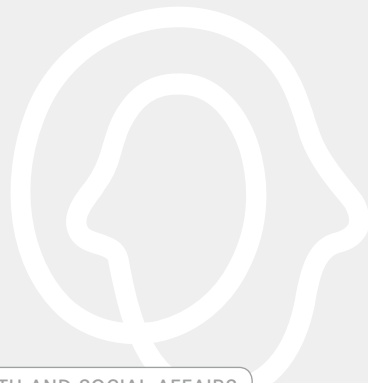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54.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표본 특성과 시험조사

제1절 표본의 적절성

제2절 시험조사

제3절 소결



제 3 장 표본 특성과 시험조사

제1절 표본의 적절성

1. 조사 대상의 적절성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대상의 변화였다. 처음으로 한 표본에 기혼남성과 미혼남녀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인구 행동과 가족 구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3-1〉 분석 대상의 변천 내용

조사 연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
1982	15~49세 371명			
1985	15~49세 8,421명			
1988	15~49세 7,792명			
1991	15~49세 7,384명		18~34세 미혼남녀 3,715명	
1994	15~49세 6,060명			
1997	15~49세 6,450명			
2000	15~64세 10,715명			
2003	15~59세 10,078명			
2006	15~59세 8,774명			
2009	15~64세 9,807명			
2012	15~64세 8,179명			
2015	15~49세 11,009명		20~44세 2,383명(표본 분리)	
2018	15~49세 11,207명		20~44세 2,462명(표본 분리)	
2021	19~49세 4,632명	19~49세 3,467명	19~49세 2,400명	19~49세 3,649명

자료: 저자 작성.

결혼 전 성인기부터 가임기가 완결되는 49세까지의 연령층을 모두 포괄하고, 생애 사건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요인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 모두를 관찰하기 위해서 혼인상태와 성별에 관계없이 표본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때부터 표본의 특성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19~49세 성인남녀와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총 14,53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여성은 7,040명, 남성은 7,498명이었다. 이 중에서 배우자가 응답한 비율은 57.1%였다(박종서 외, 2021). 또한 전체 미혼남녀 응답자는 6,038명이었다.

이렇게 남성과 미혼남녀를 포함함으로써 가치관 영역, 결혼과 임신·출산 영역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남녀 응답자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즉 결혼 과정, 피임 과정, 임신 결정 과정에서 남성의 의사를 함께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배우자의 가치관을 함께 분석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에 필요할 경우 부부를 쌍으로 조합할 수도 있다. 남성이 포함됨으로써 피임, 결혼, 임신, 출산, 자녀계획 등과 같은 인구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2021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변경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남성을 통합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혼남녀를 동일 표본에 통합함으로써, 결혼 특성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은 현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표본 규모의 적절성

2021년도 조사 개편으로 조사 대상이 확장되면서 부각된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조사 사업의 특성상 조사 대상이 확장되면 하위 집단의 표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기혼여성의 표본 규모는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과 2018년 조사의 기혼여성 표본 수는 1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조사 대상이 확장되면서 기혼여성 표본 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4,600명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 조사에서 기혼여성의 표본 수는 분석의 결정적 요소이다. 피임, 결혼, 임신, 출산이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생애 사건(events)이 분석 가능한 수준에서 관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개편 당시 기혼여성 목표 표본 수는 6,000명 수준을 완료하였지만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4,600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남성배우자와 미혼남성이 모집단보다 적게 조사되면서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 표본이 축소된 것이다.

표본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8년 조사 자료의 임신 횟수와 출생아 수의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임신 횟수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2015년과 2018년 임신 횟수 분포를 토대로 범주별 산술평균을 확인하였다. 2개 연도 조사 자료에서 산출된 임신 횟수별 산술평균은 임신 횟수 2회가 41.0%로 가장 높았고, 3회는 21.2%, 4회는 8.6%로 감소하였다.

32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표 3-2〉 2015년, 2018년 표본 수와 임신 횟수의 비중

(단위: 회, %)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범주별 산술평균
0	5.01	0	4.94	4.98
1	19.62	1	21.79	20.71
2	41.12	2	40.87	41.00
3	21.30	3	21.19	21.25
4	9.42	4	7.84	8.63
5 이상	3.52	5 이상	3.36	3.44
합계	100.0	합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2015년과 2018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아 수별 분포도 확인하였다. 2개 조사 연도 산술평균을 구해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가 7.6%,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25.9%,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53.2%로 나타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3-3〉 2015년, 2018년 표본 수와 출생아 수의 비중

(단위: 명, %)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범주별 산술평균
0	8.01	0	7.09	7.55
1	24.76	1	27.02	25.89
2	54.41	2	52.06	53.24
3	11.83	3	12.34	12.09
4	0.84	4	1.28	1.06
5 이상	0.15	5 이상	0.21	0.18
합계	100.0	합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앞서 산출한 산술평균값을 바탕으로, 표본 전체 크기가 변할 때 임신과 출생 사건(events) 규모의 범주별 관찰값 분포를 추정할 결과

를 보여주는 것이다. 범주별 비중은 표본의 크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표본 크기 변화에 따른 임신 횟수별 관찰 사례 추정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본 크기가 6,000명일 경우 1만 명에 비해 임신 횟수별 추정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임신 2회인 표본은 2,400명 규모, 3회 이상인 표본도 2,000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표본 크기 변화에 따른 임신 횟수 분포 추정 결과

(단위: 명)

임신 횟수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n=10,000	n=9,000	n=8,000	n=7,000	n=6,000
0	552	554	498	448	398	348	299
1	2,160	2,442	2,071	1,863	1,656	1,449	1,242
2	4,527	4,580	4,100	3,690	3,280	2,870	2,460
3	2,345	2,375	2,125	1,912	1,700	1,487	1,275
4	1,037	879	863	777	690	604	518
5 이상	388	377	344	310	275	241	206
합계	11,009	11,207	10,000	9,000	8,000	7,000	6,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표본 크기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별 관찰 사례 추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 크기가 6,000명일 경우 1만 명에 비해 당연히 출생아 수별 추정값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출생아 수 1명인 표본이 1,500명 수준, 2명인 표본이 3,100명 수준, 3명 이상인 표본은 1,000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표 3-5〉 표본 크기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 분포 추정 결과

(단위: 명)

출생아 수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n=10,000	n=9,000	n=8,000	n=7,000	n=6,000
0	882	795	755	680	604	529	453
1	2,726	3,028	2,589	2,330	2,071	1,812	1,553
2	5,990	5,834	5,324	4,791	4,259	3,726	3,194
3	1,302	1,383	1,209	1,088	967	846	725
4	93	144	106	95	85	74	64
5 이상	16	23	18	16	14	13	11
합계	11,009	11,207	10,000	9,000	8,000	7,000	6,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본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조사 자료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출생 순위별 출생 건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조사이기 때문에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관찰되는 사례 수를 참고해 보면, 1998~2018년까지 총 출생 건수는 3,300건 수준으로 집계되며, 연도별로 100~200건 수준으로 관찰되고 있다.

〈표 3-6〉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1998~2018년)의 출생 순위별 출생 건수

(단위: %, 건)

출생 연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표본 수(N)
1998	34.7	45.3	20.0	100.0(75)
1999	47.0	44.3	8.7	100.0(183)
2000	38.1	49.0	12.9	100.0(155)
2001	48.6	43.1	8.3	100.0(144)
2002	42.9	50.4	6.7	100.0(119)
2003	56.9	37.5	5.6	100.0(160)
2004	51.3	44.7	4.0	100.0(152)
2005	44.9	48.3	6.8	100.0(147)
2006	45.4	46.0	8.7	100.0(185)
2007	45.0	44.4	10.5	100.0(171)
2008	41.3	46.7	12.0	100.0(167)
2009	48.0	43.5	8.5	100.0(177)
2010	50.0	38.0	12.0	100.0(208)
2011	47.0	40.4	12.7	100.0(213)
2012	50.5	36.0	13.6	100.0(214)
2013	50.6	40.5	8.9	100.0(168)
2014	50.9	41.1	8.0	100.0(175)
2015	54.7	38.5	6.8	100.0(161)
2016	46.2	45.5	8.4	100.0(143)
2017	43.7	48.4	7.9	100.0(126)
2018	45.6	41.2	13.2	100.0(68)
합계	47.4	43.1	9.6	100.0(3,31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전체적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의 표본 크기를 기혼여성 기준으로 6,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대체적인 기술적 분석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조사를 수행할 때에도 2021년도 조사에서 목표로 설정한 기혼여성 표본 6,000명 규모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제2절 시험조사

1. 시험조사의 개요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향후 예상되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출산 조사〉 수행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업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로 선정된 업체의 조사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조사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3-7〉 조사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설문지 설계	기존 조사항목에 대한 연구진 검토	8월 18일~10월 3일
	변경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8월 18일~10월 3일
	설문 최종 확정	10월 3일
조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	접촉일지 관리용 '인터뷰어 프로그램' 구축	9월 22일~9월 27일
	자료 수집 관리용 '매니저 프로그램' 구축	10월 4일~10월 6일
	데이터 '검증 프로그램' 구축	10월 4일~10월 6일
실사 준비	조사구 확정 및 가구명부 확정	9월 18일~10월 4일
	조사지침서 제작 및 수정	9월 22일~10월 5일
	조사 협조 물품 준비	9월 22일~10월 5일
	면접원 선발	10월 2일~10월 4일
	면접원 교육	10월 6일
본 조사	자료 수집	10월 7일~11월 5일
	동행조사	10월 27일~10월 30일
자료 처리	조사표 이관 및 데이터 입력	10월 7일~11월 6일
	데이터 리뷰 및 검증	10월 7일~11월 6일
	검증 완료 데이터 자료 처리	11월 6일~11월 7일
데이터 클리닝	에러체크리스트에 따라 에러 내용 정리	11월 7일~11월 17일
결과 보고	실사보고서 제출	11월 17일

자료: 저자 작성.

시험조사는 대전 지역 10개 조사구를 선정하여 10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49세 가구원과 그의 배우자 전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 대상과 동일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종이설문지를 활용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진행 일정은 <표 3-7>과 같다.

2. 조사 준비 과정

조사 진행을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업체 관리자 및 실무자 7명과 시험조사 내용을 협의하고, 조사업체의 조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조사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 본 조사를 수행할 경우 과업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조사업체는 본 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표와 조사지침서 공동 검토 및 개선 의견 제언, 새로운 CAPI 프로그램 도입, 사례업체가 현재 수행 중인 패널조사 경험자로 조사원 구성, 조사원 교육의 공동 진행, 조사 과정 및 조사 결과 검증, 조사 자료 입력 및 data cleaning, 통계청 승인 자료 지원 및 조사 결과 공표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KOSIS upload용 결과표를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출력이 가능하며, 통계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여 결과표 제출 및 오류 직접 수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업체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조사 자료의 장기 유지·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례 조사업체의 조사 관리 및 참여 인력 등 조사체계 전반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조사표를 함께 검토하였다. 조사표를 검토할 때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까지 참여하였으며, 조사표 내용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업체 연구진의 내용 이해도가 높고, 조사 수행의 전문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내용과 난이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업체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하였지만, 난이도는 업체가 당시 진행하던 패널조사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조사용 조사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표 내용 중 자녀양육 영역과 산전·산후 관리 영역을 제외한 내용으로 작성하기로 했으며, 제외한 영역 이외의 조사 내용 전반에 대하여 사례업체는 대체로 원안을 수용하였다.

조사에 투입한 조사원은 총 10명으로 하였다. 슈퍼바이저 1명, 면접원 10명을 선발하였고, 중도 탈락자를 제외하면 최종 참여 면접원은 8명이었다. 성공적인 실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구 가구 방문 조사 경험 및 다년간의 경력이 있는 면접원을 우선 선발하여 운용하였다.

〈표 3-8〉 시험조사 투입 면접원 현황

연번	이름	경력	참여 여부	탈락 사유
1	김○○	10년 이하	참여	-
2	박○○		참여	-
3	김○○		탈락	코로나19 감염으로 제외
4	홍○○	10년 이상	참여	-
5	이○○		참여	-
6	박○○		참여	-
7	신○○		참여	-
8	최○○		참여	-
9	임○○		참여	-
10	윤○○		탈락	코로나19 감염으로 제외

자료: 저자 작성.

조사표 검토를 마친 이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성격과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해 한국리서치 대전사무소에서 면접원을 소집

하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조사표를 설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진과 한국리서치 담당자 및 조사 관리 전담부서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사원의 질문 내용 및 교육 후 조사 내용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하여 조사원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원 교육 일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3-9〉 조사원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간 및 내용	
10:30-10: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개 및 조사 개요 소개
10:45-11:15	조사 진행 및 유의사항 교육
11:15-12:30	조사표 작성 개요, 가구원 및 가족 사항, 가구일반사항 교육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영역 1. 부모와의 관계]
14:00-16:00	[영역 2. 동거와 결혼], [영역 3. 임신 출산 건강], [영역 4. 수유]
16:00-16:10	휴식
16:10-17:00	[영역 5. 일]
17:00-17:30	[영역 6. 성장기와 주거이동], [영역 7. 가치관과 인식]

자료: 저자 작성.

3. 조사 진행 과정

사례업체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사구 및 가구 관리 원칙을 설정하였다. 10개 조사구에서 조사구당 목표 가구 수를 10가구로 설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접 조사의 경우 조사구당 목표 가구 수는 15가구로 설정한 것에 비해 업체는 그보다 5가구 적게 설정하였다. 조사구당 목표 가구 수가 적을수록 더 큰 비용이 들지만, 더 적합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다 더 적은 목표 가구 수는 사례업체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조사구 내 가구 접촉 순서는 가구명부의 1번 가구부터 차례로 선정하

여 조사하였다. 완료 조사구의 판단기준은 조사구 내 목표 가구 수(10가구)의 ± 3 가구(7~13가구)를 조사하면 완료 조사구로 판단하였다. 한 조사구에서 목표 가구(10가구 ± 3 가구)를 채우지 못할 경우 예비 조사구에서 조사구를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3가구만 완료할 경우 조사구를 대체하고, 4~5가구만 완료할 경우 예비 조사구 내 조사구와 합쳐서 조사를 완료하며, 6가구만 완료할 경우 조사구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조사구 대체는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진행해야 하며, 사업부 연구진이 대체 사유 등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용한 경우에만 대체하여 진행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조사구 대체가 인정되는 사유는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조사구 전체) 출입 불가, 부재 및 거절이 많아 목표 표본 미달, 거주 지역 아님(상가, 기숙사 등), 지역재개발로 인한 주택 소멸 등으로 사전에 기준을 정했다. 이와 같은 조사구 관리 원칙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본 분포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하여 쿼터 관리 기준을 두었다. ① 남성과 여성 비율, ② 기혼과 미혼 비율, ③ 취업 여부 비율 각각을 시 단위에서 합계한 수준으로 쿼터를 준수한다는 기준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쿼터 기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수행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실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면접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동행조사를 실시하였다. 10월 27일과 10월 30일 이틀에 걸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과 한국리서치 실사 총괄 담당자가 해당 조사구 담당 면접원과 함께 현장에서 실사를 진행한 후, 실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다. 동행조사의 일정, 대상 특성 등은 다음과 같다.

□ 1차 동행조사

- 일시: 10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대전시 동구 충정로
- 참석자: 조사구 담당 면접원, 실사 총괄 담당자, 연구진
- 진행 방법: 현장에서 조사 참여에 응한 1가구 조사 진행 참관
- 응답자 특성: 기혼자(사실혼 관계)

□ 2차 동행조사

- 일시: 10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대전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 참석자: 조사구 담당 면접원, 실사 총괄 담당자, 연구진
- 진행 방법: 사전 방문 약속 1가구 조사 진행 참관
- 응답자 특성: 미혼자

〈표 3-10〉 동행조사 관찰 내용

구분	A	B
조사 대상자	-기혼자(사실혼 관계) -현장에서 조사에 응한 케이스	-미혼자 -미리 약속이 된 대상자
조사원	-10년 미만 -패널조사 경험 없음	-10년 이상 -패널조사 경험 있음
조사 가구 접촉 -조사 대상 가구 정보 확인 -조사 대상자 접촉 -접촉일지 작성	-조사구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가구 별로 컨택함(주소는 조사하면서 확인). -조사 대상자 접촉 방법은 적절하 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지 않았을까 함. '나라에서 하는 설문 조사'라고 이야기한 뒤 조사에 대 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 그 후 연 령을 파악하는 순서대로 진행하였 는데, 가구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약간은 미흡해 보였음. -조사 거부한 가구들 접촉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컨택한 가구의 주 소 확인도 하지 않아 추후 정리도	-조사구 정보를 보고 컨택한 후, 바 로 조사 가구 정보를 처리함. -미리 컨택한 가구여서 접촉 방식 은 파악하기 어려움. -접촉일지 작성은 확인하지 못함. 시간도 체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음.

42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구분	A	B
	어려울 것임. -조사 시간도 체크하지 않았음.	
조사 실시 -라포 형성 -설문 숙지 정도 -설문 내 로직 확인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한 노력 -조사 스킬	-조사 실시 전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시작함. -라포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이 있었음. 즉 조사와 관련된 지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고(결혼하면 여자가 힘들어 등등) 조사 대상자보다 연령이 더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너무 편안하게 접근하는 모습도 보임. -문항에 대한 숙지가 덜 되어 있음. 원림이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 앞뒤 로직을 맞춰야 하는 문항에 대한 숙지가 덜 되어 있는 듯함. 1) 유사 문항에 응답자가 다른 답변을 했을 때 이전 문항을 확인하여 응답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지점을 놓치는 부분이 있었음. 2) -유도형 질문이 많고 이전에 응답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조사원이 스스로 유사 문항에 대신 응답하고 기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다중 응답도 응답자의 응답에 의존하여 다른 선택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 전반적으로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이 두드러져 보임.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사의 목적과 배경을 A에 비해 자세히 설명하고 본인을 소개하였음. 개인정보를 질문한 뒤 성명이나 연락처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거부감을 줄이려고 노력함. -조사 대상자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듯했음. 설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다시 언급하며 편하게 진행하려고 시도함. -설문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 -미혼자 조사였기 때문에 로직에 대한 조사원의 숙지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음. -반복적일 수 있는 문항을 꼼꼼하게 다시 물어보고 응답을 받아 기입하였음. 응답자가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항도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중복 응답도 하나하나 질문함. -일자리, 소득과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작성하려고 노력함.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 대해 예시를 제시하거나 이전 응답과 맞추어 시기를 파악하는 등의 스킬이 있었음.
조사 후 처리 -상품권 전송 확인	-조사가 끝난 후 바로 상품권을 전송하고 확인 절차 실시	-가치관 문항을 직접 응답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에 상품권 전송과 확인, 쿠티 정리 등 실시

자료: 저자 작성.

- 1) 부모와의 관계 문항에서 부모가 따로 살 경우 '본인과 가까운 순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응답하도록 함. 부모와의 자원 교환에서도 정기/비정기를 구분하지 않고 물어보고 응답을 받은 뒤 정기/비정기 모두 동일한 응답값을 입력함.
- 2) 1인 가구로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하다 동거(사실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앞뒤 관련 문항을 수정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관찰자가 언급한 뒤 파악하기도 하고, 결혼력 부분에서 착각으로 인한 로직이 맞지 않는 응답을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확인 없이 기재하는 모습이 관찰됨.

A사례 조사 대상은 사실혼 가구로 B사례에 비해 로직을 체크할 지점이 더 많아 두 조사원의 조사 전반에 대해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두 사례 조사원의 패널 참여 여부와 경험의 차이가 조사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를 정확히 하려고 하는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조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항이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 조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사 난이도가 높은 설문인 만큼 설문지에 대한 사전 파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원의 역량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단순히 질문하고 응답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문지나 CAPI 화면을 더 잘 알아보기 편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조사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조사원 교육 일정에 역할극과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할극 교육을 통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질문하고 응답하는 경험을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조사 가구 접촉 단계에서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응답자와의 라포 형성이 조사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조사 실시 과정에서 가구원 및 가족 사항 파악 시 누락되는 가구원이 없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및 가족 사항에서 확인된 혼인상태와 응답 과정에서 파악된 혼인상태가 다를 경우, 관련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 가구로 응답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진행 중 동거(사실혼)상태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를 완료한 후 바로 상품권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시험조사의 사례품으로 기혼남녀는 각 2만 원씩, 미혼남녀는 각 1만 원씩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조사원이 문화상품권 발송 전용

핸드폰 앱을 활용하여 조사 종료 시 바로 응답자 핸드폰으로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다.

4. 자료 입력 및 처리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5단계에 걸친 검증을 진행하였다. 사례업체는 독립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5단계 자료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집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그림 3-1] 사례업체의 자료 검증 5단계



자료: 저자 작성.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실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검증팀에서 전화로 진행하였다. 면접원별 20~30%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로 본인 실제 조사 여부, 주요 항목의 응답 내용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전화 검증 과정에서 에러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 원칙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 ① 전화에 의한 조사표 재확인 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데이터의 100%를 재확인함
- ② 면접원 고의에 의한 오류인 경우 해당 면접원의 조사표를 모두 폐기하고 면접원을 해촉함
- ③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 사항 발생 시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정리하여 연구팀, 실사팀, 슈퍼바이저 및 면접원에게 전달함

전화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는 자료 처리팀에 이관하였으며, 검증팀에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부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증에서 확인한 문항은 응답자 참여 여부 확인, 응답자 주소 확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출생 연도 확인, 응답자 답례품 수령 여부 확인 등이었다. 검증 결과, 전체 성공 가구로 전송이 완료된 108가구 143명의 데이터 중 35부(24.5%)에 대해 전화 검증을 실시하였고, 오류가 확인된 조사표 부수는 없었다.

검증이 완료된 조사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쳤다. 에러체크리스트에 따라 문항 간 비논리적인 에러를 확인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당시 진행하던 에러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업데이트하여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5. 조사 결과

가. 조사구 대체 및 확대

조사구는 10개의 본 조사구와 3개의 예비 조사구 명부를 추출하였다. 조사구 특성별 구성은 일반 조사구 4개(40.0%), 아파트 조사구 6개(60.0%)였다. 최종 조사구 대체 건은 1건으로, 1005 조사구(대전광역시 동구 신인동, 아파트 조사구)를 2003 조사구로 대체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1005 조사구의 대체 사유는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조사구 전체) 출입 불가’였다.

조사구 확대의 원칙은 일반 조사구일 경우, ① 배부받은 조사구의 접촉일지를 빠짐없이 작성 확인하고, ② 조사구가 포함된 동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였다. 아파트 조사구일 경우, ① 배부받은 조사구의 접촉일지를 빠짐없이 작성 확인하고, ② 동일 아파트 내에서 조사하도록 관리하였다.

〈표 3-11〉 조사구 확대 현황과 사유

조사구 일련번호	아파트/ 일반	면접원 확인 결과
1002	1	주변이 상가여서 주거 지역이 거의 없었으며, 해당 연령대의 대상자를 만날 수 없었음
1004	1	낙후된 동 단위였고 일반 주택과 빌라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함
1006	A	노인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관리소장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젊은 세대가 없었음

자료: 저자 작성.

확대 지역에서 조사를 완료한 가구가 80% 이상인 조사구는 3개 지역이었다. 대부분은 만 19~49세의 낮은 연령대를 찾기 어려운 노인가구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구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시험조사 특성상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 각 1개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사구는 숫자상 한계가 있었다. 조사구 조사이면서 쿼터를 맞춰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구 확대 진행이 불가피하였다.

나. 최종 조사구 완료 가구 수

총 10개 조사구에서 최종 조사를 완료한 가구 수는 108가구였다. 전체 10개 조사구 중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조사구는 9개, 확대하지 않은 조사구는 1개였다. 조사구 완료 가구 중 확대한 지역에서 완료한 가구가 80% 이상인 조사구는 3개 조사구로, 그중 일반 조사구가 2개, 아파트 조사구가 1개였다.

〈표 3-12〉 조사 완료 가구 현황

(단위: 개, %)

조사구 일련번호	아파트/ 일반	총 성공 가구	조사구 내 완료 가구		조사구 확대 완료 가구	
			가구	비율	가구	비율
1001	1	13	7	53.8	6	46.2
1002	1	12	2	16.7	10	83.3
1003	1	10	7	70.0	3	30.0
1004	1	10	2	20.0	8	80.0
1006	A	10	2	20.0	8	80.0
1007	A	13	7	53.8	6	46.2
1008	A	10	6	60.0	4	40.0
1009	A	10	10	100.0	0	0.0
1010	A	10	8	80.0	2	20.0
2003	A	10	6	60.0	4	40.0
총합계		108	57	52.8	51	47.2

자료: 저자 작성.

다. 가구 및 가구원 파라데이터 분석

파라데이터(paradata)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로서 조사 시간,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록을 이용했는지 여부, 응답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³⁾ 통상 접촉의 빈도, 거절의 사유, 응답 성공률 등도 파라데이터로 수집된다. 파라데이터는 조사 수행 과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된다.

이번 시험조사에서 확인한 파라데이터는 방문 횟수, 비성공 사유, 방문 시간 분포 및 요일 분포, 가구원 응답 성공률, 응답 시간 등이었다. 먼저 평가 가구 방문 횟수와 관련하여 총 접촉 가구는 718가구이며, 최종 성공 가구는 108가구였다. 총 방문 횟수는 1,395회였으며, 가구 응답 성공률(성공 가구/총 접촉 가구)은 15.0%로 나타났다.

2021년도 본 조사에서 대전 지역의 총 접촉 가구는 1,382가구였으며, 최종 성공 가구는 442가구였다. 총 방문 횟수는 1,625회였고, 가구 응답 성공률(성공 가구/총 접촉 가구)은 31.9%였다. 2021년도 본 조사에 비해서 이번 시험조사의 성공률은 낮게 나타났다.

〈표 3-13〉 가구 방문 현황

(단위: 개, 회)

구분	2023년 시험조사		2021년 본 조사	
	가구	평균 방문 횟수	가구	평균 방문 횟수
성공 가구	108	2.26	442	1.49
비성공 가구	610	1.89	940	1.03
총 접촉 가구	718	1.94	1,382	1.18

자료: 저자 작성.

3) US Census Bureau. (2023). What Are Paradata? - An Example.
<https://www.census.gov/newsroom/blogs/research-matters/2017/04/paradata.html>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이번 시험조사에서 비성공한 610가구의 비성공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비성공 사유 중 '대상제외'가 40.2%(245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강력거절'이 32.3%(197가구)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 가구 방문 비성공 사유

(단위: 개, 회)

구분	2023년 시험조사		2021년 본 조사	
	가구	평균 방문 횟수	가구	평균 방문 횟수
대상제외	245	40.2	788	83.8
강력거절	197	32.3	76	8.1
부재중	134	22.0	33	3.5
빈집	17	2.8	17	1.8
장기 출타	10	1.6	13	1.4
단순거절	3	0.5	5	0.5
조사 중단(조사 중 조사 중단)	1	0.2	5	0.5
외국인(외국인이 집단 거주)	3	0.5	3	0.3
총합계	610	100.0	940	100.0

자료: 저자 작성.

2021년도 본 조사의 경우 비성공한 940가구의 비성공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상제외'가 83.8%(788가구)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강력거절'이 8.1%(76가구)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21년도 본 조사에서 처음에 '대상제외'되었던 가구는 완료되거나 미완으로 재분류되어, 최종 비성공 사유 중 '대상제외(연령상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것)'인 가구는 없었다.

조사에 성공한 108가구의 최종 조사 성공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간대 중 '오후 3~5시 이전'이 29.6%로 가장 높았고, '오후 5~7시 이전'이 25.9%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3-15〉 가구 방문 시간 분포

(단위: 개, %)

방문 시간대	조사 완료 가구	비율
오전 9~11시 이전	3	2.8
오전 11시~오후 1시 이전	7	6.5
오후 1~3시 이전	18	16.7
오후 3~5시 이전	32	29.6
오후 5~7시 이전	28	25.9
오후 7~9시 이전	18	16.7
오후 9시 이후	2	1.9
총합계	108	100.0

자료: 저자 작성.

조사에 성공한 108가구의 최종 조사 성공 요일을 분석한 결과, 전체 요일 중 ‘월요일’이 20.4%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이 19.4%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3-16〉 가구 방문 요일 분포

(단위: 개, %)

방문 요일	조사 완료 가구	비율
월요일	22	20.4
화요일	21	19.4
수요일	19	17.6
목요일	10	9.3
금요일	14	13.0
토요일	15	13.9
일요일	7	6.5
총합계	108	100.0

자료: 저자 작성.

가구원 파라미터를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에 성공한 총 108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개인조사 대상자는 209

명으로 확인되었다. 한 가구당 만 19~49세 적격 가구원은 평균 1.9명이었다. 적격 가구원 209명 중 개인조사표 완료자는 143명으로 가구원 성공률은 68.4%로 나타났다.

〈표 3-17〉 가구원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구분	조사 완료(비율
개인조사표 완료자	143	68.4
개인조사표 미완료자	66	31.6
개인조사표 대상자(계)	209	100.0

자료: 저자 작성.

기혼유배우 가구는 총 75가구로, 그중 부부가 모두 조사 완료된 가구는 31가구로 41.3%를 차지했다. 응답자 특성별 조사표 평균 응답 소요 시간은 기혼여성이 39.6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기혼남성은 32.7분, 미혼은 29.6분이었다.

〈표 3-18〉 조사 완료 가구 현황

(단위: 명, 분)

구분	조사 완료	평균 응답 소요 시간
기혼여성	72	39.6
기혼남성	37	32.7
미혼	34	29.6
계	143	35.4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 분포에서 ① 남성과 여성 비율, ② 기혼과 미혼 비율, ③ 취업 여부 비율 각각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19〉 조사 완료 가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① 성별		② 혼인상태		③ 취업 여부	
	남성	여성	미혼	기혼	비취업	취업
목표	40.0%	60.0%	35.0%	65.0%	40.0%	60.0%
실제	남성	여성	미혼	기혼	비취업	취업
	52	91	34	109	48	95
	36.4%	63.6%	23.8%	76.2%	33.6%	66.4%

자료: 저자 작성.

라. 다른 조사와의 비교

본 시험조사를 수행한 사례 조사업체의 관점에서 이번 시험조사와 다른 조사에 관한 비교의견을 요청하였다. 사례 조사업체는 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여성가족패널조사>와 몇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선 에러체크 방법 차이 및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 에러체크 방법에서 시험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구원 사항과 개인조사표의 세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 개인조사표 클리닝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가공한 후 클리닝 자료를 재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했다. 타 조사 대비 난이도는 시험조사가 더 높다는 의견이었다.

에러체크는 가구원 사항 데이터를 세로로 정렬하고 정제하여, 가구원 및 가족 사항 응답값 내에서의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한 후, 개인조사표의 응답값과 비교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 직업력 데이터 중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만 선택하여 현재 일자리 정보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녀 생년월일과 가구 아이디를 조합하여 자녀 1명당 고유 구분자를 생성한 후 관련 문항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차이점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부부를 쌍으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없는 조사인 반면, <가족과 출산 조사>는 부부 응답 가구의 경우 쌍으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많은 조사라고 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족과 출산 조사 대비 조사 영역이 넓어(예: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교생활 등) 조사업체가 체크해야 하는 에러체크리스트가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단년도 비교뿐 아니라 종단 클리닝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업인 반면, 가족과 출산 조사는 단년도 비교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에러가 발견되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동거와 결혼’, ‘임신·출산 건강’, ‘수유’, ‘현재 일자리 응답’, ‘출산후가 경험’, ‘가구 일반 특성’ 영역의 경우 에러율은 낮은 편이었다고 하였다. 반면 과거 일자리 이력 응답의 값과 현재 일자리 사항을 비교했을 때 응답에러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일자리 시작 시기와 퇴직 시기에서 에러율이 높은 편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3절 소결

이 절에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표본 특성을 고찰하고,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표본 특성을 점검한 결과 2021년도 표본 특성을 대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남성을 표본에 통합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혼남녀를 하나의 표본으로 통합함으로써, 결혼 특성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은 현 체

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본 규모의 측면의 경우 향후 조사에서 기혼여성 표본 규모를 6,000명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1998~2018년까지 총 출생 건수는 3,31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가족과 출산 조사의 1회 횡단조사 표본 크기를 6,000명으로 설정할 경우 2자녀를 둔 여성의 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혼여성 표본을 6,0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관찰할 수 있는 출생 건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20년 누적값보다 훨씬 큰 규모의 관찰 건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본 크기를 기혼여성 기준으로 6,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대체적인 기술 분석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향후 예상되는 조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출산 조사> 수행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조사를 민간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업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조사는 대전 지역 10개 조사구를 선정하여 10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49세 가구원과 그의 배우자 전원이었다. 이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 대상과 동일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종이설문지를 활용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였다.

시험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례 조사업체의 조사 수행체계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조사 준비 과정부터 수행 과정, 조사 완료 후 자료 처리와 결과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매우 안정적인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전에 설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조사구를 관리하고 있었다. 파라미터를 비교한 결과, 주요한 비성공 사유는 ‘대상제외’(40.2%)

였고, '강력거절'은 3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파라미터로서 가구원 조사 성공률은 68.4%로 나타났다.

동거와 결혼, 임신·출산 건강, 수유, 현재 일자리 응답, 출산휴가 경험, 가구 일반 특성 영역의 경우 에러율은 낮은 편이었고, 과거 일자리 이력 응답의 값과 현재 일자리 사항을 비교했을 때 응답에러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시작 시기와 퇴직 시기에서 에러율이 높은 편이었다. 데이터 클리닝 난이도는 타 조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위탁 수행을 추진할 경우, 시험조사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동거와 결혼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문헌 검토

제3절 문항 구성 분석과 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동거와 결혼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영역 2. 동거와 결혼'의 문항 구성 및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동거와 결혼' 영역은 인구 및 생애과정 관점에서 응답자의 결혼 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혼경험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결혼(또는 파트너십)의 형성과 해체를 발생 여부와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양적인 측면과, 결혼을 둘러싼 의사결정 동기나 태도, 결혼(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주관적 가치 등을 조사하는 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동거와 결혼 영역 조사 문항의 체계와 내용 등이 혼인경험과 태도의 조사라는 일반적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동거와 결혼 영역이 최근 결혼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가도 함께 검토한다. 혼인행동의 변화를 결혼 여부의 변화(인구학적 행동의 변화)와 혼인방식의 변화(파트너십의 변화)로 구분한다면, 최근 20여 년 동안 기존 연구들의 관심은 전자에 집중해 왔다. 실제로 결혼의 인구학적 행동이 가장 크고 가장 가시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방식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만혼과 비혼의 확대는 법적 혼인과 다른 방식의 파트너십이 확산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혼인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혼(동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문헌 검토

먼저 결혼의 감소 경향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결혼(법적 혼인)이 감소하는 경향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서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20세기 후반 북미와 유럽 등에서 결혼 감소 경향은 출산의 감소와 더불어 탈전통화, 개인주의, 표현주의 등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해방으로 이해되었다.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과 이러한 지향을 생애과정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물질적 풍요) 등이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van de Kaa, 1987; Cherlin, 2004).

젠더 관점의 연구들을 보면, 성역할의 변화가 결혼의 감소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의 혼인행동 사이의 인과적 연결은 모호한 반면, 성역할의 변화(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결혼의 인센티브 구조 변화(Becker, 1973; Oppenheimer, 1988), 또는 여성의 이중노동 심화라는 젠더 불균형(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와 문화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관 및 젠더 불균형 연구가 거시적인 수준에서 결혼, 출산, 생애과정의 변화에 주목했다면, 생애과정 연구는 미시적 또는 중범위 수준에서 실제로 결혼을 포함한 성인 이행 과정 전반의 변화를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성인 이행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의 영향력 자체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행에 필요한 자원과 규범적 안정성 등이 약화된 것이 결혼과 출산을 비롯한 성인 이행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제로 각 사회 내에서 결혼이행 경험이 사회계층 또는 노동시장 지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의 유력한 설명틀로 부상했다. 이른바 불안정성 가설이다(Mooyaart, Liefbroer, & Billari, 2022).

국내 연구들은 이 세 가지 이론적 가설에 영향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를 제한적으로만 수용했으며, 어느 하나의 가설이 일방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 결혼이행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성이 주로 남성의 결혼행동만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노동시장 지위 등 사회경제적 자원이 여성의 결혼이행에도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윤자영, 2012; Kim, 2017;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김영아, 박은혜, 김근태, 2022).

이러한 사실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결혼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힘에 대해 젠더를 가로지를 정도로 커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사회계층적 위치에 따라 결혼행동은 물론 결혼태도와 가치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결혼이행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와 달리 실증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경제력과 결혼이행의 일반적 관계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 기대의 변화, 나아가 가족형성의 기초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조윤명, 김영미, 2020;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비혼의 이유에 대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비용 문제를 1순위로 꼽고 있지만, 여성은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순위와 큰 차이가 없는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p.12). 이는 성별에 따른 상이한 역할 기대와 불균등한

기회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단지 탈전통화나 개인주의 정도, 성평등주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이분법적인 척도보다는, 개인과 가족, 현재와 미래 등 주체와 시간축을 다원화하는 질문을 개발하여, 지향과 전망과 현실인식 등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의 안정성 정도 및 미래 가족에 대해 기대하는 성역할 배치의 특성 등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또는 파트너십)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앞의 결혼이행 분석과 비교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인구통계적으로 비혼동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 비혼동거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비혼과 만혼의 확대 추세가 비혼동거를 자극하고 있는가도 불분명하다. 잘 알려진 키어난(Kiernan, 2001)의 동거의 사회적 수용 단계 논의에 따르면, 1단계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상태에서 소수만이 예외적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결혼제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가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인가를 탐색, 확인하기 위한 예비동거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등장하여 동거 내에서도 출산이 이루어질 정도로 결혼의 독점력이 약화되는 단계이며, 4단계는 동거와 결혼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동거가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선행연구들은 비혼동거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 결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거를 구분하면, 크게 결혼의 전단계 또는 예비단계로서의 동거와 결혼의 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구분할 수 있다(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결혼의 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동거가 흔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동거의 특성을 밝히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연주(2008)는 동거를 동기 중심으로 예비동거, 대안동거, 대체동거, 편의동거로 구분하였고, 기존 결혼규범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동거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경우(대안동거)와 기존 결혼규범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동거를 선택한 경우(대체동거)로 구분했다. 김원정, 김순남(2018)은 이연주(2008)의 대안동거라는 용어 대신에 잔여동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잔여동거는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동거를 선택한 경우와 부부의 특성이 전통적 통념을 충족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동거를 선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한 개념이다. 특히 김원정 외(2018)의 연구는 1995년과 2015년 자료를 비교하여 동거 특성의 변화를 분석했다. 여전히 전통적 규범을 충족할 수 없어서 동거하는 잔여적 동거의 비중이 높지만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거하는 사회경제적 잔여동거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동거 특성은 키어난(Kiernan, 2001)의 동거 확산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3절 문항 구성 분석과 자료 분석

1. ‘동거와 결혼 영역’의 전체 문항 구성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동거와 결혼 영역 문항은 총 22개의 본문항과 그 하위 문항을 합하여 109개의 변수를 산출한 문항이다. 전체 1,307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조사에서 8.3%를 차지한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성격상 동거와 결혼 영역은 가족생활의 내부를 조사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인구학적 패턴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때문에 해당 문항이 전체 조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혼 진입과 퇴장, 결혼유형 관련 문항 이외에 추가적인 문항이 배치되기가 어렵다.

22개의 본 문항을 기준으로 영역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영역 2는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결혼유형 영역은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혼인신고 유무, 결혼식 유무 등에 따라 해당 관계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문항과 결혼시기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결혼의 가치 문항은 현재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에 대해 기대한(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한 문항이다. 결혼상태별 문항은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미혼/기혼무배우자, 이혼/별거/사별 등 혼인상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개인사 영역은 개인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혼인 경험을 조사한 영역이다.

<표 4-1> '영역 2. 동거와 결혼'의 하위 문항 구성

구분		해당 문항	비고
1. 결혼유형 [법률혼, 사실혼 (동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결혼유형 식별 문항	문항 1 문항 1-1 문항 1-2 문항 3 문항 3-1 문항 7	
	결혼시기 관련 문항	문항 1-1-1 문항 2 문항 3-1-1 문항 4 문항 4-1 문항 6 문항 7-1-1 문항 8-1 문항 8-1-1	
2. 결혼의 가치	법률혼	문항 5-1 문항 5-2	

구분		해당 문항	비고	
	사실혼	문항 5-3 문항 5-4		
		문항 9-1 문항 9-2 문항 9-3 문항 9-4		
	미혼자의 미래 결혼	문항 15-3-1 문항 15-3-2 문항 15-3-3 문항 15-3-4		
	비혼자의 미래 비혼	문항 17-1 문항 17-2 문항 17-3 문항 17-4		
3. 결혼상태별 특성	사실혼	사실혼의 성격	문항 8 문항 8-2 문항 10 문항 10-1 문항 11 문항 11-1 문항 12	
		차별 경험	문항 13-1 문항 13-2 문항 13-3 문항 13-4	
	미혼/ 기혼 무배 우자	교제 중 상대	문항 14	
		결혼의향	문항 15 문항 15-1	
		등거 및 기타 의향	문항 15-2 문항 16 문항 16-1	
	이혼/별거 / 사 별 의 상태	헤어진 이유	문항 20	
		헤어진 이후 주거와 자녀양육	문항 21 문항 22 문항 22-1 문항 22-2	
	4. 결혼이력 (최대 열 번째 결혼까지)	결혼횟수	문항 18	
		결혼시기	문항 19-1	
		결혼형태(혼인신고 여부)	문항 19-2	
결혼종료시기		문항 19-3		
결혼종료형태		문항 19-4		

자료: 박중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이러한 현재의 영역 구성은 파트너십의 유형, 시기, 성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이 조사는 결혼관계에 진입하는 방식과 시기, 서로 다른 결혼형태와 결혼해소 등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인 비혼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문항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또한 현재 단순하게 ‘결혼의향’만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의향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없는 성인이 미래의 결혼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의식과 실천 양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네 번째 하위 영역인 개인의 결혼이력(marriage history) 문항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다. 결혼이력 문항은 첫 번째 결혼부터 최대 열 번째 결혼에 이르는 복수의 결혼경험에 대해 시기와 형태를 질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결혼이력이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결혼경험이 없는 사람이 42.8%, 한번 경험한 사람이 56.4%를 차지했고, 2회 이상 경험한 사람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사례 수는 160사례로 나타났다. 기혼자로 한정하면, 결혼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약 1.2%를 차지한다(110사례). 또한 2회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총 결혼횟수가 2회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의 결혼이력에 대한 문항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표 4-2〉 개인의 결혼사 문항 검토: 총 결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모든 응답자				기혼자			
	가중치 비적용		가중치 적용		가중치 비적용		가중치 적용	
	사례 수	구성비	사례 수	구성비	사례 수	구성비	사례 수	구성비
0회	5,003	35.4	6,047	42.8	-	-	-	-
1회	8,980	63.5	7,975	56.4	8,480	98.5	8,498	98.7
2회	154	1.1	116	0.8	124	1.4	105	1.2
3회	5	0.0	4	0.0	4	0.1	3	0.0
4회	1	0.0	2	0.0	1	0.0	2	0.0
전체	14,143	100.0	14,143	100.0	8,609	100.0	8,60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결혼유형 문항의 현재 구성과 쟁점

가. 결혼 여부에서 다양한 결혼유형으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두 번째 조사 영역인 ‘동거와 결혼’은 응답자의 현재 파트너십 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는 결혼 여부와 혼인해소 방식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파악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사실혼 및 동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상태보다 더 넓은 범주인 파트너십 형태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인구총조사(통계청) 등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조사는 결혼 여부와 배우자 유무만을 가지고 개인의 결혼상태를 파악하여, 결혼형태의 다양성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이 조사에서는 결혼을 구성하는 복수의 요소들(결혼식, 혼인신고, 공동거주 등)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결혼의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세부 항

목을 통해, 법률혼, 사실혼, 동거 등 파트너십 형태의 객관적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혼유형 문항은 <표 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문항과 결혼시기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 결혼유형 영역의 하위 문항 구성과 해당 문항

구분		해당 문항	비고
1. 결혼유형 [법률혼, 사실혼 (동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결혼유형 식별 문항	문항 1 문항 1-1 문항 1-2 문항 3 문항 3-1 문항 7	
	결혼시기 관련 문항	문항 1-1-1 문항 2 문항 3-1-1 문항 4 문항 4-1 문항 6 문항 7-1-1 문항 8-1 문항 8-1-1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결혼의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파악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이다. ① 혼인 유무 및 함께 사는 파트너 유무(문항 1), ② 혼인신고 유무(문항 1-1), ③ 결혼식 유무(문항 3), ④ 배우자 인식 유무(문항 8)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결혼유형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표 4-4>, <표 4-5>와 같다. 전체 응답 중 법률혼은 51.8%, 사실혼은 2.3%, 별거는 0.2%이며, 이를 합한 54.3%가 유배우자이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45.8% 중 미혼이 42.7%, 동거가 0.1%, 이혼이 2.7%, 사별이 0.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4,143명 중 사실혼은 290명, 동거는 10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응답자의 결혼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	전체	
	법률혼	사실혼	별거	미혼	동거				
전체 사례 수	19~24세	45	23	1	1,918	6	3	0	1,996
	25~29세	356	76	3	1,385	2	9	0	1,831
	30~34세	1,172	75	2	746	2	27	3	2,027
	35~39세	2,114	48	6	383	0	59	4	2,614
	40~44세	2,502	39	6	329	0	136	11	3,023
	45~49세	2,130	29	14	232	0	203	44	2,652
	합계	8,319	290	32	4,993	10	437	62	14,143
전체 (가중치)	19~24세	2.0	0.9	0.1	96.7	0.2	0.2	0.0	100.0
	25~29세	16.5	4.6	0.2	78.1	0.2	0.4	0.0	100.0
	30~34세	52.9	4.2	0.0	41.8	0.1	0.9	0.1	100.0
	35~39세	77.7	1.9	0.1	18.2	0.0	1.9	0.1	100.0
	40~44세	80.8	1.4	0.2	12.9	0.0	4.5	0.3	100.0
	45~49세	78.6	1.1	0.5	10.4	0.0	8.0	1.4	100.0
	합계	51.8	2.3	0.2	42.7	0.1	2.7	0.3	100.0
남성 (가중치)	19~24세	0.9	0.5	0.0	98.4	0.1	0.1	0.0	100.0
	25~29세	8.7	3.9	0.0	87.2	0.2	0.0	0.0	100.0
	30~34세	40.5	4.5	0.0	54.4	0.2	0.4	0.0	100.0
	35~39세	71.2	1.8	0.1	25.7	0.0	1.2	0.0	100.0
	40~44세	75.8	1.3	0.0	19.8	0.0	3.0	0.1	100.0
	45~49세	74.6	1.2	0.1	16.6	0.0	6.8	0.7	100.0
	합계	44.6	2.2	0.0	51.2	0.1	1.8	0.1	100.0
여성 (가중치)	19~24세	3.3	1.3	0.1	94.9	0.3	0.2	0.0	100.0
	25~29세	25.3	5.4	0.4	67.8	0.2	0.9	0.0	100.0
	30~34세	66.4	3.9	0.1	28.1	0.0	1.3	0.3	100.0
	35~39세	84.5	2.1	0.2	10.4	0.0	2.5	0.2	100.0
	40~44세	85.9	1.6	0.3	5.8	0.0	6.0	0.4	100.0
	45~49세	81.7	1.1	0.7	5.7	0.0	8.9	2.0	100.0
	합계	59.0	2.4	0.3	34.1	0.1	3.6	0.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5〉 응답 가구의 혼인 및 동거 특성 분포

(단위: %, 가구)

혼인분류	동거특성	비율	사례수
미 혼	미혼 1인 가구	51.2	5,122
	이혼별거사별 1인 가구	8.6	861
기 혼	법률혼 가구	37.2	3,725
	사실혼 가구	2.8	283
미 혼	단순동거 가구	0.1	8
전 체		100.0	9,999

자료: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94.

나. 사실혼과 동거 구분의 필요성 검토

먼저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여부를 통해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는 쟁점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는 이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조사에서는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고 있다. 응답자가 현재 함께 사는 사람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는지(8번 문항)를 기준으로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한다(박종서 외, 2021, p.93). 사실혼은 사실상의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동거는 함께 사는 친밀한 파트너가 있으나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14,143명 중 290명이 사실혼으로 분류되었고 동거는 10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유사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사실혼과 동거의 유형적 차이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모호하다.

이 조사에 포함된 문항을 통해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역시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에 해당되는 사례 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문항 8-2)에 대한 응답에서 사실혼과 구분되는 동거의 특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귀하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문항 10)에서도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귀하는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까”(문항 12)의 응답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동거 유형에서 확실히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지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표 4-6〉 문항 10: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구분	(단위: %)		
	사실혼	동거	사실혼+동거
①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혼인신고는 의미 없어서)	19.8	48.7	20.7
②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	28.8	26.8	28.7
③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4.8	0.0	4.7
④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32.6	20.5	32.2
⑤ 아이,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3.8	0.0	3.7
⑥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5.1	4.0	5.1
⑦ 기타	5.2	0.0	5.0
전체	100.0(290)	100.0(10)	100.0(300)

주: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문항의 체계에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사실혼과 동거(단순동거)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비법률혼 유형의 여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한 문항들, 부부관계 여부(문항 8),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문항 10), 향후 혼인신고계획(문항 12)은 사실혼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문항인가. 문항 10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기에 때문에, 사실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의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기존 동거 특성 연구들에서 동거 선택의 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바에 따르면, 동거의 유형은 잔여적 동거, 예비동거, 대체동거, 편의동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원정, 김순남, 2018). 그러나 현재의 보기는 여러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인 데 반해, 보기의 내용은 여러 항목에서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측정 방법을 바꾸어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요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항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항 12는 향후 혼인신고계획을 질문한 것으로서, 현재의 사실혼 상태가 결혼을 대체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결혼의 전단계 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두 문항과 비교하여 부부관계 여부(문항 8)에 대해서는 극소수만이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문항의 변별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 파트너가 있습니까”(문항 1)라는 문항에 “네”라고 응답하면서 부부관계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문항 1을 통해 이미 파트너와의 연결이 약한 유형의 동거가 스크리닝되어 동거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 문항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Generation & Gender Survey의 질문을 참조할 수 있다(Gauthier,

Liefbroer, Ajzen, Aassve, Beets, Vikat, 2021). 이 조사에서는 동거 및 결혼 영역의 첫 질문을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로 시작한 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이러한 방식을 차용한다면 파트너와 느슨하게 연결된 동거 유형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 비공식화된 결혼의 비중

법률혼과 비법률혼의 구분과 별도로, 본 조사에서는 결혼식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결혼을 공식화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만약 이 둘을 모두 갖춘다면 공식화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둘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공식화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은 가족형성 과정에 법적, 관습적으로 부과된 이러한 공식화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제공하는 혼인신고 여부와 결혼식 유무 문항은 해당 시기 결혼의 공식화 정도에 대한 집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고, 어떤 특성의 개인에게서 비공식화된 결혼이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에서 다음 <표 4-7>과 같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혼인신고와 결혼식의 유무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19~49세)의 91.8%는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모두 한 경우이지만, 혼인신고는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3.8%를,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는 1.5%를,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는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집단과 결혼방식의 다양성 사이에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모두 갖춘 결혼의 비중이 낮

아저, 19~24세의 경우 25.1%에 불과했으며, 25~29세에서도 62.9%로 비교적 낮은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점차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갖춘 결혼이 전체 중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령 결혼과 비공식화된 결혼 사이의 높은 관련성을 해명하는 작업도 결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연령집단별 파트너십 형성 방식의 분포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 유 결혼식 유	혼인신고 유 결혼식 무	혼인신고 무 결혼식 유	혼인신고 무 결혼식 무	합계	사례 수
19~24세	25.1	40.8	0.8	33.3	100.0	74
25~29세	62.9	14.7	7.6	14.9	100.0	434
30~34세	87.6	4.9	3.4	4.1	100.0	1,249
35~39세	94.8	2.8	0.9	1.6	100.0	2,162
40~44세	96.5	1.8	0.7	1.1	100.0	2,541
45~49세	96.3	2.3	0.4	1.0	100.0	2,159
전체	91.8	3.8	1.5	2.9	100.0	8,619

주: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앞의 〈표 1-4〉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라. 혼인신고, 결혼식, 동거 시작 등의 시점 필요성 검토

가족과 출산 조사의 2영역인 결혼 영역은 결혼유형 식별 문항과 결혼 시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결혼유형 식별 문항은 전반적으로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각 항목을 경험한 시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 부담 경감의 목적으로 기존 문항의 단순화를 추구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이 이 시점에 관한 문항들이다.

〈표 4-8〉 결혼유형별 결혼시점 판단기준

(단위: %, 명)

	구분	같이 살기	결혼식	혼인신고	기타	합계	사례 수
법률혼	결혼식 유	19.6	70.7	9.5	0.2	100.0	8,019
	결혼식 무	64.0	0.0	35.6	0.4	100.0	300
	합계	21.4	67.8	10.6	0.2	100.0	8,319
사실혼	결혼식 유	38.7	61.3	0.0	0.0	100.0	91
	결혼식 무	98.4	0.0	0.0	1.6	100.0	199
	합계	77.1	21.9	0.0	1.0	100.0	2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물론 개인에 따라 세 항목 사이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로 인한 차이의 의미가 모호하다. 그것이 결혼유형의 차이를 의미하는지, 결혼의 비공식화 정도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편의에 의해 혼인신고나 동거시점을 조정하는 수단에 불과한지를 규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점을 밝히는 조사 문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일반적인 인구통계지표로서 초혼 연령 또는 초혼 시점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자기 기준에 따라 결혼시점을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혼인의 하위 항목에 대한 시점 조사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시작하는 혼인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하위 항목에 대한 시점을 별도로 묻지 않는다면, 결혼 전에 동거한 경험이 있는지 간단하게 질문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혼인한 개인을 대상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전에 일정 기간(가령 1년) 이상 동거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결혼가치 문항의 구성과 쟁점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가치관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영역에서 수행된다. '영역 2. 동거와 결혼'에서는 결혼유형과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결혼가치 척도 문항은 <표 4-9>와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 각각에 따른 결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결혼을 기대할 때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 결혼을 전망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가치손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네 가지 상황에 대해 동일한 가치 문항을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네 가지 상황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표 4-9> 결혼가치의 영역 구성

구분	척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4점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4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4점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4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은 결혼가치 조사 결과를 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균점수(4개 척도의 평균값)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 법률혼을 한 남성의 결혼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의향이 없는 여성의 결혼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 상황별 결혼가치 평균점수의 분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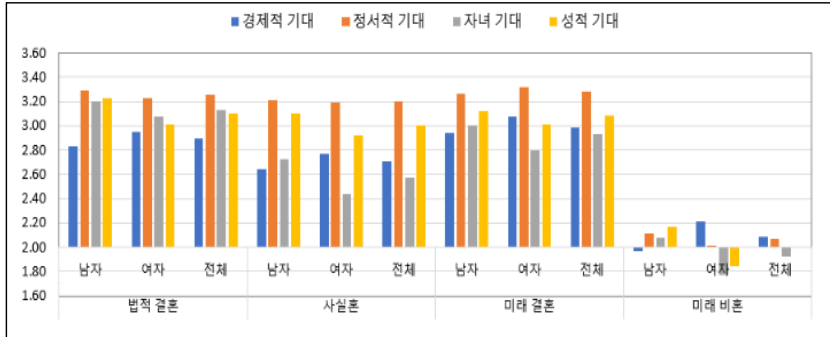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2]는 4개 항목별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법적 결혼에서 남성은 경제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사실혼의 경우 경제적 기대와 자녀 기대가 법률혼에 비해 더 낮았으며, 정서적 기대 수준은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래 결혼을 전망하는 비혼자들이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에서도 정서적 기대가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결혼의향이 없는 비혼자의 경우 비혼에 따른 제약(손실)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결혼의 가치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남성은 경제적 기대를 제외한 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여성은 경제적 기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손실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결혼가치 척도는 각 결혼유형과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2] 상황별 하위 영역별 결혼가치 점수

(단위: 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결혼상태별 특성 문항의 구성과 쟁점

가. 미혼자의 현재와 특성 파악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다음 표와 같이 향후 결혼의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항이 적절하고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영역의 문항이 더 확대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표는 결혼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때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질문은 다소 복잡해진다.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이행과 이혼/사별 후 재혼으로의 이행은 사회적, 인구학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이행에 대한 문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항목의 결혼의향/동거의향 등 조사에서 초혼/재혼의 구분이 필요하다.

〈표 4-10〉 ‘영역 2. 동거와 결혼’의 미혼자 대상 문항 구조

대상자 구분		문항
무배우 전체	결혼의향 있음	·교제상대 유무
		·결혼의향
	결혼의향 없음	·결혼예상 연령
		·결혼 전 동거의향
		·결혼에 대한 기대
		·동거할 의향
		·향후 누구와 살 것인지
		·결혼하지 않음에 따른 제약에 대한 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사실혼의 현재와 특성 파악

현재 사실혼 관련 문항은 사실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를 통해서는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선택했는지, 사실혼이라는 결혼유형의 장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문항 8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차별 경험에 대한 문항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결혼유형과 혼인상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려는 본 조사의 목적과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문항이다. 차별과 소외 경험은 비혼이나 이혼 등 무배우자에게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혼에 할당된 문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이혼/별거/사별의 현재와 특성 파악

현재 해당 문항은 이혼의 동기와 이혼 후 생활의 변화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과거 경험이 여러 번인 경우 첫 번째 이혼을 기준으로 응답하라는 안내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조사의 편의상 현재로부터 가

장 가까운 최근의 이혼을 기준으로 응답하라는 것이 적절하고, 현재의 이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조사 목적에도 부합한다.

제4절 소결

영역 2는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결혼유형 영역은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혼인신고 유무, 결혼식 유무 등에 따라 해당 관계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문항과, 결혼시기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결혼의 가치 문항은 현재 개인의 혼인 관련 상황에 따라 결혼에 대해 기대한(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결혼상태별 조사는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미혼/기혼무배우자, 이혼/별거/사별 등 혼인상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개인사는 개인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혼인경험을 조사한 영역이다.

하위 영역의 구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이 조사는 결혼관계에 진입하는 방식과 시기, 서로 다른 결혼형태와 결혼해소 등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인 비혼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문항은 부족하다. 또한 현재 단순하게 '결혼의향'만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의향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없는 성인들이 미래의 결혼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의식과 실천 양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의 결혼사(marriage history) 영역의 필요성이다. 개인의 결혼사 문항은 개인의 결혼횟수가 많고 복잡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결혼횟수

가 2회를 초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항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역별 세부 문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인 결혼유형 식별과 시기 관련 영역은 결혼유형 식별에서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을 포기하고, 결혼방식의 비공식화 경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인지 기준별 시점 조사는 지나치게 자세하다. 분석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역인 결혼 관련 상황별 결혼가치 문항은 이 영역에서 적절하게 설계되고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영역인 결혼상태별 특성 문항의 경우,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이행과 재혼 이행을 구분하여 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실혼에 대한 문항은 사실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불필요한 문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혼/사별 등에 대한 문항은 현재로서 적절하나, 현재의 이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조사표의 안내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임신과 출산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문헌 검토

제3절 설문 문항과 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제 5 장 임신과 출산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세 번째 영역인 ‘임신·출산 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과 결과를 검토 및 평가한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영역은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난임(불임),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 등 크게 네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 모자보건 또는 재생산건강 관련 분야는 물론 출생아 등 실제 출산의 결과와 추가 희망 자녀 등 출산 행위에 관한 전망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 장의 목적은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설문 문항과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과 한계들을 파악하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세부 주제별 관련 이론과 최근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학술적 관심과 쟁점이 되는 분야를 확인한다. 실제 설문지의 구조와 문항, 선택지 등을 검토하고 기초분석과 일부 심층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과 조사 결과의 효과성, 활용도, 시의성 등을 확인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조사와 설문 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문헌 검토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임신·출산 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와 주제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최근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동향과 이슈를 파악한다. 이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와 문헌이 광범위한 만큼 문헌 검토의 대상과 영역, 기간을 제한하였다. 해당 영역이 ‘임신·출산 건강’인 점을 고려하여 인구학, 사회학, 보건학 분야에 집중하고 ‘리뷰논문(review article)’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를 지닌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Annual Review of Sociology,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등 세 가지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경험적 연구나 세부 연구논문으로 확대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문헌 검토는 200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검색했으며, 세부 주제에 따라 관련 문헌이 많을 때는 2010년 이후 연구 위주로 검토하였다. 주요 주제가 피임, 임신, 출산, 난임, 자녀계획 등에 집중되는 만큼 ‘contraception’, ‘birth control’, ‘pregnancy’, ‘fertility’, ‘infertility’, ‘fertility intention’ 등의 핵심 단어를 활용하였다. 다만, 문헌 검토의 목적이 최근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제한적인 내용만을 포함시켰다.

1.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

출산력 연구에서 생식건강과 피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생식건강과 관련된 증상 여부 또는 피임 사용 여부, 피임 방법 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시아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서 가족계획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된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출산력 수준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의 효과가 다양한 범위에서 확인되었으며,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개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공헌한 것이 인정된다(Miller & Babiarz, 2016).

사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재생산건강과 피임에 관해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는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이다(통계개발원, 2020).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지표 3.7.1.은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이다. 가족계획과 성, 생식보건, 삶의 질 측면에서 피임의 수요(unmet need)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가족계획사업에 연계된 정책과 사회적 노력의 결과로 피임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이 세계 각국의 피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5년 15~44세 기혼여성의 피임률은 16.0%에 불과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80.5%를 기록하였다(UNDESA, 2022). 이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의 과거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회조사 시점마다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한다 해도 기혼여성의 피임률이 77.1~84.5%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UNDESA, 2022).

기혼여성의 높은 피임률에 비해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피임률과 방법, 수요 등에 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전국 단위 표본 조사에서

피임이나 성경험에 관한 문항 대상이 주로 기혼여성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2021년부터 가족과 출산 조사에 미혼여성을 같은 항목에 포함시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점차 관련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도 일부 흥미로운 연구들이 관찰된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에 도달하는 과정에 질외사정 등 전통적인 피임법 사용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ibaldo, Judd, & Kertzer, 2009). 또한 지난 2015년 지카바이러스 (Zika virus) 감염이 확산되었던 브라질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여성의 임신 기피와 피임법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Marteletto, Weitzman, Coutinho, & Valongueiro Alves, 2017). 이 연구는 특히 피임에 대한 접근이 쉽고 사회계층이 높은 여성일수록, 피임 사용에 대한 의도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고, 피임 사용에 대한 파트너와의 협의 과정이 수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Marteletto et al., 2017).

요컨대, 피임 여부와 그 방법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생식건강과 삶의 질, 인구·사회적 변화,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여성의 임신 상태는 과거와 달리 임신과 비임신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임신, 자연유산, 체외수정, 시험관시술 등 그 모호한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Bell & Fissell, 2021). 여성의 평

균 출산 연령 상승과 더불어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을 통한 임신과 출산도 증가하고 있다(Sobotka et al., 2008; Pison, Monden, & Smits, 2015). 임신과 출산 경험을 측정하는데 이 같은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2000년대와 2010년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호성, 원치 않은 임신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사실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 이중적이고 모호한 감정 및 태도를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당시 임신을 전혀 원치 않았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만족하고 출산을 원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계획대로 임신하였지만 임신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 배우자와의 불화,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임신을 원치 않거나 후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중적인 감정과 모호한 태도를 정의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선행연구들은 공통으로 이러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산전·산후 관리는 물론 신생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한다(e.g., Pulley, Klerman, Tang, & Baker, 2002; Yoo, Guzzo, & Hayford, 2014).

선진국의 경우 피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사용이 허용된다. 피임이 확산되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사회계층이나 집단 간 차별출산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집단 간 출산력 수준의 차이는 일부 '의도하지 않은 출산(unintended birth)'으로 설명된다. '의도하지 않은 출산'은 세부적으로 '원치 않은 출산(unwanted birth)'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출산(mistimed birth)'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출산을 (더 이상) 원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출산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출산을 원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출산을 의미한다(Hayford & Guzzo, 2016).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의도하지 않은 출산

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고학력 여성의 원치 않은 출산 비중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의도하지 않은 출산, 원치 않은 출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출산 등은 그대로 임신에도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임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논의가 서구 또는 선진국에 제한된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여성의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그 결과에 따라 ‘인공임신중절(induced abortion)’,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출산(mistimed birth)’, ‘원치 않은 출산(unwanted birth)’로 구분되며, 일부 학자는 이를 개발도상국이 경험한 출산력 변천의 단계에 따라 설명하기도 한다(Bongaarts & Casterline, 2018).

임신 경험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 우리 사회 역시 태아 성감별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남아선호사상과 성선별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Zaidi & Morgan, 2017).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과거 30년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여 코호트 측면에서 생애 인공임신중절 비율과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비율 등을 측정한 연구가 관찰된다(Cowan, 2013).

출산 결과와 관련하여 유럽 등 저출산 국가의 연구 동향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국가에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늦은 시기에 출산하고 또 부모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Beaujouan, 2020). 30대 후반 또는 40대 이후 처음 부모가 되는 사례와 그 비중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선진국의 출생 변화를 월별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반등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obotka, Zeman, Jasilioniene, Winkler-Dworak, Brzozowska, Alustiza-Galarza, Németh, & Jdanov, 2023). 표본의 크기 등 자료의 한계로 월별 출산율 변동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난임(불임)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력은 20대 이후 나이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난임과 불임은 반대로 증가한다(Menken, Trussell, & Larsen, 1986). 매우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평균 출산 연령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난임과 불임,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다. 보조생식술의 발달과 확산 역시 난임과 불임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Leridon, 2004).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난임의 증가, 보조생식술의 확산, 보조생식술과 출산 연령 또는 출산율 변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사실 난임과 보조생식술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임상 연구를 제외하고, 실제 인구집단의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덴마크의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이 1965년생 여성의 약 2.1%에서 1978년생 여성의 약 4~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obotka et al., 2008). 호주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이 1968년생 여성의 2.1%였지만, 1986년생 여성의 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Lazzari et al., 2023). 이 연구들은 인공수정(Intrauterine Insemination: IUI)이나 배란유도 등을 제외하

고,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ART)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난임시술을 통한 출산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Sobotka et al., 2008; Lazzari, Potančoková, Sobotka, Gray, & Chambers, 2023).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출산의 증가는 다태아(특히 이란성 다태아) 출산과 모성의 건강 또는 미숙아, 저체중 등 신생아의 건강과 꾸준히 연계되고 있다. 사실 저출산 국가의 다태아 증가를 분석한 연구는 그 원인으로 보조생식술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출산 연령 상승을 지적하고 있다(Pison, Monden, & Smits, 2015). 여성의 출산 연령 상승이 다태임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에 의한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에 의한 출생아는 2006년 5,453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2%였다가 2011년 11,317명으로 2.4%로 증가하였다(황나미 외, 2019). 난임시술비 지원에 의한 출생아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854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의 경우 다태아 비중이 매우 높아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 모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모성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우려와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 수 규제에 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황나미, 2015; 황나미 외, 2019; Pison, Monden, & Smits, 2015; Kim, 2019).

4.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

출산 의도(fertility intention)는 출산력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 <미국출산력조사(American Fertility Survey)>에서 출산 의도 관련 문항들이 사용된 이후 출산력 연구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e.g., Westoff and Ryder, 1977). 개인 수준에서 출산 의도와 가족계획은 자주 변경되고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Westoff and Ryder, 1977; Berrington, 2004). 단기간에 따른 출산 의도는 실제 출산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Morgan, 2001). 다만, 개인의 출산계획은 기간(예: 3년)을 특정하여 질문하였을 때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oulemon & Testa, 2005; Spéder & Kapitány, 2009).

개인 수준에서와 다르게 출산 의도는 집합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실제 출산 수준이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Quesnel-Vallee and Morgan, 2003; Hayford, 2009; Morgan and Rackin, 2010). 개인의 출산 의도와 실제 출산 결과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집합 수준에서는 실제 자녀 수가 기대한 자녀 수에 초과하거나 부족한 정도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집합 수준에서 ‘희망 자녀 수’ 또는 ‘기대 자녀 수’로 측정되는 출산 의도 또는 출산계획은 출산의 지연, 불임, 또는 다른 활동과 경쟁 등으로 평균적으로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Hayford, 2009). 하지만 앞서 언급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평균 기대 자녀 수의 감소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규모는 미국이 유럽 국가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Hagewen and Morgan, 2005).

출산 의도와 희망하는 자녀의 수(desired number of fertility) 등 관련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가로지르며 꾸준히 이어졌다. 영국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를 수정하는 것이 확인되며, 특히 집합 수준에서 30세 이후에는 매우 완만히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Iacovou and Tavares, 2011). 이 같은 논의는 출산 의도 또

는 선호도가 커플 내에서 상충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기도 한다(Voas, 2003).

다수의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은 대체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흥미롭게도 대다수 저출산 국가의 이상 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는 여전히 2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Sobotka and Beaujouan, 2014). 연구자들은 자연스레 많은 사람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원하면서도, 실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웨덴, 미국, 스페인, 일본 등 출산력과 젠더 불평등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의 성인남녀를 인터뷰한 연구(Brinton, Bueno, Oláh, & Hellum, 2018)는 대부분 이상 자녀 수로 2명 내외를 언급하지만,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의 차이와 그 이유가 국가별로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출산력 수준이 매우 낮은 스페인과 일본의 차이에 주목할 만하다. 일본 여성의 경우 이상 자녀 수가 2명 미만인 사례가 더 많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와 자녀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과 출산/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고 교육비를 걱정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스페인 남성과 여성은 가구의 경제적 측면을 위해 여성의 고용이 중요하며, 더 많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가구 내 성 역할이 좀 더 평등해질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다만 일본에 비해 차이가 있다면 스페인은 실업 등 거시적인 환경과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과 커리어의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출산 건수 역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출산 의도, 자녀 수에 대한 선호도 등은 출산력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구조와 출산력 변화를 성평등 측면에서 설명하는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이 존재하고,

이에 반하는 ‘성평등 이론의 이면(the flip side of gender equity theory)’에 관한 논의가 존재한다(Okun and Raz-Yurovich, 2019). ‘성평등 이론의 이면’은 남성이 좀 더 가사와 양육에 참여할수록 개인적인 시간과 여가활동을 줄이게 되는 만큼, 남성은 이상 자녀 수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산 의도와 실제 출산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연구(Presser, 200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성평등 태도가 좋을수록 파트너와 추가 자녀 출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 가사활동의 실제 시간 증가는 추가 자녀 동의와 관련이 없었다. 이는 이론적 논쟁과 별개로, 출산 의도와 자녀계획 등의 문항이 출산 연구에서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절 설문 문항과 자료 분석

여기에서는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설문지와 문항을 검토하고 기초통계를 토대로 주요 결과를 점검한다. 이 영역은 네 가지 하위 영역을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난임(불임),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설문지는 설문 문항의 문구와 내용, 보기, 문항 간 연결, 지시문 등 조사항목의 구조와 유기적인 연계 과정을 점검한다. 기초통계는 해당 영역의 조사 자료를 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 가구소득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과 교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은 남자와 여자로, 연령은 19~24세를 제외한 49세까지 5세 간격 연령집단으로,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학교급별 졸업 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고졸 이하, 대졸(4년제), 대학원졸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⁴⁾ 사례 수를 제외하고 표에 제시된 통계량은 모두 가중치가 적용된 값이다.

1.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

가. 생식계 이상 증상의 경험과 대처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은 1~2번 문항으로 구성되며, 최근 1년간 생식기 계통의 이상 증상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응답자에는 남녀를 모두 포괄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하나의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 중 32.4%가 생식건강의 이상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남성의 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생산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식계 이상 증상의 경험은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연령 구간별로 생식계 이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성별로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컨대,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생식계 이상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25~29세에 생식계 이상을 경험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그 이후 연령이 상승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성별에 따라 상반되는 생식계 이상 경험 비율은 지역, 혼인상태, 교육수준에서도 확인된다. 여성은 읍면부보다 동부에서, 미혼보다 기혼에서, 학력 중 대학원졸에서 가장 높은 생식계 이상 경험 비율을 보이지만, 남성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그 반대 양상을 보인다.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의 두 번째는 생식계 이상 증상을 경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라는 형태로 ① 산부인과나 비뇨의

4) 해당 조사 자료의 전반적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박종서 외, 2021)에서 교육에 대해 같은 집단 분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량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학교급별 졸업 여부 반영 등 각 교육 범주의 세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학과 등 병의원, ② 한의원(한방병원) 방문, ③ (비처방)약국, ④ 민간요법 등으로 대처, ⑤ 아무 대처하지 않음, ⑥ 기타 등 여섯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의 보기는 상호 독립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포괄해야 한다. 2번 문항의 보기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⑤번 보기는 다른 보기들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⑤번과 다른 보기들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다행히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⑤번 보기를 선택하고 다른 보기들을 함께 선택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문항 구조에서는 숙련된 면접원이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⑤번 보기가 다른 보기들과 함께 복수 선택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증상에 대처하였는지 묻는 문항을 먼저 추가하고, 그 후 ⑤번 보기를 제외한 현재의 해당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수 응답 문항의 보기들이 마이크로 자료에서 모두 더미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문항 변경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기존 문항을 복수 응답이 아닌 단수 응답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2번 문항 하단의 면접원 지시문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등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문항 2-1로”라는 표현도 명확하지 않다. 해당 지시문이 “①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등 병의원”이 아닌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② 한의원(한방병원) 방문”과 “③ (비처방)약국 방문”의 보기를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①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등 병의원이 아닌 경우 문항 2-1로’라고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5-1〉 전체 표본(50세 미만)의 생식건강 이상 경험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전체	2.6	97.4	100.0	32.4	67.6	100.0
지역						
동부	2.5	97.5	100.0	32.9	67.1	100.0
읍면부	3.0	97.0	100.0	29.5	70.5	100.0
연령						
19~24세	1.2	98.8	100.0	36.2	63.8	100.0
25~29세	1.4	98.6	100.0	40.1	59.9	100.0
30~34세	1.8	98.2	100.0	32.5	67.5	100.0
35~39세	2.1	97.9	100.0	29.5	70.5	100.0
40~44세	3.7	96.3	100.0	28.7	71.3	100.0
45~49세	5.5	94.5	100.0	28.5	71.5	100.0
혼인상태						
미혼	1.7	98.3	100.0	36.5	63.5	100.0
기혼	3.4	96.6	100.0	30.2	69.8	100.0
교육						
고졸 이하	2.2	97.8	100.0	32.4	67.6	100.0
대졸	2.8	97.2	100.0	32.7	67.3	100.0
대학원졸	4.2	95.8	100.0	28.4	71.6	100.0
가구소득						
60% 미만	2.6	97.4	100.0	34.3	65.7	100.0
60~80% 미만	1.8	98.2	100.0	32.7	67.3	100.0
80~100% 미만	2.8	97.2	100.0	32.0	68.0	100.0
100~120% 미만	2.8	97.2	100.0	32.8	67.2	100.0
120~140% 미만	3.0	97.0	100.0	30.8	69.2	100.0
140~160% 미만	2.9	97.1	100.0	32.3	67.7	100.0
160% 이상	2.4	97.6	100.0	30.9	69.1	100.0

주: 1) 가구소득은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가중치 적용한 백분율임.

3) 반올림으로 소수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피임

피임에 관한 정보는 3~6번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우선 피임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시작한다. “귀하는 피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생애 기간 동안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함)”이라는 모호한 지시문이 추가되어 있다. 부연 설명이 응답자를 위한 것인지, 면접원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생애 기간 전반의 피임 경험을 묻는 문항이므로 ‘귀하는 지금까지 피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19~49세 응답자 중 피임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남녀 각각 2.7%와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성경험이 없는 비율이 남녀 각각 12.7%와 13.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 경험 비율과 성경험이 없는 비율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24세 연령집단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남녀 모두 피임 경험 비율이 가장 낮고, 성경험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 측면에서도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피임 경험 비율이 가장 낮고 성경험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피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성경험 없음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다음 5, 5-1, 5-2, 6번 문항은 각각 피임을 성관계 상대와 연계한 문항이다. 특히 5번 문항 “귀하는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하십니까?”에서 문항 자체는 성관계 상대자가 배우자, 애인 또는 복수의 상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성관계 상대가 있다면 피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과거 조사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애인 등 주된 성관계 대상자와의 피임에 관한 문항들이 조사 개편 과정에서 성관계 상대가 중의적으로 변화하였다. 성관계 상대에 관한 표현이 길어진 반면, 그 의미는 모호해졌

다. 현재 성관계 상대의 유무 또는 복수 상대 등과 상관없이 응답자의 현재 일반적인 피임 상태를 묻는 것인지 또는 현재 응답자의 주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상태를 묻는 것인지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조사와 전체적인 설문 방향을 고려하면 응답자의 주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상태를 묻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가 문항인 5-1은 구체적인 피임 방법에 관해 묻고 있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이다. 세부적인 피임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대적인 방법은 남녀 반영구적인 기술을 포함 또는 구분하여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제시된 보기들은 다양한 피임 방법들을 포괄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집계하는 피임법의 종류와도 유사하다.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UNDESA, 2022)과 비교하면,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살정제’가 별도의 보기로 포함된 반면, ‘주사 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가 두 개가 아닌 하나의 보기로 제공된 점이 다르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박종서 외, 2021, p.190) 전체 응답자 중 해당 피임 방법을 사용한 비중이 남녀 각각 0.2%와 0.3%로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임 여부를 묻는 5번 문항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경우,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를 묻는 5-2번 문항으로 이어진다. 해당 문항은 남녀 모두 응답이 가능하지만, 보기들은 여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해당 문항의 ①~⑥ 보기는 모두 ‘나’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이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③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불임) 등의 상태이므로]” 보기는 난임, 불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가 난임, 불임 등의 상태’로 피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⑦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보기와 대비된다. “⑧ 임신 중이어서”는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보기이다. ‘⑧ 나 또는 상대방이 임신 중이어서’로 수정하는 것은 물론,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5-2번 문항의 보기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2〉 전체 표본(50세 미만)의 특성과 성별에 따른 피임 경험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성경험 없음	전체	있다	없다	성경험 없음	전체
전체	84.6	2.7	12.7	100.0	82.9	3.6	13.6	100.0
지역								
동부	84.8	2.6	12.6	100.0	83.0	3.4	13.6	100.0
읍면부	84.0	3.2	12.8	100.0	82.3	4.4	13.3	100.0
연령								
19~24세	48.0	2.9	49.2	100.0	44.2	2.4	53.3	100.0
25~29세	84.5	2.1	13.3	100.0	76.3	3.1	20.5	100.0
30~34세	91.8	1.9	6.3	100.0	90.3	4.7	4.9	100.0
35~39세	95.4	2.6	2.0	100.0	95.7	3.2	1.1	100.0
40~44세	96.3	2.8	0.9	100.0	94.7	3.5	1.8	100.0
45~49세	94.8	4.1	1.1	100.0	94.0	4.3	1.7	100.0
혼인상태								
미혼	72.7	2.6	24.7	100.0	56.8	3.5	39.7	100.0
기혼	97.2	2.8	0.0	100.0	96.4	3.6	0.0	100.0
교육								
고졸 이하	77.6	3.2	19.2	100.0	79.5	3.4	17.1	100.0
대졸	93.6	2.2	4.3	100.0	86.8	3.8	9.4	100.0
대학원졸	96.0	1.6	2.4	100.0	92.0	3.9	4.1	100.0
가구소득								
60% 미만	82.2	3.9	13.9	100.0	77.0	5.4	17.6	100.0
60~80% 미만	89.4	2.1	8.5	100.0	86.7	3.4	10.0	100.0
80~100% 미만	83.8	2.8	13.4	100.0	84.2	3.4	12.3	100.0
100~120% 미만	86.3	2.3	11.4	100.0	86.2	2.5	11.2	100.0
120~140% 미만	84.7	2.9	12.4	100.0	81.2	3.7	15.1	100.0
140~160% 미만	85.2	2.0	12.9	100.0	84.8	2.0	13.2	100.0
160% 이상	82.4	2.1	15.5	100.0	81.6	3.6	14.8	100.0

주: 1) 가구소득은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가중치 적용한 백분율임.

3) 반올림으로 소수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두 번째 세부 영역은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이다. 이 세부 영역의 첫 설문인 7번 문항에서는 임신 횟수를 묻고 있다. 그리고 바로 각 임신 경험에 대한 여섯 가지 부가 문항을 표로 제시하여 면접원을 통해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표에 포함된 부가 문항이 축약되면서, 원래 설문의 의도가 잘못 소통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 임신 시기, 원했던 임신 여부, 시기의 적절성

먼저 7-1번 문항에서는 “임신 시기”에 대해 묻고 있다. 하지만 임신 시기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임신 시기를 응답자가 임신을 인지하거나 진단받은 시기와 혼동할 수 있는 만큼 지시문 등을 통해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7-2번 문항 “원했던 임신 여부”는 임신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을 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신과 출산, 자녀에 대한 이중적이고 모호한 감정과 태도는 매우 자주 관찰된다. 당시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도 추후 ‘자기 합리화(self-justification)’를 통해 원했던 임신으로 여기고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측정오차를 제한하고 최소화하려면 설문 문항 또는 지시문을 ‘임신 당시 원했던 임신 여부’로 수정하여 임신 당시 응답자의 솔직한 감정과 견해를 물으려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원했던 임신 여부에 관한 질문은 바로 7-3번 문항의 “임신 시기의 적절성”으로 이어진다. 해당 문항은 ‘임신 시기의 적절성’ 또는 ‘시기의 적절

성'으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쟁점은 임신 시기가 원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빨랐거나 늦었는지를 “년” 단위로 묻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 시기가 원하는 것보다 빨랐거나 늦었거나 상관없이 모두 “년”으로 기록된다. 반면, 이에 대한 응답 빈도는 대개 1년 또는 2년에 집중되고 있어 편차가 크지 않다.

실제 2021년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박종서 외, 2021, pp.148-149)는 임신 시기의 적절성을 계획한 시기에 비해 실제 임신이 빨랐는지 또는 늦었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과거 임신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은 대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한 무지 또는 피임 실패 등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 또는 계획보다 빠른 임신(mistimed pregnancy)을 경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혼인 연령의 상승과 초혼의 고령화로 난임과 불임이 증가하면서 기대보다 늦어지는 임신 역시 중요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월’ 단위로 측정하는 선행연구(ex., Pulley et al., 2002)와 달리 그 기간을 ‘년’ 단위로 묻고 있어 깊이 있는 분석이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가 늦은 경우 약 60~70%의 여성이 1년 또는 2년 늦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가 빠른 경우, 임신 순서와 상관없이 90% 이상의 여성이 1년 또는 2년 빨랐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X년 XX월’ 또는 ‘XX월’로 수정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임신 시기가 빠르거나 늦은 정도를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시기의 분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치 않은 임신 여부와 그 시기의 적절성은 모두 ‘효과적인’ 피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해당 문항을 추가하였음에도 피임 방법에 대한 문항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 또는

부적절한 시기의 임신이 피임 실패 또는 비효과적인 피임의 사용 등 피임 실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은 임신 여부와 시기의 적절성은 태아의 건강과 산전·산후 관리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 종결 시기를 제외한 해당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소한 신생아의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임신 방법

각 임신 경험에 관해 임신하게 된 방법을 묻는 문항(7-4번)을 통해 “자연임신”과 “난임시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난임시술을 통한 출산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응답한 임신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 중 첫 번째 임신의 3.5%가 난임시술에 의한 것이었다(박종서 외, 2021, p.144). 전체 임신 중 난임시술에 의한 임신의 비중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과 2018년의 1.5%와 2.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이소영 외, 2018).

난임시술은 인공수정(Intrauterine Insemination: IUI),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IVF-ET), 기타(배란유도 등)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난임시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가용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임신 방법을 단순히 자연임신과 난임시술로 구분하는 것은 난임 관련 새로운 행태 변화를 파악할 기회를 낭비하는 셈이다. 조사상 19~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모든 임신 경험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임신 방법을 묻는 해당 문항의 보기를 ‘① 자연임신’, ‘② 인공수정’, ‘③ 체외수정’, ‘④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제외한 기타 난임시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임신 종결 형태와 출산 경험

임신 경험에 관한 설문 표의 7-5번 문항은 임신 종결 형태에 관한 것이다. 임신 종결 형태는 정상분만,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지 등 모성과 출생아의 건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가능한 보기에는 “① 현재 임신 중”, “② 출생(남 ___명, 여 ___명)”, “③ 사산”, “④ 출생, 사산 동시 발생(출생: 남 ___명, 여 ___명)”, “⑤ 자연유산”, “⑥ 인공임신중지(낙태)” 총 여섯 가지가 제시된다. 하지만 현재의 문항과 보기는 임신 종결뿐만 아니라 다태임신 여부, 출생아의 수와 성별을 포괄하여 묻는 구성을 띠고 있다. 하나가 아닌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어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응답자뿐 아니라 조사원 역시 해당 문항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세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임신 상태와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태임신 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산과 난임시술의 증가로 다태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다태아는 미숙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모성 건강의 위험 요인을 높이기도 한다. 임신 횟수별 문항 구조에서 다태아 출산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생아 수 또는 출생과 사산의 동시 발생 등을 포함하는 보기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신 종결 문항 전에 다태아 여부 문항을 제시하면 이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단태아, 쌍태아 또는 삼태아 이상 임신 여부와 일란성 또는 이란성 다태아 여부를 조합하여 보기를 구성면 된다. 일례로 다태아 여부에 관한 문항에 ‘① 단태아’, ‘② 일란성 다태아(___아)’, ‘③ 이란성 다태아(___아)’처럼 보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설문지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 관한 표

II.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응답자: 19~49세 여성

7. 귀하는 지금까지 총 몇 번 임신하셨습니까? 현재 임신 중, 과거 유산과 사산을 포함합니다.
 총 _____ 번 임신 임신인 경우 ⇒ 문항 10 번

※ 아래의 표에 귀하의 임신 경험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순서	7-1	7-2	7-3	7-4	7-5	7-6
	임신 시기	경험한 임신 여부	임신의 시기와 직결성	임신 방법	임신 종결 형태	임신 종결 시기
		① 있었다 ⇒ 문항 7-3 ② 없었다 ⇒ 문항 7-4 ③ 시도했으나 ⇒ 문항 7-4	① 있었다 (첫째나 둘째) 둘째는 몇도...년 ② 직결했다 ③ 있었다 (첫째나 둘째) 둘째는 몇도...년 ④ 도파했다	① 자연임신 ② 난임수술	① 현재 임신 중 ⇒ 문항 10 ② 출생 (보...년, 여...명) ③ 사산 ④ 출생, 사산 동시 발생 (출생 보...년, 여...명) ⑤ 자연유산 ⑥ 인공임신중절(낙태)	① 임신중절의 시기 (시각: ...년...월...일) ※ 7-5에서 ② - ⑥의 경우 중 답합니다.
첫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두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세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네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다섯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여섯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일곱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여덟 번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일

자료: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416.

둘째, 임신 종결 형태의 보기를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조사에서는 현재 임신 중,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발생,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낙태) 등 여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임신 종결에 관한 문항이 모성 건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시된 보기를 1~2개 정도 추가 또는 확장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2017-2019 NSFG 설문지의 경우 같은 문항에 관해 자연유산(miscarriage), 사산(stillbirth), 인공임신중절(abortion), 자궁 외 임신 또는 난관임신(ectopic or tubal pregnancy), 제왕절개(live birth by Cesarean section), 자연분만(live birth by vaginal deliv-

ery) 등의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⁵⁾ 가족 및 출산 조사의 해당 문항과 보기의 숫자는 같지만, NSFG의 해당 문항은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다태임신과 출산 여부는 별도의 문항으로 확인한다.

두 조사 문항의 차이는 ‘제왕절개’와 ‘자궁 외 임신 또는 난관임신’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전자를 ‘자연분만’과 함께 ‘출생’으로, 후자를 ‘자연유산’로 간주하고 있다. 자궁 외 임신과 난관임신은 여성의 재생산건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제왕절개는 다태임신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산후 관리 방법과 기간이 달라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같은 이유로 가족 및 출산 조사도 제왕절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영역 3. 임신·출산 건강’이 아닌 ‘영역 4. 산전·산후 관리’에서 최근 3년 이내 출산한 경우로 제한하여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를 확인하고 있다.

단순히 임신 종결 문항에 대한 보기를 추가하고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임신에 관해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영역의 제왕절개 문항을 아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항의 보기에서 “출생”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로 구분하고, “자연유산”을 ‘자연유산’과 ‘자궁 외 임신 또는 난관임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구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임신 종결 문항에서 출생아의 수와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임신 종결 문항의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심지어 그 수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출생아의 수와 성별에 관한 정보이다. 사실 해당 정보는 실제 조사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자료 역시 별도의 레코드로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다. 단지 응답자가 확인하지 않은 설문지 상에 존재하는 임신 관련 표가 단순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출생아의 수와 성별을 별도의 문항으로

5) 2017-2019 NSFG 설문지는 미국 질병관리청(CD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CDC, 2023).

확인하는 것이 설문 문항의 추가로 인한 조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임신의 결과로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남 __명, 여 __명’의 형태로 보기를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신이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로 종료되었을 때 출생아의 체중에 관한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조사의 목적과 설문 시간을 고려하면 임신과 출산 관련 상세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경험에 관한 표를 보면 임신 시기와 방법, 종결 형태, 임신 종결 시기, 출생아의 수와 성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신생아의 건강은 대개 임신주수를 통한 미숙아, 출생 당시 몸무게를 활용한 저체중아 여부와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신 시기와 종결 시기를 통해 임신주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출생아의 몸무게에 관한 정보는 없다. 임신과 출산의 결과는 물론 신생아 건강을 파악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의 몸무게에 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른 문항과 비교하면 현 설문 구조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했던 임신 여부와 임신 시기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들이 있다. 해당 문항들은 임신과 출산이 계획된 것인지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이나 적절치 않은 시기의 임신이 산전·산후 관리와 모성 및 출생아의 건강에 차이를 초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했던 임신 여부와 시기의 적절성에 관해 묻고 있으면서, 저체중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 문항 구성은 모순된다. 임신 시기의 적절성 여부보다 출생아의 몸무게에 관한 정보가 더 중요하고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종결 형태에 관해 이상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응답자와 조사원 모두 설문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산전·산후 관리 영역의 제왕절개 관련 문항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임신과 체외수정 등 이후에 난임시술로 인한 다태임신과 출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할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라. 출산 자녀 수

문항 7번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신 횟수와 출생 자녀 수는 CAPI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을 통해 사망한 자녀와 그 성별을 확인하게 된다. 여성 응답자마다 출산 자녀 수와 사망 자녀 수를 같이 확인하는 것은 생존 자녀 수를 통해 가족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자녀와 사망 자녀 등 가족 크기에 관한 정보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같은 이유로 입양 자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난임과 불임을 겪은 커플의 경우 입양에 관한 생각 또는 실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난임과 관계없이, 입양은 그 자체로 인해 자녀계획과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가족과 출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조사이지만, 입양에 관한 생각이나 입양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입양에 관한 태도와 행위를 파악하는 문항을 고려하거나, 최소한 입양한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3. 난임(불임)

가. 난임 관련 문항과 응답 대상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세 번째 세부 영역은 난임(불임)이다. 해당 세부

영역은 난임에 해당하는지,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 영역의 응답 대상으로 성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난임 관련 문항을 현 배우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자 한다.

우선 난임에 관한 이 세부 영역은 특이하게도 법률혼·사실혼인 여성으로 응답자를 제한하고 있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난임에 관한 질문만 여성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난임에 관한 문항을 남성으로 확대해야 한다.

부가 문항을 포함한 5개 설문 모두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난임과 시술에 관한 내용이다. 성별에 대한 구분이 요구되는 문항은 시술 결과에 관한 11-2번 문항뿐이다. 그마저도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응답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응답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더 많은 사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성별에 따른 경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 대상에 관해 법률혼·사실혼 내 응답자로 제한하는 부분 역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설문지 10번 문항에서는 “귀하는 현재의 배우자와 임신을 하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구로 난임 여부를 묻고 있다. 우선 질문에서 “배우자”를 ‘배우자 또는 애인’ 등으로 수정하여 부부관계로 제한하는 문구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 영역 전체의 응답 대상을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설문 문항 자체로 응답 대상이 제한된다. ‘영역 2. 동거와 결혼’에서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교차 확인 또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의 설정을 통해 배우자 또는 애인이 있는 유효 응답

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기의 “③ 비해당”을 시스템 결측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난임 검사

난임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두 번째 문항 10-1번은 첫 번째 문항(10번)에 관한 부가 의문문 문항이 아닌 독립된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부가 의문문으로 배우자와 최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난임 검사를 묻고 있다. 난임 검사에 관한 문항을 현 배우자와의 난임 경험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난임 검사는 혼인상태, 현 배우자, 1년 이상의 관계, 난임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해당 문항을 현 배우자 또는 커플관계 내 난임 검사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고령에 만난 커플의 경우 관계가 1년이 되기 전 난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난임시술 경험

다음은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11번, 11-1번, 11-2번)이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구분하지 않고 현 배우자와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난임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힘들었던 점과 시술 결과에 관해 추가 질문하는 형태이다.

우선 난임시술의 생애 경험을 묻는 것인지 또는 현 배우자와의 관계 내 시술 경험을 묻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난임(불임) 관련 다른 문항들을 고려하면, 배우자 관계 내 시술 경험을 묻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법률이나 의료계의 윤리 지침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이 아닌

경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드물게 해외에서 시술을 받는 등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혼인이나 동거, 배우자나 애인 유무와 상관없는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난임시술이라는 새로운 행위(innovative behaviors)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 '배우자 관계'라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응답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난임시술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배란유도 등 가능한 몇 가지 보기를 함께 제시하거나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기존의 추가 문항들을 활용하면, 난임시술의 유형과 그에 따른 불편함과 시술 결과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난임시술에 관한 문항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내 경험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별도의 시간적 제약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생애 기간 경험을 묻고, 산전·산후 관리는 3년 이내 경험을 묻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혼 또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3,429명 중 236명만 난임시술을 경험하였다(박중서 외, 2021, pp.195-199). 난임시술 자체가 많지 않아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로 제한된 것이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난임시술이 확대되고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간적 제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난임시술과 임신에 소요되는 시간, 조사 주기 등을 고려하면 '과거 3년 이내 난임시술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로 그 경험을 제한할 필요도 없어진다. 과거 3년 이내 등으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난임시술의 빈도와 비율을 기간 지표(period measure)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4.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

가. 과거의 자녀계획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네 번째, 마지막은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에 관한 문항들이다. 자녀계획에 관한 문항(12번, 13번)은 사실혼을 포함하여 결혼생활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응답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 자녀계획은 연령, 성별,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족의 크기 또는 자녀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녀계획이 반드시 결혼생활에 제한되거나, 배우자나 애인과의 상의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혼 당시 자녀계획을 묻고 있어, 암묵적으로 혼외출산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결혼생활 내 자녀계획을 묻는 이 문항(12번)은 과거 계획했던 가족 크기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에서 세부 영역의 응답자가 모든 개인으로 설정된 것과 다르게, 해당 문항은 당연히 법률혼이나 사실혼 상태에 있는 개인으로 제한된다. 사실 해당 문항에서는 “귀하는 결혼 당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었습니까? 초혼 또는 첫 번째 사실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묻고 있다. 현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녀계획을 묻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만약 초혼인 부부의 자녀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라면, 차라리 ‘영역 2. 동거와 결혼’으로 옮겨 법률혼 또는 사실혼 상태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배우자 관계에서 출산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각자의 의견 반영 정도를 반영하는 문항(13번)은 자녀 출산 여부, 자녀 출산 시기, 자녀 수 등 세 가지 하위 문항으로 구성된다. 관계 내 출산 관련 문제를 상의하는지를 확

인하지 않고, 상대적인 의견 반영 쪽으로 바로 질문하고 있다. 자녀 출산 여부, 시기, 자녀 수에 대한 의견 교환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문항 자체가 결혼 기간 전체를 묻는 것인지 또는 현재 상황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녀 출산에 관해 본인과 배우자의 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문항이 응답자 간 변이가 작고, 세 가지 부가 문항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세 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80%가 넘는 응답자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를 선택하였다. 자녀 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 수 세 가지 문항을 2개씩 교차 분석을 시도했을 때, 여전히 80% 이상의 응답자가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나와 상대방이 함께”를 선택하였다. 자녀 출산과 시기, 자녀 수에 관한 의견 반영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자녀 출산에 관한 의견 반영 정도’를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자녀계획에 관한 문항은 횡단조사에서 결혼 당시 계획과 실제 출산 결과를 비교하는 종단 분석을 지향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그 대상과 분석 대상을 남녀 모두 현재가 초혼이나 첫 사실혼인 커플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계획에 관한 문항의 효용 역시 반감된다. 출산 관련 의견 반영 정도를 하나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한다면 커플 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면서도 문항 수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유배우 남녀(8,096명) 특성별 결혼 당시 자녀계획 및 계획 자녀 수 분포

(단위: %)

범주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성별							
남자	1.0	16.6	53.5	9.7	1.2	18.0	100.0
여자	0.8	17.4	49.6	8.7	2.4	21.1	100.0
연령_범주							
19~24세	1.6	2.6	44.6	8.4	1.0	41.9	100.0
25~29세	1.6	17.5	43.9	9.3	2.0	25.8	100.0
30~34세	1.3	22.4	47.2	9.3	1.7	18.0	100.0
35~39세	0.9	16.7	53.0	10.1	1.7	17.6	100.0
40~44세	0.9	14.8	53.5	9.0	1.8	19.9	100.0
45~49세	0.4	17.3	51.6	8.3	2.1	20.4	1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0.7	15.8	49.8	9.4	2.2	22.1	100.0
대졸	1.1	18.8	52.8	8.6	1.3	17.4	100.0
대학원졸	0.9	16.0	52.6	10.1	2.8	17.6	100.0
가구소득_범주							
60% 미만	0.7	16.9	39.0	9.3	2.7	31.3	100.0
60~80% 미만	0.6	15.6	54.9	8.4	1.9	18.6	100.0
80~100% 미만	0.8	17.7	51.5	9.4	1.3	19.3	100.0
100~120% 미만	1.1	17.9	52.1	9.2	1.9	17.7	100.0
120~140% 미만	1.2	17.4	52.5	8.7	2.1	18.1	100.0
140~160% 미만	0.4	17.9	51.7	10.3	1.9	17.8	100.0
160% 이상	1.1	16.4	53.8	8.9	1.7	18.1	100.0

주: 1) 가구소득은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가중치 적용한 백분율임.

3) 반올림으로 소수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4〉 자녀 출산 관련 의견 반영 정도: 자녀 출산 여부 VS. 출산 시기와 자녀 수

(단위: %)

구분	자녀 출산 여부					계
	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이	주로 상대방이	
자녀 출산 시기						
주로 내가	3.0	0.1	1.1	0.0	0.0	4.2
대체로 내가	0.3	3.7	2.4	0.1	0.0	6.5
나와 상대방이 함께	0.6	0.9	80.9	0.7	0.2	83.4
대체로 상대방이	0.0	0.1	1.8	2.5	0.1	4.5
주로 상대방이	0.0	0.0	0.5	0.1	0.8	1.5
합계	3.9	4.8	86.7	3.4	1.3	100.0
자녀 수						
주로 내가	2.7	0.2	1.1	0.0	0.0	4.0
대체로 내가	0.3	3.4	2.4	0.1	0.0	6.1
나와 상대방이 함께	0.9	1.1	81.1	0.9	0.3	84.3
대체로 상대방이	0.0	0.0	1.8	2.3	0.2	4.3
주로 상대방이	0.0	0.0	0.4	0.1	0.8	1.3
합계	3.9	4.8	86.7	3.4	1.3	100.0

주: 1) 유배우 남녀 8,096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출산 여부' 의견 반영 정도에 관한 응답을 '자녀 출산 시기'와 '자녀 수' 의견 반영 정도와 각각 교차함.

2) 가중치 적용한 백분율임.

3) 반올림으로 소수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현재의 자녀계획

자녀계획에 관한 문항(14번, 14-1번)은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 출산 의도를 묻고 있다. 세부 영역이 '미래의 자녀계획'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 자녀계획 자체가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다. 조사 당시의 자녀계획을 묻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자녀계획이다.

개인의 출산 의도와 계획은 그 시기를 구체화할 때 예측력이 높아진다 (Toulemon & Testa, 2005; Spéder & Kapitány, 2009). 추가 문항 (14-1번)의 부가 의문문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출산계획이 있으십니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 간격이 3년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산전·산후 관리 영역에서 과거 3년 이내의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된 횡단조사의 이점을 살려, 조사 시점마다 연령별·코호트별 출산 의도와 그 실현 정도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문항에 가능한 보기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개인의 출산 의도는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또는 유사한 선택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Morgan, 1982).

이 영역의 마지막 문항은 향후 임신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보관 하였거나,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출산 행위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대응하여 빠르게 변화해 왔다. 현대적인 피임법, 초음파 기술, 난임시술 등 혁신적인 사고와 행위는 인구집단과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두고 빠르게 확산되곤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경험을 묻는 해당 문항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과거 경험과 현재 의향 등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의 문항으로 묻고 있다. 다행히 아직 냉동보관 경험이 있는 개인은 전체 응답자의 1%가 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 2023). 냉동보관 경험자에게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냉동보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만 몇 해 전에 했는지(또는 연령이나 연도) 추가로 물어볼 수 있다. 또한 냉동보관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몇 년 이내 시술

의향이 있는지 추가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5-5〉 전체 표본(50세 미만)의 특성별 기대 자녀 수 분포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성별						
남자	53.9	20.9	22.8	2.1	0.3	100.0
여자	18.9	26.0	45.7	8.3	1.2	100.0
연령						
19~24세	36.2	21.3	38.5	3.6	0.4	100.0
25~29세	29.3	27.3	39.1	3.8	0.5	100.0
30~34세	26.9	32.3	35.7	4.3	0.8	100.0
35~39세	36.0	26.9	31.1	5.4	0.6	100.0
40~44세	44.8	18.6	29.5	6.0	1.1	100.0
45~49세	43.7	15.9	31.7	7.7	1.0	100.0
혼인상태						
미혼	38.9	22.9	34.8	3.1	0.4	100.0
기혼	34.8	23.8	33.7	6.7	1.0	100.0
가구소득_범주						
60% 미만	38.3	23.6	32.5	4.6	1.0	100.0
60~80% 미만	39.4	23.0	32.1	5.0	0.5	100.0
80~100% 미만	37.7	23.1	33.4	5.2	0.6	100.0
100~120% 미만	33.6	24.5	35.6	5.5	0.8	100.0
120~140% 미만	34.4	22.2	36.6	6.0	0.8	100.0
140~160% 미만	34.3	25.8	34.4	4.9	0.5	100.0
160% 이상	35.3	22.6	36.2	5.2	0.8	100.0

주: 1) 가구소득은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가중치 적용한 백분율임.

3) 반올림으로 소수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6〉 전체 표본(50세 미만) 중 남자 또는 여자 냉동보관 의향

(단위: %)

구분	이미 하였다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비해당 (폐경 등)	전체
성별					
남자	0.7	9.1	90.2	0.0	100.0
여자	0.8	7.2	91.0	1.1	100.0
연령					
19~24세	0.0	12.9	87.1	0.0	100.0
25~29세	0.1	13.4	86.5	0.0	100.0
30~34세	1.1	11.0	87.9	0.0	100.0
35~39세	1.6	6.8	91.6	0.1	100.0
40~44세	1.4	3.3	94.9	0.4	100.0
45~49세	0.3	2.3	94.7	2.8	100.0
혼인상태					
미혼	0.1	14.4	85.5	0.1	100.0
기혼	1.2	3.5	94.4	0.9	1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0.5	8.5	90.3	0.7	100.0
대졸	1.0	7.7	90.9	0.3	100.0
대학원졸	1.1	7.2	91.4	0.3	100.0
가구소득_범주					
60% 미만	0.6	10.9	88.2	0.3	100.0
60~80% 미만	0.4	7.9	91.0	0.7	100.0
80~100% 미만	0.5	6.4	92.7	0.5	100.0
100~120% 미만	1.2	6.1	92.0	0.8	100.0
120~140% 미만	0.9	7.7	90.6	0.8	100.0
140~160% 미만	1.1	8.1	90.1	0.7	100.0
160% 이상	0.9	8.9	89.8	0.4	100.0

주: 1) 가구소득은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가중치 적용한 백분율임.

3) 반올림으로 소수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설문 문항과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신·출산 건강 영

역의 설문 문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연구는 물론 문항 간 연계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실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각 문항이나 응답의 분포, 효과성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임신·출산 건강 영역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과 구체적인 제언을 요약한 내용은 ‘부록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임신·출산 건강 영역은 생식건강과 임신력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문항과 난임과 자녀계획에 관한 신규 또는 수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해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물론 난임과 난자 냉동보관 등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조사 대상과 문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관찰되었다. 예컨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난임에 관한 세부 영역의 문항을 유배우 여성으로 제한한 부분이다. 또한 임신력 문항에 원치 않은 임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지만, 출생아의 체중은 여전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 설문지의 개편이나 일부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문항이지만 다른 영역과 일부 중복되거나, 오히려 다른 영역으로 재편하는 것을 고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난임에 관한 세부 영역은 같은 영역 내 임신력 관련 문항의 수정을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생식건강과 난임시술 자체가 산전·산후 관리 영역의 산전 관리와 분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실제로 조사보고서 역시 생식건강과 난임을 산전·산후 관리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박종서 외, 2021, pp.175-227).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내 자녀계획 역시 동거와 결혼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주요 내용에는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생식건강과 피임에 관한 영역은 과거 자

료와 연계한 시계열 분석이 효과적이다. 또한 응답 대상을 19~49세 성인 남녀로 확대한 탓에 미혼남녀의 피임 행태를 분석할 기회가 열렸다. 남녀 평균 혼인 연령이 꾸준히 상승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 시대 우리 사회 청년들의 생식건강을 파악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과 출산 경험의 종단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출산 행위의 실제 모습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자녀계획과 난임시술 등의 문항과 연계한다면, 실제 출산 의도와 결과, 난임시술의 효과 등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선행연구와 설문 문항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 하위 영역, 문항과 보기, 추가 문항 검토 등 지적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조사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응답자의 이해는 높이고, 조사원의 오류와 측정오차는 줄여 조사의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부모와의 관계와 성장기 주거이동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문헌 검토

제3절 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제 6 장

부모와의 관계와 성장기 주거이동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부모와의 관계와 성장기 주거이동’ 영역에 대한 조사항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표적인 반복 횡단면 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data)이며 한국 출산율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할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시기별로 조사의 강조점이 변화해 왔지만, 2021년 조사체계 개편 이전에는 유배우 출산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오다가 2021년 조사 명칭을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면서 조사체계 및 목적을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에 맞추는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부모와 관련한 정보 및 성장기 주거 정보를 상세히 취합하는 변화도 있었다. 문항에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부모의 경제적 상황,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빈도,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항목은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성인자녀와 고령부모의 관계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구 변화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논의는 대부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예: 공적 연금, 노인 빈곤,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고령인구의 절대적 규모 및 상대적 비중의 증가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생활의 모습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이해는 학술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기 생애과정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Kye and Choi, 2021), 이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 및 자식 세대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생존해 있는 기간 또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가족들 간의 수직적 관계(vertical relationship)가 확대되고 있다. 기대수명의 향상이라는 인구학적인 변화에 따라 가족생활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Esteve and Reher, 2021)과 다르게 성인기 생활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를 조사항목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으며, 이 조사항목들의 효과적인 활용은 추후 <가족과 출산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와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의 교환은 가족형성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부모 및 성인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권오재, 2017)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조부모 효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 또한 축적되고 있다(오지혜, 2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매개된다고 할 수 있는데,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포함된 조사항목들은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 자체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핵심적인 사회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가족형성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이 항목의 활용성을 살펴보고 조사항목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문헌 검토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연구 중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부모와 자녀 세대의 관계 유형, 부모의 특성에 따른 자녀들의 가족형성 패턴의 차이에 관한 주제를 간략히 검토한다. 이는 이 주제들이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항목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1. 세대 간 동거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부모와 관련된 조사항목(부모님의 생존 여부,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비동거 부모님의 경제적 상태, 비동거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 경제적·비경제적 도움의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빈도와 경제적·비경제적 도움의 교환 등은 <노인실태조사>와 같은 고령층을 조사하는 자료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항목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모의 응답을 기준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가족과 출산 조사는 자녀의 응답을 기준으로 이들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세대 간 관계는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봉오와 최율의 연구(Kye and Choi, 2021)는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와의 동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와의 동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출산율 하락의 결과로 해석했다.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녀 수가 줄어들고 이는 자녀와의 동거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자녀 세대 기준에서 보면 형제자매 수의 감소에 따라 오히려 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세대의 관점에서 자녀 세대와의 관계는 어떤 자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녀 세대의 관점에서 부모 세대와의 관계를 파악할 때 이러한 문제는 없다. 단,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1% 마이크로 자료를 활용해서 세대 간 동거 패턴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표 6-1>에 요약되어 있다. 20세 이후에 부모와 함께 사는 생애과정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 1980년에 24.8%에서 2015년에 22.9%로 다소 감소했지만,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기간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27.0%에서 18.0%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성도 같은 변화가 관찰된다. 부모와의 동거와 자녀와의 동거의 이러한 차이는 기대수명의 상승, 출산율의 하락, 혼인의 지연 등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대수명의 상승에 따른 부모의 생존율 향상은 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을 높이고, 결혼의 지연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는 기간을 늘리게 되며,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형제자매 수의 감소 역시 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자녀 수의 감소는 자녀와의 동거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표 6-1〉 성인기 부모 및 자신과 동거하는 기간의 비중

(단위: %)

연도	e20	남성			
		부모와 동거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	성인자녀와 동거	60세 이후 성인자녀와 동거
1980	45.6	24.8	13.2	27.0	13.4
1985	47.2	23.7	12.9	27.8	14.2
1990	49.3	23.1	12.2	27.6	14.4
1995	51.1	21.7	11.2	26.0	13.1
2000	53.2	22.4	11.1	25.4	12.8
2005	55.5	22.9	11.0	22.5	11.4
2010	57.4	23.7	11.1	20.0	10.6
2015	59.4	22.9	10.8	18.0	9.8
연도	e20	여성			
		부모와 동거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	성인자녀와 동거	60세 이후 성인자녀와 동거
1980	54.3	19.3	11.6	48.9	30.7
1985	55.8	18.2	11.0	47.9	30.3
1990	57.5	17.8	10.3	46.7	29.2
1995	59.1	17.2	9.0	43.2	27.0
2000	60.5	17.5	8.5	39.3	24.8
2005	62.2	18.0	7.9	34.1	21.4
2010	64.1	19.2	8.2	30.7	19.7
2015	65.5	18.9	7.7	27.1	16.8

주: 성인기는 20세 이상으로 정의됨.

자료: Kye and Choi. (2021). Are parents and children coresiding less than before? An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in South Korea. 1980-2015. pp.11-12.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서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가능성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Esteve and Reher, 2021). 즉, 20-30대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그 증가가 가장 빠르고 유럽과 남미의 증가율도 상당히 높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인구학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인구 변화로 인해서 가족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 동거 패턴의 변화는 성인자녀 및 고령부모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eo and Kim, 2022). 특히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초고령 노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성인자녀와 고령부모의 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2.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형화 및 변화

성인자녀와 그들의 (고령)부모의 관계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자녀 노인을 표본으로 하는 분석 자료(예: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해서 노인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동거 여부, 가족부양관, 지원 교환, 연락 빈도 등을 분류를 위한 기준 변화로 활용하고 있다.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199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세대 간 교환관계를 전통형, 호혜형, 고립형으로 구분했고, 유희정(2011)의 연구에서는 2003년과 2007년 <한림고령화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세대 간 교환관계를 밀착형, 부모제공형, 부모수혜형, 별거친밀형, 소원형 등으로 구분했다.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에는 소원형의 비중이 늘어나고 부모제공형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세진·이선희(2017)의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수발도구의존형, 정서경제중심교환형, 상호교환형, 경제교환형, 자녀의존형 등으로 세대 간

교환관계 유형을 도출했으며, 노인 우울의 세대 간 관계 유형별 차이를 분석했다. 유재언·최희정(2019)의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17년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세대 간 관계를 안 주고 안 받는 관계, 정서만 주고받는 관계, 봉양관계, 조금만 주고받는 관계, 많이 주고받는 관계 등으로 유형화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와의 관계 유형을 도출하고 있는데, 생애과정에 따른 차이 또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유희정(2011)의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분석해서 세대 간 관계 유형의 4년에 걸친 변화를 추적했고, 유재언·최희정(2019)의 연구에서는 관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연령을 고려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세대 간 관계 유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서로 많이 주고받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지면 정서만 주고받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2017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봉양관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자녀 세대의 특성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 대상 표본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연령과 특성도 세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형성의 초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세대 효과: 출산

최근 들어 인구학 및 사회계층 연구에서는 다세대 효과(multi-generational effects)에 주목하고 있다(Mare, 2011; Mare, 2014). 이는 결혼, 출산, 교육수준, 직업 지위 등 인구학과 사회계층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들의 결정 과정이 부모-자식 간의 2세대 관계뿐만 아니라 다세대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수직적 가족관계의 확장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권오재(2017)의 연구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결혼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들어 조부모의 특성에 따른 출산 행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부모의 자산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째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지혜, 2020). 또한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관계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친정 어머니와의 동거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식·김지연, 2012). 시부모와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기혼여성의 출산 의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나, 최영, 2015).

제3절 자료 분석

제3절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의 부모와의 관계 항목과 성장기 주거이동 문항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부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 비동거 부모

와의 연락 빈도, 경제적·비경제적 도움의 교환 항목과 성장기 주거이동 항목을 분석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및 직업 지위)와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연령, 자녀 수,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분위, 재산 분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및 주거이동 패턴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및 주거이동에 따른 자녀 출산 의도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부모 및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가 출산 의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세대 간 관계의 특징 및 재생산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모든 분석에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자료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유배우 여성과 비동거 부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묻는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한 분석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고 부모와의 관계는 비동거 부모가 있는 유배우 여성에게만 질문했기 때문에 비동거 부모를 1명 이상 가지고 있는 유배우 여성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한다.

둘째,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4년제 대졸 미만, 4년제 대졸 이상으로 구분한다.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더 상세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준을 활용했다.

셋째, 아버지의 직업 지위와 어머니의 직업 지위는 이들이 현재 혹은 예전에 가졌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류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는데,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중 전업주부의 비중이

높고 전문/관리직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범주로 포함시키고 사무직을 전문/관리직과 같은 범주로 구분했다.

넷째, 부모의 경제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① 현재 생계가 어렵고 미래 생활자원도 부족, ② 현재 생계는 감당하지만, 미래 생활자원은 부족, ③ 현재 생계와 미래 생활자원은 충분하지만 자녀를 지원할 여유는 없음, ④ 현재 생계와 미래 생활자원이 충분하고 자녀를 지원할 여유도 있음, ⑤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비중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례들은 제외했다.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변수 중 하나 이상의 변수가 결측인 사례들은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분석 대상은 19~49세인 유배우 여성 4,929명이다.

다섯째, 출산 변수로는 출산 의향을 활용했는데, 출생아 수 혹은 최근의 출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와 재생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현재의 특성에 따른 과거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산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섯째, 유배우자 여성의 부모와의 관계는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배우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 및 유배우 남성을 표본에 포함한 것이다. 응답률은 유배우 남성이 유배우 여성보다 낮기는 하지만, 유배우 남성 표본은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조사되었다. 결측이 없는 4,929명 유배우 여성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247명은 부인과 남편이 함께 조사에 응답했다. 남편에게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같은 질문을 했으므로 부부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유배우자들의 부모와의 관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부모의 생존과 경제적 상황

〈표 6-2〉는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생존과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보여준다. 19~49세 유배우 여성의 어머니의 생존율은 96.5%로 매우 높으며, 따라서 부모 및 유배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생존율 차이는 거의 없다. 아버지의 생존율은 부모, 본인, 배우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생존율은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버지는 66.1%만 현재 생존해 있지만,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의 생존율은 89.6%로 그 차이가 23.5%이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도 관찰할 수 있는데 농민은 62.6%가, 육체노동자는 76.6%가 생존해 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88.5%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직업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생존율 차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이는 부모의 생존율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부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생존율 차이 또한 관찰된다. 우선 유배우 여성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배우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생존율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유배우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패턴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생존율의 관계와 비슷하다. 단, 본인 및 배우자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집단의 아버지 생존율 추정치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 및 재산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6-2〉 전체 비동거 부모의 생존 및 경제적 상황

구분	아버지 생존	어머니 생존	현재부족 미래부족	현재감당 미래부족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불가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가능	사례 수
부모 특성							
교육수준(부)							
고졸 미만	0.661	0.958	0.081	0.311	0.426	0.182	2,347
4년제 대졸 미만	0.839	0.976	0.023	0.208	0.504	0.265	1,982
4년제 대졸 이상	0.896	0.954	0.013	0.117	0.408	0.461	600
교육수준(모)							
고졸 미만	0.673	0.957	0.074	0.300	0.440	0.186	2,783
4년제 대졸 미만	0.870	0.978	0.017	0.192	0.484	0.306	1,880
4년제 대졸 이상	0.904	0.948	0.023	0.070	0.405	0.503	266
주된 직업(부)							
전문/관리직	0.885	0.962	0.016	0.119	0.388	0.477	502
사무직	0.807	0.976	0.020	0.165	0.504	0.311	680
서비스/판매	0.832	0.952	0.029	0.232	0.446	0.293	870
농민	0.626	0.966	0.077	0.302	0.456	0.165	1,061
육체노동자	0.766	0.965	0.063	0.280	0.465	0.193	1,730
기타	0.593	0.985	0.053	0.322	0.371	0.254	86
주된 직업(모)							
전문/관리/사무직	0.869	0.982	0.023	0.159	0.407	0.411	333
서비스/판매	0.786	0.987	0.036	0.232	0.461	0.271	1,235
농민	0.635	0.963	0.075	0.301	0.441	0.184	959
육체노동자	0.692	0.982	0.074	0.313	0.457	0.156	649
전업주부	0.827	0.940	0.036	0.213	0.469	0.282	1,706
기타	0.748	0.927	0.135	0.101	0.434	0.331	47

구분	아버지 생존	어머니 생존	현재부족 미래부족	현재감당 미래부족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불가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가능	사례 수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연령							
19~29	0.892	0.974	0.050	0.228	0.412	0.310	293
30~39	0.860	0.979	0.038	0.212	0.464	0.286	2,065
40~49	0.673	0.952	0.055	0.267	0.455	0.222	2,571
자녀 수							
0	0.866	0.952	0.036	0.207	0.454	0.302	469
1	0.802	0.973	0.045	0.237	0.455	0.262	1,448
2+	0.730	0.963	0.052	0.250	0.455	0.243	3,012
교육수준(본인)							
고졸 미만	0.667	0.948	0.388	0.306	0.236	0.070	72
4년제 대졸 미만	0.705	0.962	0.069	0.291	0.461	0.179	2,408
4년제 대졸 이상	0.828	0.968	0.018	0.193	0.456	0.332	2,449
교육수준(배우자)							
고졸 미만	0.476	0.955	0.262	0.381	0.287	0.069	41
4년제 대졸 미만	0.713	0.963	0.078	0.291	0.442	0.188	2,118
4년제 대졸 이상	0.811	0.966	0.023	0.204	0.467	0.307	2,770
가구소득							
하위 33%	0.769	0.965	0.068	0.289	0.440	0.203	1,658
중위 33%	0.753	0.964	0.046	0.230	0.474	0.250	1,619
상위 33%	0.778	0.966	0.031	0.209	0.452	0.308	1,652
재산							
하위 33%	0.761	0.965	0.077	0.292	0.447	0.184	1,564
중위 33%	0.764	0.973	0.036	0.252	0.481	0.230	1,779
상위 33%	0.775	0.957	0.035	0.190	0.438	0.338	1,586
전체	0.767	0.965	0.048	0.242	0.455	0.255	4,929

주: 가중치를 사용한 비율과 관측된 사례 수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6-2〉는 부모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비동거 부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의 분포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현재 생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8%로 그리 높지 않지만, 24.2%는 부모의 미래 생활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5%는 부모가 현재 및 미래의 생활자원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자녀를 지원할 여유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5.5%는 본인의 현재 및 미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지원할 여유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 상황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거나 높은 직업 지위를 가졌던 비동거 부모의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 부모의 경제 상황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46.1%는 부모의 현재 및 미래 생활자원이 충분하고 자식을 지원할 여유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미만일 때에는 이 비중이 18.2%에 불과했다. 직업 지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아버지가 전문/관리직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관찰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사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정 연령대가 지나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므로 관찰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자녀 수가 적은 유배우 여성의 부모가 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도움 교환

〈표 6-3〉은 유배우 여성의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도움 교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유배우 여성이(83.0%) 비동거 부모와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락 빈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동거 부모와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 지위가 높은 경우에도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 본인의 연령 및 자녀 수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자녀 수가 적을수록 비동거 부모와 연락 빈도가 잦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동거 부모와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났다.

〈표 6-3〉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도움 교환

구분	1회 이상 연락(1주일)	부모님께 도움 줌	부모님께 도움받음	사례수
부모 특성				
교육수준(부)				
고졸 미만	0.783	0.351	0.111	2,347
4년제 대졸 미만	0.862	0.277	0.184	1,982
4년제 대졸 이상	0.891	0.326	0.260	600
교육수준(모)				
고졸 미만	0.788	0.352	0.112	2,783
4년제 대졸 미만	0.874	0.283	0.210	1,880
4년제 대졸 이상	0.906	0.246	0.276	266

140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구분	1회 이상 연락(1주일)	부모님께 도움 줌	부모님께 도움받음	사례수
주된 직업(부)				
전문/관리직	0.881	0.314	0.233	502
사무직	0.862	0.289	0.208	680
서비스/판매	0.843	0.322	0.153	870
농민	0.761	0.373	0.083	1,061
육체노동자	0.830	0.291	0.166	1,730
기타	0.883	0.456	0.230	86
주된 직업(모)				
전문/관리/ 사무직	0.904	0.257	0.258	333
서비스/판매	0.862	0.303	0.166	1,235
농민	0.766	0.373	0.074	959
육체노동자	0.806	0.325	0.174	649
전업주부	0.832	0.309	0.179	1,706
기타	0.848	0.371	0.090	47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연령				
19~29	0.904	0.191	0.242	293
30~39	0.871	0.248	0.237	2,065
40~49	0.787	0.392	0.090	2,571
자녀 수				
0	0.883	0.271	0.075	469
1	0.864	0.310	0.224	1,448
2+	0.802	0.330	0.146	3,012
교육수준(본인)				
고졸 미만	0.620	0.120	0.018	72
4년제 대졸 미만	0.805	0.325	0.132	2,408
4년제 대졸 이상	0.859	0.316	0.194	2,449
교육수준(배우자)				
고졸 미만	0.513	0.154	0.009	41
4년제 대졸 미만	0.811	0.316	0.129	2,118
4년제 대졸 이상	0.849	0.321	0.188	2,770
가구소득				
하위 33%	0.829	0.262	0.144	1,658
중위 33%	0.829	0.339	0.150	1,619
상위 33%	0.833	0.348	0.189	1,652
재산				
하위 33%	0.809	0.251	0.142	1,564
중위 33%	0.829	0.325	0.158	1,779
상위 33%	0.849	0.364	0.181	1,586
전체	0.830	0.317	0.162	4,929

주: 가중치를 사용한 비율과 관측된 사례 수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비동거 부모와의 비경제적 도움 교환 패턴을 보면 유배우 여성의 31.7%는 부모님께 비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비율이 도움을 받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할 수 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도움을 주는 비율은 감소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대체로 관찰된다. 단, 부모에 대한 도움 제공 패턴은 비선형적인데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면 4년제 대졸 미만인 경우보다 부모님께 도움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주된 직업이 전문/관리직이면 사무직이나 육체노동자보다 부모님께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동거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연령과 자녀 수에 따른 비경제적 도움 교환의 차이 또한 관찰할 수 있는데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부모님께 도움을 주는 비율은 증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변수들과 부모의 연령 간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모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님께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경제적 도움 교환의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 가구소득 분위, 재산 분위가 높을수록 비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이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부모와의 비경제적 도움 교환 비율의 차이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표 6-3〉에 제시된 결과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

와 자주 연락하며 비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경향이 강화되며, 유배우 여성의 가구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가 높을 때 연락 빈도와 비경제적 도움 교환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유배우 여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패턴은 부모와 유배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도움의 교환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동거 부모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들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의 강화는 직업 찾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Lin and Dumin, 1986; Kim, 2020), 강한 사회관계망이 이득뿐만 아니라 부담도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 또한 존재한다(Kim, 2016). <표 6-3>에 나타난 결과와 연결해서 보면 잦은 연락과 비경제적 도움의 교환이 삶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비동거 부모와 유배우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계층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이질성은 가족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추가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경제적 도움 교환

<표 6-4>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도움 교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유배우 여성의 91.2%가 부모님께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71.8%는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유배우 여성의 비율은 18.7%,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2.5%로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의 교환이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의 교환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너무 낮으므로 집단에 따른 정기적/비정기적 도움 제공과 비정기적 도움받음의 차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표 6-4〉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교환

구분	정기적 도움 줌	비정기적 도움 줌	정기적 도움받음	비정기적 도움받음	사례 수
부모 특성					
교육수준(부)					
고졸 미만	0.203	0.905	0.017	0.629	2,347
4년제 대졸 미만	0.169	0.918	0.029	0.791	1,982
4년제 대졸 이상	0.187	0.918	0.036	0.792	600
교육수준(모)					
고졸 미만	0.207	0.910	0.016	0.647	2,783
4년제 대졸 미만	0.166	0.914	0.038	0.798	1,880
4년제 대졸 이상	0.150	0.919	0.018	0.808	266
주된 직업(부)					
전문/관리직	0.265	0.911	0.054	0.794	502
사무직	0.165	0.940	0.017	0.767	680
서비스/판매	0.199	0.933	0.023	0.752	870
농민	0.190	0.899	0.019	0.614	1,061
육체노동자	0.162	0.897	0.023	0.715	1,730
기타	0.197	0.910	0.018	0.710	86
주된 직업(모)					
전문/관리/ 사무직	0.147	0.882	0.033	0.811	333
서비스/판매	0.186	0.921	0.028	0.770	1,235
농민	0.187	0.902	0.017	0.623	959
육체노동자	0.196	0.911	0.023	0.669	649
전업주부	0.191	0.918	0.024	0.727	1,706
기타	0.190	0.907	0.050	0.707	47

구분	정기적 도움 줌	비정기적 도움 줌	정기적 도움받음	비정기적 도움받음	사례 수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연령					
19~29	0.086	0.848	0.042	0.726	293
30~39	0.135	0.906	0.029	0.783	2,065
40~49	0.243	0.927	0.018	0.666	2,571
자녀 수					
0	0.150	0.867	0.027	0.689	469
1	0.185	0.918	0.032	0.756	1,448
2+	0.194	0.917	0.020	0.704	3,012
교육수준(본인)					
고졸 미만	0.129	0.689	0.000	0.159	72
4년제 대졸 미만	0.167	0.900	0.020	0.674	2,408
4년제 대졸 이상	0.206	0.930	0.030	0.775	2,449
교육수준(배우자)					
고졸 미만	0.132	0.714	0.000	0.312	41
4년제 대졸 미만	0.170	0.902	0.024	0.657	2,118
4년제 대졸 이상	0.199	0.923	0.025	0.768	2,770
가구소득					
하위 33%	0.099	0.872	0.023	0.692	1,658
중위 33%	0.173	0.915	0.028	0.726	1,619
상위 33%	0.280	0.946	0.023	0.736	1,652
재산					
하위 33%	0.120	0.871	0.029	0.667	1,564
중위 33%	0.184	0.921	0.026	0.721	1,779
상위 33%	0.244	0.937	0.020	0.758	1,586
전체	0.187	0.912	0.025	0.718	4,929

주: 가중치를 사용한 비율과 관측된 사례 수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우선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의 제공 비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단,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기적인 도움 제공의 관계는 비단선적이다.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전문/관리직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부모님께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특성에 따른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 비율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제

공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부모의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분위 및 재산 분위가 올라갈수록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 여부가 부모의 필요 및 자녀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높으면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러한 패턴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대졸자이거나 전문/관리직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부모님께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도움 교환에서도 나타났던 패턴인데 아버지가 대졸자이거나 전문/관리직 종사자였던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표 6-2〉 참고),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필요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늘어갈수록 유배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강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배우 여성의 90% 이상이 부모님께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본인과 배우자의 특성에 따른 도움 제공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많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의 도움 제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이 부모의 필요가 커지고 자녀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유배우 여성의 비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연령 및 자녀 수와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30대와 자녀가 1명 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의 생애과정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에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및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다닌 유배우 여성의 77.5%가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만, 고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유배우 여성의 67.4%만이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필요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유배우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 세대의 필요보다 부모 세대의 능력과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표 6-4〉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유배우 여성과 부모 세대 간의 경제적 도움의 교환에 한 가지 일관성 있는 패턴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또한 자식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부모님이 자식 세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전문/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대 간 경제

적 도움의 교환이 기본적으로 지원받는 세대의 경제적 필요보다는 지원하는 세대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추가출산 의향

〈표 6-5〉는 부모님의 생존 여부,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 부모님과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에 따라 추가출산 의향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우선, 부모님의 생존 여부에 따라 추가출산 의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유배우 여성의 19.1%가 추가출산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 중에서는 단 10.5%만이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생존 여부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차이는 이보다는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도 관찰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현재 및 미래 생활자원이 충분하고 자녀를 지원해 줄 여유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21.4%가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비동거 부모님과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은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과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차이도 관찰할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추가출산 의향이 높고 부모님께 도움을 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추가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자원의 교환이 유배우 여성 세대에 집중될 때 추가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6-5〉 비동거 부모의 생존 여부, 경제적 상황,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특성		추가출산 의향 있음 비율	사례 수
부모 생존	부 사망	0.105	1,176
	부 생존	0.191	3,753
	모 사망	0.148	186
	모 생존	0.172	4,743
부모의 경제적 상황	현재부족 미래부족	0.137	247
	현재감당 미래부족	0.148	1,232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불가	0.163	2,252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가능	0.214	1,198
부모와의 연락 빈도	연락 주 1회 미만	0.080	884
	주 1회 이상	0.190	4,045
부모와의 비경제적 도움 교환	부모님께 도움 주지 않음	0.187	3,403
	부모님께 도움 줌	0.137	1,526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음	0.157	4,184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음	0.243	745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교환	부모님께 정기적 도움 주지 않음	0.179	3,980
	부모님께 정기적 도움 줌	0.135	949
	부모님께 비정기적 도움 주지 않음	0.191	434
	부모님께 비정기적 도움 줌	0.169	4,495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 도움받지 않음	0.169	4,811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 도움받음	0.271	118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 도움받지 않음	0.137	1,475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 도움받음	0.184	3,454	
전체		0.171	4,929

주: 가중치를 사용한 비율과 관측된 사례 수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6-5〉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연령 및 혼인 기간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존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연령이 낮거나 혼인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령이 낮거나 혼인 기간이 짧은 유배우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님의 생존 여부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의 차이는 부모님의 생존 여부 자체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 및 혼인 기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 부모님과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

하다. 유배우 여성 본인과 배우자의 특성 또한 부모님의 특성 및 추가출산 의향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표 6-5>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각각의 요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6> 추가출산 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b	exp(b)	p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자녀 수(기준: 0명)			
1명	-1.310	0.270	0.000
2명 이상	-3.256	0.039	0.000
결혼 연도	0.163	1.177	0.000
연령	-0.058	0.943	0.000
교육수준(기준: 고졸 미만)			
4년제 대졸 미만	-0.530	0.588	0.195
4년제 대졸 이상	-0.602	0.548	0.158
남편 교육수준(기준: 고졸 미만)			
4년제 대졸 미만	-1.097	0.334	0.018
4년제 대졸 이상	-0.764	0.466	0.105
가구소득 수준(기준: 하위 33%)			
중위 33%	-0.017	0.983	0.911
상위 33%	-0.217	0.805	0.189
재산 수준(기준: 하위 33%)			
중위 33%	0.169	1.184	0.258
상위 33%	0.165	1.179	0.345
부모님과의 관계 특성			
아버지 생존	-0.200	0.819	0.246
어머니 생존	-0.103	0.902	0.744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	0.487	1.628	0.016
부모님의 경제적 상태	-0.011	0.989	0.895
부모님께 비경제적 도움 드림	-0.015	0.985	0.918
부모님으로부터 비경제적 도움받음	0.295	1.343	0.047
부모님께 정기적 도움 드림	0.146	1.157	0.418
부모님께 비정기적 도움 드림	0.262	1.300	0.237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 도움받음	0.250	1.284	0.505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 도움받음	0.072	1.075	0.650
상수	-325.757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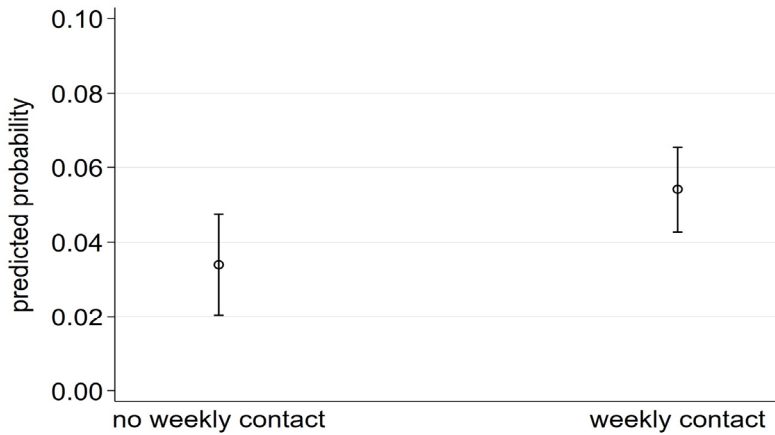
주: N=4,929,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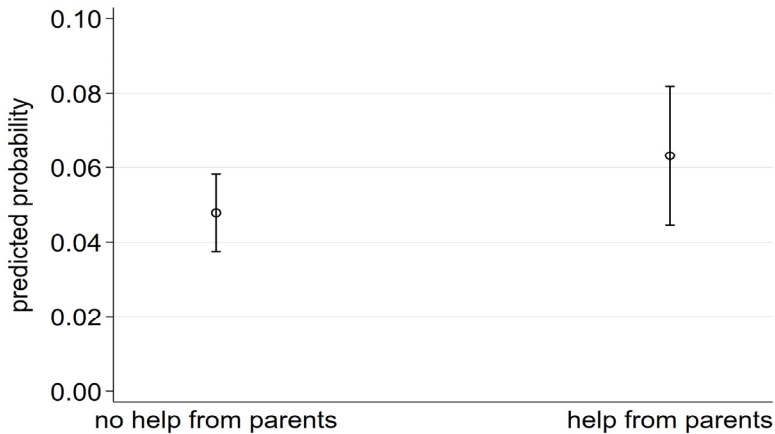
〈표 6-6〉에 제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이 추가출산 의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자녀 수가 많거나 혼인 기간이 오래되거나 나이가 많은 유배우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유배우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 승산(odds)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보다 77.0% 낮으며, 자녀가 2명이면 추가출산 의향 승산이 96.1% 낮다.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의 다른 특성은 추가출산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즉, 교육수준, 가구소득 분위, 재산 분위 등은 추가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관계 특성 중에서는 연락 빈도와 부모님으로부터 비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가 추가출산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모님과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는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 승산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62.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비경제적 도움을 받는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 승산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6-5〉에 제시된 부모님의 특성 및 자녀와의 관계 특성에 따른 차이 중 연락 빈도와 부모님으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 제공만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추가출산 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받음과 추가출산 의향 기대확률의 관계

A. 연락 빈도



B. 비경제적 도움을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6-1]은 <표 6-6>에 제시된 결과를 기대확률(predicted probabilities)로 변환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6-1A]는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1B]는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 제공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그래프에서 해당 변수, 즉 연락 빈도와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 제공 여부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전체 평균값에 고정한 상태에서 기대확률을 추정했다. 부모와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하는 평균적인 유배우 여성의 5.4%가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반면에 부모와 1주일에 1회 미만 연락하는 평균적인 유배우 여성의 3.4%는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비경제적 도움을 받는 평균적인 유배우 여성의 6.3%가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여성의 4.8%는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에 제시된 두 변수의 회귀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그림 6-1]에 제시된 기대확률값들의 95% 신뢰구간은 서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대확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기대확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해석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비경제적 자원의 교환이 추가출산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배우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및 재산분위)이나 부모님과의 경제적 도움 교환 여부는 추가출산 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 혹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부모와의 연락 빈도 및 비경제적 지원이 추가출산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형성 과정이 물질적 토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비동거 부모님과의 관계 비교

〈표 6-7〉은 유배우 여성과 남편이 각각 응답한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비동거 부모님의 생존 여부,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 부모님과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한국의 가족구조 내에서 젠더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비동거 부모님의 생존 비율은 본인과 남편 간에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다. 둘째,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생활도 어렵고 미래를 위한 자원도 부족한 경우는 본인의 부모님은 3.3%, 남편의 부모님은 6.1%로 남편의 부모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부모님은 28.3%, 남편의 부모님은 20.5%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비동거 시부모보다 비동거 친정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양호함을 보여준다. 남편의 연령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부모님의 연령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료의 한계로 확인할 수는 없다. 셋째, 연락 빈도와 비경제적 도움 교환은 유배우 여성이 남편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배우 여성의 86.2%가 비동거 부모님과 주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는 반면 남편의 67.4%만이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께 비경제적 도움을 주는 유배우 여성의 비율과 남편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비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유배우 여성이 남편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넷째, 부모님과의 경제적 도움 교환에서도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께 정기적 도움을 주는 유배우 여성은 15.1%이지만 남편은 22.9%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교환은 유배

우 여성이 남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에 제시된 결과는 한국 유배우자의 부모님과 관계는 젠더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은 남편의 부모님께 제공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 이외의 다른 연락이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은 유배우 여성과 그들의 부모님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표 6-7> 본인 및 남편의 비동거 부모의 생존, 경제적 상황, 연락 빈도, 도움 교환 비교

	특성	본인	남편
부모님 생존	아버지 생존	0.813	0.782
	어머니 생존	0.966	0.961
	현재부족 미래부족	0.033	0.061
부모님 경제적 상황	현재감당 미래부족	0.215	0.265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불가	0.470	0.469
	현재감당 미래감당 지원가능	0.283	0.205
연락 빈도	주 1회 이상	0.862	0.674
비경제적 도움	부모님께 도움 드림	0.299	0.277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음	0.180	0.076
경제적 도움	부모님께 정기적 도움 드림	0.151	0.229
	부모님께 비정기적 도움 드림	0.924	0.888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 도움받음	0.025	0.019
	부모님으로부터 비정기적 도움받음	0.788	0.658

주: N=2,247(부부), 가중치 적용한 비율 제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6-8>은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비동거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항목에서 유배우 여성의 부모님과의 관계와 남편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6-8〉 남편의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본인의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연락 빈도				
남편	본인		계	N
	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		
주 1회 미만	24.1	75.9	100.0	747
주 1회 이상	8.8	91.2	100.0	1,500
비경제적 도움 드림				
남편	본인		계	N
	도움 드리지 않음	도움 드림		
도움 드리지 않음	80.0	20.1	100.0	1,645
도움 드림	44.2	55.8	100.0	602
비경제적 도움받음				
남편	본인		계	N
	도움받지 않음	도움받음		
도움받지 않음	83.4	16.6	100.0	2,084
도움받음	64.7	35.3	100.0	163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드림				
남편	본인		계	N
	도움 드리지 않음	도움 드림		
도움 드리지 않음	93.4	6.6	100.0	1,724
도움 드림	56.4	43.6	100.0	523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 드림				
남편	본인		계	N
	도움 드리지 않음	도움 드림		
도움 드리지 않음	37.0	63.0	100.0	254
도움 드림	3.9	96.1	100.0	1,993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받음				
남편	본인		계	N
	도움받지 않음	도움받음		
도움받지 않음	97.8	2.2	100.0	2,201
도움받음	78.5	21.5	100.0	46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받음				
남편	본인		계	N
	도움받지 않음	도움받음		
도움받지 않음	44.2	55.8	100.0	800
도움받음	9.3	90.7	100.0	1,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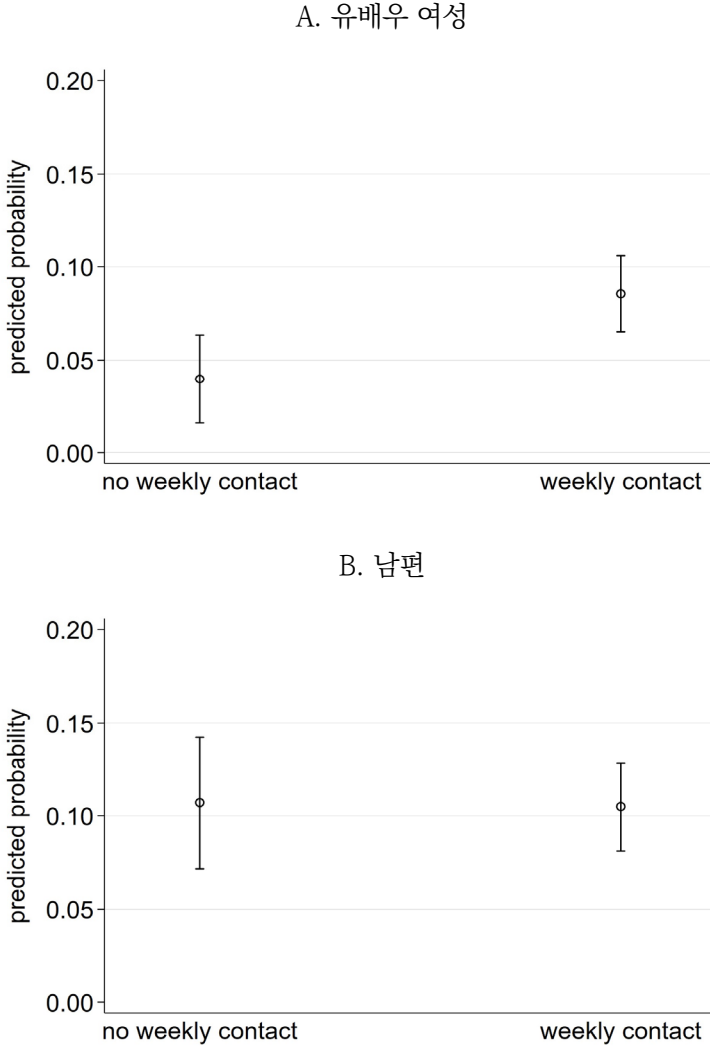
주: 가중치를 사용한 비율과 관측된 사례 수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6-7〉과 〈표 6-8〉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체계 개편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조사와 다르게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유배우 여성의 남편을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유배우 여성의 응답을 기준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남편의 응답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부모와의 관계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의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은 주로 유배우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제공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들을 통한 노년기 경제적 자원의 제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부부의 부모와의 관계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성역할이 중요하지만 부부가 각자의 부모와 맺는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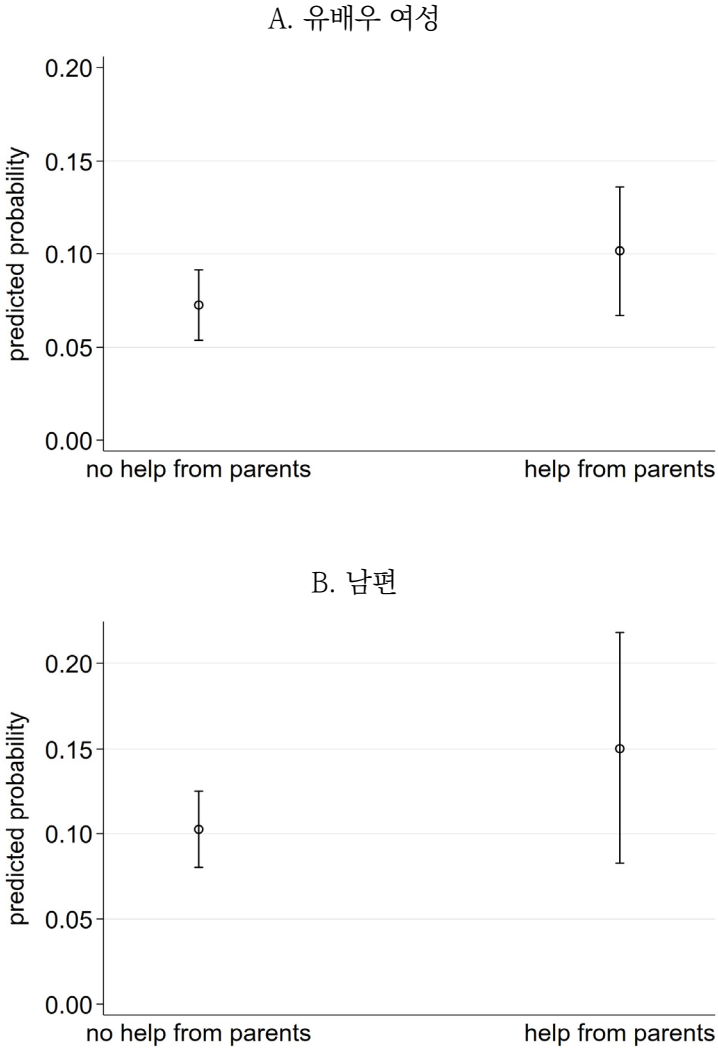
[그림 6-2]와 [그림 6-3]은 [그림 6-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활용해서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면 관계상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는 [그림 6-1]과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연락 빈도나 비경제적 도움받음이 추가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와의 연락 빈도나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 받음은 남편의 추가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단, 유배우 여성 본인의 부모님과 연락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추가출산 의향의 차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2] 본인과 남편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기대확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6-3] 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받음과 추가출산 의향 기대확률의 관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6. 성장기 주거이동 항목 분석

인구이동으로 인한 충격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이 가족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 인구이동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Kulu, 2005), 국내 인구이동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도시와 지방의 생활환경 차이가 큰 한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인구이동 패턴의 이해는 가족형성 및 출산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가현·김근태(2023)의 최근 연구는 지방 출신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 결혼율이 낮았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인구이동의 가족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표 6-9〉 성장기 주거이동

구분	유소년기:	유소년기:	유소년기:	유소년기:	사례 수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현재: 도시	현재: 도시	현재: 비도시	현재: 비도시	
부모 특성					
교육수준(부)					
고졸 미만	0.568	0.208	0.118	0.106	2,347
4년제 대졸 미만	0.741	0.100	0.106	0.052	1,982
4년제 대졸 이상	0.856	0.047	0.085	0.012	600
교육수준(모)					
고졸 미만	0.583	0.204	0.113	0.100	2,783
4년제 대졸 미만	0.772	0.076	0.108	0.043	1,880
4년제 대졸 이상	0.894	0.034	0.072	0.000	266
주된 직업(부)					
전문/관리직	0.863	0.043	0.081	0.013	502
사무직	0.801	0.086	0.094	0.018	680
서비스/판매	0.723	0.087	0.113	0.077	870
농민	0.323	0.391	0.109	0.177	1,061
육체노동자	0.745	0.086	0.120	0.049	1,730
기타	0.648	0.148	0.131	0.073	86

160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구분	유소년기: 도시 현재: 도시	유소년기: 비도시 현재: 도시	유소년기: 도시 현재: 비도시	유소년기: 비도시 현재: 비도시	사례 수
주된 직업(모)					
전문/관리/사무직	0.841	0.059	0.079	0.021	333
서비스/판매	0.735	0.104	0.109	0.053	1,235
농민	0.318	0.404	0.102	0.176	959
육체노동자	0.709	0.094	0.129	0.068	649
전업주부	0.769	0.077	0.111	0.043	1,706
기타	0.822	0.036	0.091	0.051	47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연령					
19~29	0.685	0.052	0.172	0.092	293
30~39	0.713	0.112	0.117	0.058	2,065
40~49	0.652	0.178	0.092	0.078	2,571
자녀 수					
0	0.757	0.097	0.107	0.039	469
1	0.707	0.125	0.111	0.057	1,448
2+	0.650	0.158	0.108	0.084	3,012
교육수준(본인)					
고졸 미만	0.466	0.227	0.286	0.020	72
4년제 대졸 미만	0.591	0.176	0.133	0.100	2,408
4년제 대졸 이상	0.768	0.107	0.081	0.045	2,449
교육수준(배우자)					
고졸 미만	0.472	0.279	0.131	0.119	41
4년제 대졸 미만	0.597	0.164	0.135	0.103	2,118
4년제 대졸 이상	0.742	0.123	0.089	0.046	2,770
가구소득					
하위 33%	0.645	0.133	0.143	0.079	1,658
중위 33%	0.654	0.163	0.102	0.081	1,619
상위 33%	0.734	0.129	0.083	0.054	1,652
재산					
하위 33%	0.595	0.142	0.162	0.102	1,564
중위 33%	0.667	0.134	0.115	0.084	1,779
상위 33%	0.761	0.148	0.059	0.032	1,586
전체	0.679	0.141	0.109	0.071	4,929

주: 가중치를 사용한 비율과 관측된 사례 수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6-9〉는 부모, 본인, 배우자의 특성에 따른 성장기와 현재의 주거이동 패턴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성장기 및 현재 거주지가 모두 도시(동 지역)인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0〉은 성장기 주거이동 패턴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유소년기에 도시에 거주했던 유배우 여성의 출산 의향이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김가현·김근태(2023)는 높은 주거비용 및 생활비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의 낮은 혼인율의 주된 원인이라 지적했는데, 이와 동일한 해석을 〈표 6-10〉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즉, 비도시권(읍면 지역)에서 도시권으로 이동한 유배우 여성의 경우에는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10〉 성장기 주거이동과 추가출산 의향

성장기 주거이동 형태	추가출산 의향 있음
유소년기: 도시 → 현재: 도시	0.184
유소년기: 비도시 → 현재: 도시	0.117
유소년기: 도시 → 현재: 비도시	0.188
유소년기: 비도시 → 현재: 비도시	0.133
평균(N=4,929)	0.1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 항목과 성장기 주거이동 항목을 검토했다. 항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생존, 경제적 상황, 연락 빈도, 비경제적 도움의 교환, 경제적 도움의 교환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 항목들은 부모, 유배우 여성,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항목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모와 유배우 커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식 간의 연락과 경제적·비경제적 도움 교환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는 유배우 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연락 빈도가 잦고 부모로부터 비경제적 도움을 받을 경우에 추가출산 의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결합 표본의 분석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배우 여성이 자신의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가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보다 대체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은 남편의 부모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노부모 지원에 대한 태도가 성별, 지원 대상들의 관계, 지원의 종류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Kye, 2023), 제6장의 분석 결과는 이를 확인해 준다. 이와 동시에 유배우 여성과 남편이 부모와 맺는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성별 차이가 존재함은 물론 부부가 서로의 세대 간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성장기 주거이동 항목 분석 결과는 도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배우 커플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집단보다 양호함을 보여주며, 이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가출산 의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와의 관계 및 성장기 주거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유배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7>, <표 6-8>, [그림 6-2], [그림 6-3]에 제시된 결과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배우 커플과 부모의 관계가 젠더화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부간에 강한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가 유배우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을 조사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러한 장점은 추후 조사체계 개편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장점은 유배우 여성 사례 수의 감소를 수반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유배우 남성 및 미혼남녀를 표본에 포함했기 때문에 유배우 여성 표본 수가 이전 조사보다 줄어들었다. 여전히 충분히 많은 사례를 포함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본 조사가 유배우 여성의 가족 관련 행위 및 태도를 장기간 관찰해 온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배우 여성 사례 수 축소는 분명히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배우 여성 사례 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편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낮기 때문에 커플 수준의 다양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남편의 응답률을 높임으로써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일 영역 개편 방안

- 제1절 서론
- 제2절 문헌 검토
- 제3절 기초분석
- 제4절 주제분석
- 제5절 소결



제 7 장 일 영역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일 영역의 활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 및 출산 영역 내 변인과 일 영역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 및 심층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일 영역은 표본의 경제활동 사항에 대하여 종단적 분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료를 종단 형태(long-format)로 전환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였다.

2021년도에 발간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는 영역별로 기본 특성별 교차표를 횡단적 측면에서 작성·서술하고 있어, 일 영역의 종단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원자료의 일 영역 변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 특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심층분석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장은 일 영역 내 변인을 활용한 ‘기초분석’과 일 영역 내 변인 및 다른 영역 내 변인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주제분석’으로 구성한다. ‘기초분석’에서는 일 영역 내 주요 문항 검토, 표본의 사회경제적 변인별 취업 기간 및 단절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이용 특성 등에 대한 개관적 분석을 다룬다. ‘주제분석’에서는 출생코호트별 입직 연령과 초혼, 첫째아 출산 시기 차이, 결혼, 첫째아, 둘째아 출산 이후의 재취업 특성 변화,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육아휴직 사용 특성과 함의(육아휴직 사용 시기, 평균 육아휴직 기간 등) 등을 다룬다.

제2절 문헌 검토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job, labor market status, job market participation, job satisfaction, employment/unemployment, etc.)은 이론 및 경험적인 측면에서 공히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설명된다. 관련 연구 사례가 두루 보고되고 있으며 양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특성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자리 특성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일자리 참여 여부,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의 질적 특성 등의 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분도 모든 특성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일자리 참여 여부도 언제 어떤 시기에 일자리에 참여하였는지, 일자리 참여 여부가 일시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실업 상태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인 실업으로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일자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 이후 실업 상태에서 이탈하였다면, 시기에 따라 실업 상태와 노동시장 참여 상태로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일자리의 특성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 및 상태 변화를 다른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볼 때에는 횡단(cross-sectional) 관점보다는 종단(longitudinal)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참여, 만족도, 질적 측면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제반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각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 관련 연구는 대체적으로 개인의 종단적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Ryder, 1973; Macran, Joshi, & Dex, 1996; Jokela, Hintsala, Hintsanen, &

Keltikangas-Järvinen, 2010; Holland & Thomson, 2011; Lien & Wang, 2016; Duvander, Fahlén, Brandén, & Ohlsson-Wijk, 2020). 이런 연구에 대체로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결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서의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Becker(1973)는 남녀의 결혼에 따른 혜택은 소득, 교육수준 이외에 상대임금 차이에 의존함을 이론적으로 밝힌 바 있다. 상대임금은 부부간 임금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부부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즉 일자리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Becker & Lewis(1973)는 자녀 출산과 다른 재화 간 선택에 대하여 소득효과를 통하여 자녀 출산과 관련된 양적 특성과 자녀의 질적 특성 간 대체 관계가 형성됨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때의 소득효과는 앞서 언급한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의 변화에 따라 재화의 선택력, 즉 구매력 변화가 나타나 재화 선택이 달라짐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소득은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임금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수준에서 결혼과 출산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인 임금(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은 결혼과 출산 의향을 포함한 행동 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넘어서 필요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일 영역 내 주된 문항을 큰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자리 참여 특성 범주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개인별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이용에 따른 사용자의 의식 및 행동 변화와 같은 정책성과 측면

의 정보 파악은 제한적이다.

육아휴직 관련 선행연구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영향변수로, 출산과 경력단절, 노동시장 참여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배호중, 천재영, 2018; 임병인, 이지민, 2020; 박찬용, 조선미, 김노을, 2018; 김정호, 2012; 조동훈, 2016),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더욱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일 영역 내 출산 관련 제도 이용 변수는 다른 특성과 맞물려 동일 개인의 제도 이용 전후의 특성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Thévenon & Solaz, 2013; Broadway, Kalb, McVicar, & Martin, 2020; Byker, 2016; Tamm, 2019; Kunze, 2022)들도 육아휴직제도 이용 전후의 특성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Ruhm(2000)은 육아휴직 사용 전후 집계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산기 사망률, 신생아 사망 또는 저체중아 발생과 같은 아동 건강 특성이 개선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Ginja, Jans, & Karimi(2020)는 육아휴직 급여가 가사노동 투입 시간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Danzer & Lavy(2018), Danzer & Lavy(2013) 등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제도 이용 전후의 특성 변화를 관측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의 삶의 질(Heymann, Sprague, Nandi, Earle, Batra, Schickedanz, ... & Raub, 2017), (부)모의 정신건강(Bilgrami, Sinha, & Cutler, 2020; Heshmati, Honkaniemi, & Juárez, 2023), 성별 불평등한 노동시장 참여 특성 완화(Ekberg, Eriksson, & Friebel, 2013), 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출산 행동(Cygan-Rehm, 2016) 등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러한 선행연구 사례는 육아휴직제도 이용에 따른 정책 수혜자의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가족과 출산 조사가 이러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수혜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제3절 기초분석

1. 주요 문항 검토

일(경제활동 및 관련 제도) 영역의 문항에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응답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사업소득), 직종 및 업종, 직장 유형, 종사상 지위 등의 일자리 정보와 이러한 일자리 이력(첫 번째~열한 번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특성이 종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순위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시기(시작 연월, 종료 연월)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일(경제활동 및 관련 제도) 영역의 문항에서는 횡단 측면의 형태(wide-format)와 종단 측면의 형태(long-format)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항 구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보인다. 우선 육아휴직 관련 분석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전후의 행태 변화와 관련하여, 남편 육아휴직 전후 여성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변화, 육아휴직 전후 가사분담 비율, 가사 만족도, 평일/주말 육아시간 변화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

이 있다. 이는 육아휴직 이용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long-format이 가능한 데 반해 육아휴직 전후 행태 변화 관련 정보는 대체적으로 특정 시점, 특정 시기의 제한적 정보(육아휴직 전후 변화를 볼 수 있는 종단적 특성이 아님)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 이용 전후의 이용자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2. 표본의 사회경제적 변인별 취업 기간 및 단절 기간

가. 데이터 가공 방법

표본의 취업 기간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내 일 영역에 제시된 변인 중 직업 횟수가 0인 이들을 제외하고, 첫 번째~열한 번째 일자리 시작 및 종료 연월 정보를 활용하여 순위별 일자리 경과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였다.

이때 직업 횟수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종료 연월 정보에 대하여 시스템 결측치가 아닌 무응답 결측치(9999)로 처리된 이들과 종료 시점을 응답하지 않은(현재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는) 응답자 총 3,250개 표본을 제외하고, 일자리 시작 및 종료 연월이 정확히 파악된 응답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총 9,947개 표본).⁶⁾

6) 다만,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경우 해당 조사 시점 연월을 보정(imputation)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의 의의를 고려할 때 해당 특성은 향후 조사 개편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가공을 거쳐 분석 대상이 된 표본의 일자리 순위별 취업 기간의 특성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7-1〉 일자리 순위별 취업 기간의 특성 분포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52.58	50.25	0	381
두 번째	25.60	39.16	0	315
세 번째	10.35	26.21	0	323
네 번째	3.51	15.45	0	274
다섯 번째	0.95	8.02	0	322
여섯 번째	0.21	3.68	0	201
일곱 번째	0.06	1.78	0	105
여덟 번째	0.02	0.71	0	51
아홉 번째	0.00	0.26	0	23
열 번째	0.00	0.11	0	11

주: 1) 열한 번째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은 현재 해당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종료 연월 결측치)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2) 순위별 일자리 취업 기간의 최솟값이 0인 이유는 일자리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취업 기간이 한 달 미만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본의 취업 단절 기간은 각 일자리 종료 연월과 다음 순위 일자리 시작 연월 간 차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한 기간이다. 이때, 추가적인 시스템 결측치 및 무응답 결측치가 있어 순위별 취업 단절 기간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표본을 제외하여 총 8,329개 표본에 대하여 취업 단절 기간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의 순위별 취업 단절 기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7-2〉 일자리 순위별 취업 단절 기간의 특성 분포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24.89	45.16	0	316
두 번째	11.20	30.27	0	299
세 번째	3.46	15.54	0	258
네 번째	0.99	6.86	0	157
다섯 번째	0.31	4.47	0	150
여섯 번째	0.05	1.10	0	51
일곱 번째	0.00	0.06	0	2
여덟 번째	0.00	0.10	0	8
아홉 번째	0.00	0.03	0	3
열 번째	0.00	0.01	0	1

주: 1) 열한 번째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은 현재 해당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종료 연월 결측치)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2) 순위별 일자리 취업 기간의 최솟값이 0인 이유는 일자리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취업 기간이 한 달 미만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 기간과 취업 단절 기간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순위가 높을수록 평균과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약 세 번째 미만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사례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취업 기간이 유독 짧은지, 또 어떤 사람의 취업 단절 기간이 유독 긴지 등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표본의 첫 번째 일자리의 평균 취업 기간은 약 52.58개월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4.38년이지만, 표준편차가 약 50.25개월(약 4.19년), 최솟값은 한 달 미만이지만, 최댓값은 약 38.1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성은 평균 취업 단절 기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일자리 순위 세부 범주별 평균 취업 기간 및 평균 취업 단절 기간의 변이(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세부 범주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나. 표본의 주요 특성별 취업 기간

앞서 살펴본 일자리 순위별 취업 기간을 모두 더하여 총 취업 기간을 도출하고 표본의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별 총 취업 기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총 취업 기간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 기간이 긴 특성이 나타났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30~34세 연령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포의 특성은 25~29세와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취업 기간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생애주기 및 사건을 고려할 때 30대 초반의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령대별 일자리 순위별 취업 기간을 살펴보고, 이직 및 취업 단절과 같은 사건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3〉 연령대별 총 취업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소계
19~24세	99.21	0.79	0.00	0.00	0.00	0.00	505
25~29세	81.04	18.67	0.29	0.00	0.00	0.00	1,023
30~34세	52.41	40.51	6.94	0.14	0.00	0.00	1,412
35~39세	28.91	46.53	21.23	3.23	0.10	0.00	2,044
40~44세	24.53	35.25	26.20	12.10	1.92	0.00	2,454
45~49세	21.70	27.76	22.20	16.41	9.99	1.94	2,212
50세 이상	13.47	16.84	19.53	16.84	17.85	15.49	297
소계	38.03	32.64	17.36	7.82	3.25	0.89	9,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수준별 총 취업 기간은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다만 대학원 졸업 이상 표본의 경우 총 취업 기간이 긴 범주의 비율이 크게 낮아 지는데, 이는 연령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코호트 구분 등으로 연령 특성을 통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혼인상태별 총 취업 기간 분포의 특성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의로 이해되고 있다.

〈표 7-4〉 교육수준별 총 취업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소계
고졸 이하	31.70	30.10	20.44	10.28	5.36	2.12	3,356
대졸	41.64	33.59	15.73	6.64	2.13	0.28	6,160
대학원졸	35.73	38.98	16.71	5.57	2.78	0.23	431
소계	38.03	32.64	17.36	7.82	3.25	0.89	9,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5〉 가구소득별 총 취업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소계
60% 미만	41.65	28.20	15.6	8.03	4.82	1.71	1,993
60~80% 미만	33.39	33.51	21.15	8.61	2.64	0.70	1,707
80~100% 미만	34.52	35.34	18.11	8.26	2.9	0.88	1,828
100~120% 미만	37.19	34.84	17.67	6.61	3.12	0.57	1,573
120~140% 미만	38.55	32.95	18.13	7.15	2.69	0.52	965
140~160% 미만	40.69	32.32	14.57	7.65	3.75	1.01	693
160% 이상	43.18	31.73	14.31	7.91	2.36	0.51	1,188
소계	38.03	32.64	17.36	7.82	3.25	0.89	9,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6〉 혼인상태별 총 취업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소계
미혼	59.07	23.08	9.05	5.60	2.80	0.41	2,465
기혼	31.10	35.79	20.10	8.55	3.39	1.06	7,482
소계	38.03	32.64	17.36	7.82	3.25	0.89	9,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성별 총 취업 기간의 경우 여성은 5~10년 범주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크게 높은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15년 이상 범주의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과 관련하여 코호트 및 교육수준을 추가로 통제한 후, 현재 노동시장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7〉 성별 총 취업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소계
남성	39.87	25.66	17.31	9.92	5.38	1.85	3,679
여성	36.95	36.74	17.39	6.59	1.99	0.34	6,268
소계	38.03	32.64	17.36	7.82	3.25	0.89	9,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표본의 주요 특성별 취업 단절 기간

취업 단절 기간의 주요 특성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총 취업 단절 기간은 5년 이상의 범주에서 남성에 비하여 비율이 크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결혼 이후의 출산, 육아 관련 사유가 어느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취업 단절과 관련하여 특히 출산, 육아 관련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위한 기초적 특성을 제시할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대략적인 특성은 표본의 혼인상태별 총 취업 단절 기간에서 파악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미혼에 비하여 기혼의 경우 5년 이상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혼인상태 및 성별 총 취업 단절 기간을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5년 이상의 범주에서 취업 단절 기간 분포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7-8〉 연령대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19~24세	64.55	19.40	16.05	0.00	0.00	299
25~29세	60.98	17.30	18.56	3.16	0.00	792
30~34세	53.63	16.62	19.69	9.19	0.87	1,143
35~39세	45.80	14.55	19.30	15.54	4.81	1,725
40~44세	37.71	12.69	18.07	18.12	13.40	2,119
45~49세	32.13	12.00	15.15	14.64	26.08	1,967
50세 이상	56.69	18.31	16.55	5.99	2.46	284
소계	44.07	14.32	17.78	13.05	10.77	8,3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9〉 교육수준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고졸 이하	36.34	13.04	18.96	15.38	16.28	2,906
대졸	47.61	15.18	17.30	11.92	7.99	5,058
대학원졸	56.71	12.60	15.07	10.14	5.48	365
소계	44.07	14.32	17.78	13.05	10.77	8,3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0〉 가구소득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60% 미만	41.25	17.37	20.69	12.03	8.66	1,629
60~80% 미만	47.23	14.45	18.26	12.8	7.26	1,336
80~100% 미만	44.44	14.55	16.33	12.77	11.92	1,519
100~120% 미만	41.2	12.57	16.2	15.68	14.35	1,352
120~140% 미만	43.11	13.43	15.19	15.89	12.38	856
140~160% 미만	44.68	13.79	19.1	11.3	11.13	602
160% 이상	48.12	12.37	18.16	10.63	10.72	1,035
소계	44.07	14.32	17.78	13.05	10.77	8,3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1〉 혼인상태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미혼	54.50	18.40	20.16	5.33	1.61	2,044
기혼	40.68	13.00	17.01	15.56	13.75	6,285
소계	44.07	14.32	17.78	13.05	10.77	8,3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2〉 성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남성	59.45	16.34	18.49	4.83	0.89	3,354
여성	33.71	12.96	17.31	18.59	17.43	4,975
소계	44.07	14.32	17.78	13.05	10.77	8,3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3〉 혼인상태별 및 성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남성	미혼	51.67	18.01	23.29	5.62	1.41	1,138
	기혼	63.45	15.48	16.02	4.42	0.63	2,216
	소계	59.45	16.34	18.49	4.83	0.89	3,354
여성	미혼	58.06	18.87	16.23	4.97	1.88	906
	기혼	28.29	11.65	17.55	21.63	20.89	4,069
	소계	33.71	12.96	17.31	18.59	17.43	4,9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취업 단절 기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출생코호트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그간 관련 대응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기혼여성의 취업 단절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 탐색과 해소에 보다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7-14〉 기혼여성 표본의 연령대별 총 취업 단절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1년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소계
19~24세	91.67	0.00	8.33	0.00	0.00	12
25~29세	51.92	18.59	21.79	7.69	0.00	156
30~34세	43.74	17.04	23.20	14.78	1.23	487
35~39세	34.28	14.00	20.59	23.43	7.71	986
40~44세	24.56	9.92	17.44	26.32	21.76	1,250
45~49세	17.12	8.30	12.33	20.03	42.21	1,168
50세 이상	10.00	30.00	10.00	20.00	30.00	10
소계	28.29	11.65	17.55	21.63	20.89	4,0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제도(육아휴직) 이용 기간 특성

표본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기간은 순위별 육아휴직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 간 차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였다. 이때, 순위별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803개 표본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의 순위별 육아휴직 기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7-15〉 순위별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특성 분포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9.10	7.24	0	92
두 번째	4.58	6.80	0	43
세 번째	0.69	3.63	0	67
네 번째	0.03	0.85	0	24
다섯 번째	0.00	0.00	0	0
여섯 번째	0.00	0.00	0	0

주: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순위별 육아휴직 기간의 평균이 0인 이유는 모든 표본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해당 범주의 육아휴직 기간이 한 달 미만임을 의미함. 또한 다른 범주의 최솟값이 0인 경우도 동일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는 앞서 살펴본 취업 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표본 수의 대략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가 육아휴직제도 자체의 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무응답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용 가능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다분해 보인다.

다만,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장점을 객관적으로 정형화된 사실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예: 육아휴직 전후 자녀와의 체감 친밀도 변화, 자녀의 만족도 변화, 시간 사용 변화, 시간 사용 변화에 따른 만족도 변화 등)이 요구되나, 본 자료는 이러한 분석을 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분포를 통해서는 (정책적 개선 방향 및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기별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특성 간 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7-16〉 표본의 연령대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6개월	6~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소계
19~29세	25.00	50.00	19.44	5.56	0.00	36
30~34세	21.38	38.36	30.19	8.18	1.89	159
35~39세	11.81	39.24	30.56	11.46	6.94	288
40~44세	14.89	37.02	34.04	9.79	4.26	235
45~49세	21.18	25.88	36.47	12.94	3.53	85
소계	16.19	37.48	31.63	10.21	4.48	8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7〉 표본의 교육수준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6개월	6~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소계
고졸 이하	15.29	50.59	25.88	7.06	1.18	85
대졸	16.46	36.08	32.28	10.13	5.06	632
대학원졸	15.12	34.88	32.56	13.95	3.49	86
소계	16.19	37.48	31.63	10.21	4.48	8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8〉 표본의 가구소득별 총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0~6개월	6~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소계
60% 미만	28.57	38.10	28.57	4.76	0.00	21
60~80% 미만	16.07	50.00	25.00	7.14	1.79	56
80~100% 미만	9.82	45.54	33.04	8.04	3.57	112
100~120% 미만	18.66	41.79	27.61	10.45	1.49	134
120~140% 미만	20.66	33.06	36.36	9.92	0.00	121
140~160% 미만	17.80	30.51	33.90	14.41	3.39	118
160% 이상	13.69	34.02	31.54	10.37	10.37	241
소계	16.19	37.48	31.63	10.21	4.48	8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 역시 자녀양육의 주체로서 가정 내 양육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에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보만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추후 보완할 필요성(남성 육아휴직 사용 관련 정보 반영)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와 이용 기간은 분석이 가능하다.

제4절 주제분석

1. 일자리 관련 심층분석

가. (출생코호트별) 입직 연령, 입직 시기와 초혼, 첫째아 출산 시기 차이

입직 연령, 입직 시기와 초혼, 첫째아 출산 시기 관측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결혼, 출산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연관성을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출생코호트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잠재적인) 정책 수요를 밀접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1) 입직 연령

입직 연령은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과개월수와 출생 연월 정보를 활용한 경과개월수의 차이를 구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 표본 7,741명의 평균 입직 연령은 22.51세(270.0731개월)였으며, 표준편차는 3.87세(46.4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료 내 표본 연령 분포 특성과 결혼, 출산 등의 이행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집단을 40세 미만/4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40세 미만의 경우 평균 입직 연령은 22.30세(267.6008개월), 40세 이상의 경우 22.76세(273.112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 -statistic=-5.1987).

연령집단 구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표본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대학교 졸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주에서 40세 이상 집단의 평균 입직 연령이 40세 미만 집단의 평균 입직 연령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집단의 평균 입직 연령의 차이는 대학교 졸업 범주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범주에서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0세(1970~1971년 출생)로 구분한 출생코호트 간 입직 시작 시점이 이전 코호트에 비하여 최근 코호트가 다소 빠름을 보여준 것이다.

2)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간 차이

다음으로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간 차이에 대한 출생 코호트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입직 시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과개월 수를, 첫 번째 결혼 시기는 표본 간 다양한 결혼 시점을 한데 모아 해당 범주별 연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과개월 수를, 첫 번째 출산 시기는 첫 번째 출산 연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과개월 수를 각각 활용하였으며, 이 중 입직 시기에 비하여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가 빠른 표본 및 입직 시기가 없는(미취업) 표본을 제외한 7,741개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들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시기의 차이는 평균 6.49년(77.91258개월), 입직 시기와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는 평균 7.62년(91.51562개월), 입직 시기보다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가 늦은 이들의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는 평균 1.16년(13.96154개월)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7-19〉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의 특성

(단위: 명, 개월)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A	5,422	77.91	47.03	0	331
B	4,257	91.52	46.52	1	286
C	6,344	13.96	24.62	0	733

주: A-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시기의 차이; B-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C-표본의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먼저,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시기의 차이를 앞서 살펴본 연령 범주 기준인 40세 미만/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0세 이상이 40세 미만에 비하여 약 7.78개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세 미만 범주는 평균 약 6.14년(73.71709개월), 40세 이상 범주는 평균 약 6.79년(81.49949개월)인 것으로 나타나, 입직 이후 첫 번째 결혼 이행은 최근 코호트가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statistic=-6.0935).

다음으로,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출산 시기 간 차이를 동일한 연령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40세 이상 범주는 약 7.86년(94.29788개월), 40세 미만 범주는 약 7.32년(87.89568개월)으로 나타났으며, 두 평균의 차이도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 -statistic=-4.4610).

(입직 시기보다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가 늦은 이들의)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평균의 경우에도 약 5.5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 -statistic=-10.4356).

〈표 7-20〉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의 집단 간 비교
(단위: 명, 개월)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stat
A	40세 미만	2,499	73.71	41.12	0	261	-6.0935
	40세 이상	2,923	81.49	51.29	0	351	
B	40세 미만	1,850	87.90	41.47	2	243	-4.4610
	40세 이상	2,407	94.30	49.89	1	286	
C	40세 미만	3,516	11.09	28.41	0	733	-10.4356
	40세 이상	2,828	17.53	18.25	0	248	

주: A-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시기의 차이; B-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C-표본의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위의 세 범주별 집단 간 차이를 표본의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대학교 졸업)으로 각각 통제한 결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든 범주에서 집단 간 차이는 40세 미만에 비하여 40세 이상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범주의 경우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의 집단 간 비교
(교육수준 통제)

(단위: 명, 개월)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stat	
대학교 졸업							
A	40세 미만	1,750	70.01	37.05	0	232	-5.6708
	40세 이상	1,679	78.25	47.56	0	331	
B	40세 미만	1,302	85.88	38.06	8	216	-4.4604
	40세 이상	1,406	93.26	47.11	3	268	
C	40세 미만	2,595	9.73	14.69	0	147	-16.7206
	40세 이상	1,627	18.28	18.28	0	248	
고등학교 졸업 이하							
A	40세 미만	608	86.02	50.22	0	261	-0.5331
	40세 이상	1,093	87.47	55.86	0	316	
B	40세 미만	448	93.98	50.48	2	243	-0.8380
	40세 이상	883	96.56	54.40	1	286	
C	40세 미만	780	14.68	53.33	0	733	-0.9115
	40세 이상	1,061	16.21	18.38	0	183	

주: A-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결혼 시기의 차이; B-표본의 입직 시기와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C-표본의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기의 차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결과는 입직 이후 결혼 및 출산 이행 시기가 40세 기준으로 전후 코호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최근 코호트일수록 입직 이후 결혼 및 출산 이행 시기가 더 빠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특성이 입직 이후 결혼 및 출산 이행 시기와는 크게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측한 논의는 입직 이후 결혼, 출산이 이행된 이들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입직한 이들의 두 연령집단의 미혼 비율은 각각 범주별

37.22%, 5.53%로 40세 미만의 미혼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의 교육수준으로 통제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특성이 입직 이후의 결혼 이행 여부와의 연관성이 높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나. 결혼, 첫째아 출산 이후의 재취업 특성(변화)

다음으로 각각 결혼, 첫째아 출산 이후의 재취업을 한 경우에 대하여 재취업 소요 기간과 정규직 여부, 재취업 시 일자리 유형 변화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혼, 첫째아 출산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 대한 일자리 특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은 ‘입직-종료-재취업’의 생애과정을 공통적으로 따른 것이며, 결혼과 첫 번째 출산이라는 사건이 입직-종료 간 내지는 종료-재취업 간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표본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즉, 재취업 이전에 결혼과 첫 번째 출산이 이행된 표본이 분석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을 추출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일자리 시작과 종료 시점 및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시점이 있는 이들 중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이전 결혼과 첫 번째 출산 시점이 있는 이들만을 포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① 결혼 이후 재취업한 이들, ② 첫 번째 출산 이후 재취업한 이들 각각 2,859명, 1,51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2,859명이며 시기별 연령의 평균을

포함한 기초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의 평균은 약 23.25세,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의 평균은 약 29.61세,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의 평균은 약 34.03세, 첫 번째 결혼 연령의 평균은 약 26.8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 연령의 기본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2,859	23.25	3.87	15.00	44.25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	2,859	29.61	5.96	15.83	57.75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2,859	34.03	5.86	18.83	58.00
첫 번째 결혼 연령	2,859	26.82	4.11	13.83	45.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상기 특성을 연령대 범주(40세 미만/40세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 범주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첫 번째 일자리 지속 기간과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과 재취업 연령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23〉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일자리 시작 연령 및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40세 미만	834	23.13	3.17	15.00	38.42
	40세 이상	2,025	23.29	4.13	15.00	44.25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	40세 미만	834	28.09	4.17	18.00	39.33
	40세 이상	2,025	30.24	6.45	15.83	57.75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40세 미만	834	30.82	4.11	18.83	39.67
	40세 이상	2,025	35.35	5.96	19.67	58.00
첫 번째 결혼 연령	40세 미만	834	26.34	3.62	16.08	35.75
	40세 이상	2,025	27.02	4.28	13.83	45.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결혼 이후 재취업까지의 소요 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표본의 평균은 약 7.20년이었으나, 이를 연령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0세 미만의 경우는 약 4.48년, 40세 이상의 경우는 약 8.33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소요 기간의 평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text{-stat}=-17.6051$).

〈표 7-24〉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표본	2,859	7.20	5.60	0.08	27.50
40세 미만	834	4.48	3.61	0.08	19.25
40세 이상	2,025	8.33	5.88	0.08	27.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첫 번째 일자리와 두 번째(재취업) 일자리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변화,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불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 범주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40세 미만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불변 범주, 4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불변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변화 범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호트인 40세 미만의 비정규직 불변 범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은 결혼 이후 출산 이행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대응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7-25〉 두 번째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범주별 변화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표본	40세 미만	40세 이상
정규직-정규직	46.52	45.74	46.88
정규직-비정규직	22.20	20.98	22.76
비정규직-정규직	9.47	9.62	9.40
비정규직-비정규직	21.81	23.66	20.96
표본 소계	2,027	634	1,3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첫 번째 일자리와 두 번째(재취업) 일자리 간 일자리 유형[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 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주는 개인 사업체(5인 미만) 불변(15.01%)이며, 민간 소기업(5~49인) 불변(14.80%), 민간 소기업→개인 사업체 변화(11.86%), 민간 중기업(50~299인)→개인 사업체 변화(7.03%), 민간 중기업 불변(6.79%) 순으로 도출되었다. 연령 범주별 특성 역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26〉 두 번째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의 일자리 특성 변화 범주별 분포

(단위: %, 명)

전체 표본		40세 미만		40세 이상	
41	15.01	33	15.23	41	15.11
33	14.80	41	14.75	33	14.62
34	11.86	34	9.71	34	12.74
27	7.03	25	7.91	27	7.51
25	6.79	27	5.88	25	6.32
표본 소계	2,859	표본 소계	834	표본 소계	2,025

주: 1) 총 49개 범주 중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범주만 제시하였음.

2) 25: 민간 중기업 불변; 27: 민간 중기업→개인 사업체 변화; 33: 민간 소기업 불변; 34: 민간 소기업→개인 사업체 변화; 41: 개인 사업체 불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출산한 이들

이들은 총 1,510명이며 시기별 연령의 평균을 포함한 기초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의 평균은 약 22.45세,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의 평균은 약 27.92세,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의 평균은 약 34.92세, 첫 번째 출산 연령의 평균은 약 27.0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7〉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 연령의 기본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1,510	22.45	4.02	15.00	42.50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	1,510	27.92	5.29	15.83	46.83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1,510	34.92	5.65	18.83	48.92
첫 번째 출산 연령	1,510	27.05	4.07	16.17	41.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위의 특성을 연령대 범주(40세 미만/40세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 범주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첫 번째 일자리 지속 기간과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과 재취업 연령의 차이에서도 첫 번째 결혼 특성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7-28〉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 연령의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40세 미만	410	22.41	3.15	15.25	38.42
	40세 이상	1,100	22.46	4.30	15.00	42.50
첫 번째 일자리 종료 연령	40세 미만	410	27.09	4.11	18.00	39.33
	40세 이상	1,100	28.23	5.64	15.83	46.83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연령	40세 미만	410	31.71	4.13	18.83	39.58
	40세 이상	1,100	36.11	5.68	20.08	48.92
첫 번째 출산 연령	40세 미만	410	26.76	3.84	16.67	36.75
	40세 이상	1,100	27.17	4.15	16.17	41.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첫 번째 출산 이후 재취업까지의 소요 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표본의 평균은 약 7.86년이었다. 이를 연령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경우는 약 4.95년, 40세 이상의 경우는 약 8.95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소요 기간의 평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text{-stat}=-13.4438$).

〈표 7-29〉 두 번째 일자리 취업 이전 결혼한 이들 연령의 연령코호트별 기본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표본	1,510	7.86	5.43	0.08	25.33
40세 미만	410	4.95	3.50	0.08	18.58
40세 이상	1,100	8.95	5.63	0.08	25.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첫 번째 일자리와 두 번째(재취업) 일자리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변화,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불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결혼 범주에서의 특성과 유사하게 최근 코호트인 40세 미만의 정규직 불변 범주 및 비정규직 불변 범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은 결혼 이후 출산 이행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대응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7-30〉 두 번째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범주별 변화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표본	40세 미만	40세 이상
정규직-정규직	36.83	36.04	37.14
정규직-비정규직	27.8	26.62	28.26
비정규직-정규직	8.57	10.39	7.86
비정규직-비정규직	26.8	26.95	26.74
표본 소계	1,097	308	7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첫 번째 일자리와 두 번째(재취업) 일자리 간 일자리 유형[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 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주는 개인 사업체(5인 미만) 불변(16.03%)이며, 그다음은 민간 소기업(5~49인) 불변(15.89%), 민간 소기업→개인 사업체 변화(12.12%), 민간 중기업(50~299인)→개인 사업체 변화(6.82%), 개인 사업체→민간 소기업 변화(6.62%) 순으로 도출되었다. 연령 범주별 특성 역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결혼 및 출산 지원 관련 정책의 수혜도가 경험적으로 높지 않은 민간 및 개인 사업체 내에서의 이동 변화가 다른 범주 간 이동 변화에 비하여 빈도가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7-31〉 두 번째 취업 이전 첫 번째 출산한 이들의 일자리 특성 변화 범주별 분포

(단위: %, 명)

전체 표본		40세 미만		40세 이상	
41	242	33	74	41	174
33	240	41	68	33	166
34	183	34	43	34	140
27	103	40	26	27	78
40	100	27	25	40	74
표본 소계	1,510	표본 소계	410	표본 소계	1,100

주: 1) 총 49개 범주 중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범주만 제시하였음.

2) 27: 민간 중기업→개인 사업체 변화; 33: 민간 소기업 불변; 34: 민간 소기업→개인 사업체 변화; 40: 개인 사업체→민간 소기업 변화; 41: 개인 사업체 불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육아휴직 사용 특성

가. 출산 시점과 육아휴직 사용 시점 간 간격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출산 시기와 육아휴직 사용 시기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평균적인 육아휴직 사용이 출산 이후 어떤 기간에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육아휴직 수요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응답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시점과 첫 번째~여섯 번째 육아휴직 시작 시점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가령, 특정 응답자의 첫 번째 출산 시점과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 시점 간 차이가 3개월이라고 한다면, 출산 이후 3개월 이후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세부 범주(출산 시점과 육아휴직 시작 시점)별 두 시점 간 차이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첫 번째 출산 시점과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점 간 평균 차이는 5.92개월, 두 번째 출산 시점과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점 간 평균 차이는 45.4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산 시점과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점 간 평균 차이는 -21.52개월인데, 이는 두 번째 출산 시점이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 비하여 늦은 데 기인하고 있다.

각각의 순서별 출산 시점과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간격은 출산 순위가 뒤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첫 번째의 경우 평균 5.92개월이지만, 두 번째의 경우 11.56개월, 세 번째의 경우 13.07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표본별 이러한 사용 시기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일자리의 특성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자리 특성과 맞물린 범주별 세부 특성에 대한 대표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표 7-32〉 출산 순위별 출산 시점과 순위별 육아휴직 사용 시점 간 차이의 특성

(단위: 명, 개월)

세부 범주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gap1	615	5.92	15.34	0	116
fgap2	303	45.45	29.48	13	170
fgap3	38	92.79	49.27	35	260
fgap4	1	128.00	-	128	128
sgap1	340	-21.52	25.94	-133	81
sgap2	298	11.56	24.12	0	149
sgap3	41	67.85	47.85	19	233
sgap4	1	105.00	-	105	105
tgap1	100	-39.27	33.44	-138	68
tgap2	92	-7.76	33.76	-166	72
tgap3	41	13.07	23.69	0	106
tgap4	1	72.00	-	72	72

주: 편의상 표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육아휴직 해당 표본은 존재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일자리 유형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의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

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개선 방향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을 표본의 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은 일자리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 환경을 탐색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의 순위별 일자리 유형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때 일자리 유형은 원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범주 중 기타를 제외한 6개 범주, 즉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 사업체(5인 미만)를 고려하였다.

일자리 유형별 순위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의 특성 중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요약하면, 정부기관 및 정부 외 공공기관에 비하여 민간 기업의 이용 비율이 다소 낮으며, 민간 대기업에 비하여 정부 외 공공기관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간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이용 비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일자리 특성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문화 및 정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7-33〉 일자리 유형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일자리 유형					
	첫 번째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두 번째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일자리 유형	있다	없다	소계	있다	없다	소계
1	63.11	36.89	225	65.96	34.04	141
2	54.81	45.19	104	57.35	42.65	68
3	59.67	40.33	305	55.78	44.22	147
4	42.6	57.4	277	28.46	71.54	130
5	43.31	56.69	344	32.02	67.98	203
6	21.12	78.88	232	16.78	83.22	143
소계	46.87	53.13	1,487	40.87	59.13	832

구분	두 번째 일자리 유형					
	첫 번째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두 번째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일자리 유형	있다	없다	소계	있다	없다	소계
1	61.67	38.33	60	54.55	45.45	33
2	41.82	58.18	55	34.48	65.52	29
3	63.08	36.92	130	47.89	52.11	71
4	50	50	180	31.25	68.75	80
5	36.73	63.27	226	32.12	67.88	137
6	17.41	82.59	224	12.16	87.84	148
소계	40.46	59.54	875	29.92	70.08	498

주: 일자리 유형은 1: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2: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보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3: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4: 민간 중기업(50~299인), 5: 민간 소기업(5~49인), 6: 개인 사업체(5인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의 일 영역 내 변인의 활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 및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초 및 심층 분석에서 각각 주요 문항 검토와 표본의 사회경제적 변인별 취업 기간 및 단절 기간, 육아휴직제도 이용 기간 특성과 출생코호트별 입직 연령, 입직 시기와 초혼, 첫째아 출산 시기 차이, 결혼, 첫째아 출산 이후의 재취업 특성 변화,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육아휴직 사용 특성을 고려하였다. 일 영역 문항 검토 및 기초, 심층분석을 통해 일 영역과 결혼 및 출산 관련 다른 영역과의 조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사에서 추가·보완되어야 할 개선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일 영역과 가족형성 간 연관성 논의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측면을 더욱 긴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공-일자리 매칭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에는 응답자 및 배우자의 교육 관련 문항에 최종학력의 전공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하향취업 및 이에 따른 인적자본의 비효율성 유발(사호석, 우한성, 2020)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러한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만혼과 저출산 특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 역시 일자리 차수별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 당시 해당 일자리의 평일/주말 일 시간에 대한 문항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일자리

차수별로 존재한다면, 응답자의 일자리 변화가 근로시간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직업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주기 과정 내 결혼과 출산 행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 영역 내 제도 관련 사항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의 일 영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 시점에서의 횡단적 정보와 직업 이력, 제도 이용 이력 등의 종단적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종단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단적 측면에서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정보와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응답자의 행태 변화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해당 기간 전후 다양한 여건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의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육아휴직 전후 여성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변화, 육아휴직 전후 가사분담 비율, 가사 만족도, 평일/주말 육아시간 변화 등을 향후 조사에서 추가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특정 표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특히 맞벌이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배분 변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분담 만족도 변화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출산, 자녀양육 등 가족생활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둘째, 표본 확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최대한 활용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 영역의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응답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사업소득), 직종 및 업종, 직장 유형, 종사상 지위 등의 일자리 정보와 이력 특성을 상세하게 추적·관찰했다. 응답자의 직업 특성을 관찰

하는 동시에, ‘동거와 결혼’, ‘임신과 출산’ 영역과 조합을 통한 복합적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동거와 결혼행동의 변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고, 임신 형태와 계획, 출산계획과 이행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 영역과 연계 분석이 가능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응답자의 주된 특성으로의 일 영역의 세부 문항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대부분 포함하는 동시에 가족형성과 확대라는 본 조사의 주된 조사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s)과 공변량(covariates)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무응답 및 잘못 입력된 결측값이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일 영역의 문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표본의 특성을 제외한 무응답과 관련된 표본 탈락(attrition)의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응답 응답자 중 해당 정보가 구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조사 노력과 세심한 검토,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의 반복 과정을 통한 시스템 결측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영역에만 한정된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개연성이 높은 일 영역의 세부 문항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표본 탈락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 영역 중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관련 문항에서 특히 표본 응답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제도 이용 경험 관련 문항은 기본적으로 제도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 이외에도 제도 이용 전후 응답자의 행태 및 가치관 변화 등 제도와 관련된 정책성과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 사용 기간 산출 가능 표본의 수는 취업 기간 산출 가능 표본 수의 대략 10분의 1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취업자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이 낮은 여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무응답과 같이 조사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가족과 출산 조사가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의미 있는 자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관련 문항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일 영역과 관련하여 표본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이전 조사와 다르게 횡단적 정보와 종단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종단 분석의 의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표본 수를 확대하고 일 영역 내 주요 문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야 한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가 이전 조사와 다르게 통합 표본 구축 등 표본 범위를 확대하면서 19~49세 기혼 여성 표본 수가 감소하였다는 점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심층분석에서 다룬 출생코호트별 입직 연령, 입직 시기와 초혼, 첫째아 출산 시기 차이, 결혼, 첫째아 출산 이후의 재취업 특성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결혼, 출산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장의 심층분석에서는 출생코호트별 표본 수가 차이가 커서 표본 연령을 40세 전후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표본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표본 수가 더욱 적었기 때문이었다.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자료 활용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조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결론



제 8 장 결론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조사로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조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가족과 출산 조사도 사회 현상을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 왔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는 2015년 개편과 2021년 개편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기존의 임신과 출산 영역에 더해 가족복지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2015년부터는 인구 행동 변화에 더욱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2021년 개편은 가족 구성과 인구 행동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조사 대상을 확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사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에 개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2024년 조사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제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첫째는 조사의 내용적 개선을 위한 의견이고, 둘째는 중기적 관점에서 조사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이다.

1. 표본 특성 및 조사 내용 보완을 위한 제언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2021년도에 확장한 조사 대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족과 출산 조사의 핵심 내용이 피임, 임신, 결혼, 출산, 자녀계획과 같은 인구 행동의 변화를 관찰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2018년까지 유지하던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구성의 한계는 명확하다. 인구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지만, 의사결정은 배우자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조사까지 기혼자와 미혼자 표본이 분리되어 있던 점도 매우 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2021년도 개편에서 조사 대상을 기혼여성에서 19~49세 성인남녀와 그의 배우자로 확장한 것은 최근의 다양성과 향후 예측되는 인구 행동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향 변화라고 판단된다.

조사 대상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한계는 표본 규모의 감소였다. 2021년도 개편 당시 기혼여성 표본 규모를 6,000명으로 설정하여 목표에 도달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4,632명에서 조사를 종료하였다. 향후 기혼여성 표본 규모는 최소 6,000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영역별로 몇 가지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거와 결혼 영역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인 비혼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문항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단순하게 '결혼의향'만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의향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없는 성인들이 미래의 결혼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의식과 실천 양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결혼방식의 비공식화 경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결혼시점 조사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결혼상태별 특성 문항의 경우,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이행과 재혼 이행을 구분하여 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혼경험이 없

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실혼에 대한 문항은 사실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불필요한 문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난임에 관한 세부 영역의 문항을 유배우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임신력 문항에 원치 않은 임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지만 출생아의 체중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난임에 관한 세부 영역의 경우 같은 영역 내 임신력 관련 문항의 수정을 통해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결혼생활 내 자녀계획 역시 동거와 결혼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일 영역에서, 남편 육아휴직 전후 여성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변화, 육아휴직 전후 가사분담 비율 변화, 가사 만족도, 평일/주말 육아시간 변화 등의 문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조사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업체 위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시험조사를 통하여 민간 조사업체의 신뢰성을 상당 부분 확인하였다. 첫째 민간 조사업체의 조사 관리 체계 및 인력의 전문성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조사 진행을 위한 전반적 절차가 매우 체계화되어 있었고, 조사원의 숙련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서 있었다. 사례업체의 조사원은 오랜 기간 패널조사와 사회 분야에서 정부 및 연구기관의 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숙련된 전문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업체는 조사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잘 갖추고 있었다.

CAPI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었다. 조사 자료 처리를 위한 전문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통계청 KOSIS 자료 공표 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조사 자료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를 지원받는다면 연구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고려할 사항도 확인되었다. 우선 민간 조사업체의 숙련된 현재 조사원 인력은 기존 정례조사에 참여하는 실정이며, 한정된 조사원이 신규 조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율이 필요하였다. 숙련된 조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사 일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 분야의 대규모 전문 조사 사업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번 민간 조사업체에 위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할 적절한 계획 수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 조사업체 선정이 어렵다면, 해당 업체와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사업 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적 조사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김가현, 김근태. (2023).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3), 210-225.
- 김세진, 이선희. (2017). 자녀와의 동거 유형별 지원교환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2(2), 113-142.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아, 박은혜, 김근태. (2022).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원정, 김순남. (2018).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 가족제도: 1995-2015 혼인신고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4), 61-90.
-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 빈곤, 여성, 지역 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호. (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조동훈. (2016).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 노동경제논집, 39(4), 81-100.
- 김현식, 김지연. (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5-32.
- 박경숙. (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61-94.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50.
- 박찬웅, 조선미, 김노을. (2018).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4(4), 121-147.
- 배호중, 천재영. (2018).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6(1), 79-118.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호석, 우한성. (2020). 청년층 교육-일자리 매치의 공간적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 및 지역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3), 501-519.
-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정책 뉴스 : 최대 200만원... 20~49세 여성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8881에서 2023. 6. 13. 인출.
- 오지혜. (2020).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1), 361.
- 유재언, 최희정. (2019). 고령부부-비동거자녀 세대간 교환관계 유형: 2008년과 2017년의 차이 비교. 가정과삶의질연구, 37(2), 69-87.
- 유희정. (2011).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87-111.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 31(2), 77-100.
- 이하나, 최영. (2015). 비공식적 돌봄 자원이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를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7(2): 262.
- 임병인, 이지민. (2020).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38(3), 43-64.
- 조윤명, 김영미. (2020). 생계부양자모델 전환기의 젠더규범과 출산 의도 : 혼합 방법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43(4), 69-97.

-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개발원. (2020). SDGs 지표 훑아보기.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 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 황나미. (2015). 모자 건강보호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5(6), 61-72. <https://doi.org/10.23062/2015.06.7>
- 황나미, 김대중, 최슬기, 이수형, 고현선, 장인순, 주창우, 문경용, 신나라, 유혜영, 임재우. (2019).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28.
- Beaujouan, E. (2020). Latest-Late Fertility? Decline and Resurgence of Late Parenthood Across the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6(2), 219-247. <https://doi.org/10.1111/padr.12334>
-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Becker, G. S., &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279-S288.
- Bell, S. O., & Fissell, M. E. (2021). A Little Bit Pregnant? Productive Ambiguity and Fertility Researc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7(2), 505-526. <https://doi.org/10.1111/padr.12403>
- Berrington, A.. (2004). Perpetual postponers? Women's, men's and couple's fertility intentions and subsequent fertility behaviour. *Population Trends*, 117, Autumn Issue, 9-19.

- Bilgrami, A., Sinha, K., & Cutler, H. (2020). The impact of introducing a national scheme for paid parental leave on maternal mental health outcomes. *Health economics*, 29(12), 1657-1681.
- Bongaarts, J., & Casterline, J. B. (2018). From Fertility Preferences to Reproductive Outcomes in the Developing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4(4), 793-809.
- Brinton, M. C., Bueno, X., Oláh, L., & Hellum, M. (2018). Postindustrial Fertility Ideals, Intentions, and Gender Inequality: A Comparative Qualit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4(2), 281-309.
- Broadway, B., Kalb, G., McVicar, D., & Martin, B. (2020). The impact of paid parental leave on labor supply and employment outcomes in Australia. *Feminist Economics*, 26(3), 30-65.
- Byker, T. S. (2016). Paid parental leave laws in the United States: Does short-duration leave affect women's labor-force attach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5), 242-246.
- Cherlin, A. (2004).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Cowan, S. K. (2013). Cohort Abortion Measures for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2), 289-307.
- CDC. (2023). 2017-2019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FEMALE Questionnaire.
<https://www.cdc.gov/nchs/data/nsfg/NSFG-2017-2019-Female-CAPLite-forPUF-508.pdf>에서 2023. 9. 1. 인출.
- Cygan-Rehm, K. (2016). Parental leave benefit and differential fertility responses: Evidence from a German refor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9, 73-103.
- Danzer, N., & Lavy, V. (2013). Parental leave and children's schooling

- outcomes: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a large parental leave reform (No. w194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anzer, N., & Lavy, V. (2018). Paid parental leave and children's schooling outcomes. *The Economic Journal*, 128(608), 81-117.
- Duvander, A. Z., Fahlén, S., Brandén, M., & Ohlsson-Wijk, S. (2020). Who makes the decision to have children? Couples' childbearing intentions and actual childbearing.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43, 100286.
- Ekberg, J., Eriksson, R., & Friebel, G. (2013). Parental leave—A policy evaluation of the Swedish “Daddy-Month”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7, 131-143.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Esteve, A. and Reher, D. 2021. Rising global levels of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mong young adul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7(3): 691-717.
- Gauthier, A. H., Liefbroer, A., Ajzen, I., Aassve, A., Beets, G., Billari, F., Bühler, C., Bujard, M., Cabaço, S., Corijn, M., Désesquelles, A., Dommermuth, L., Dykstra, P., Emery, T., Fadel, L., Fokkema, T., Hansen, T., Hlebec, V., Hoem, J., Klobas, J., Kogovšek, T., Koops, J. C., Kveder, A., Lappegård, T., Lück, D., Lugtig, P., MacDonald, A., Macura, M., Makay, Z., Mills, M. C., Murinkó, L., Mynarska, M., Neyer, G., Pailhé, A., Petrič, G., Pinnelli, A., Ratikainen, J., Rayboud, A., Rijken, A., Slagsvold, B., Solaz, A., Spéder, Z., Thévenon, O., Vikat, A. (2021).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Baseline Questionnaire 3.1.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 Ginja, R., Jans, J., & Karimi, A. (2020). Parental leave benefits, household labor supply, and children's long-run outcom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8(1), 261-320.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Gribaldo, A., Judd, M.D. & Kertzer, D.I. (2009), An Imperfect Contraceptive Society: Fertility and Contraception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 551-584.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9.00296.x>
- Hagewen, K.J. and Morgan, S.P. (2005), Intended and Ideal Family Size in the United States, 1970-2002.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 507-527.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5.00081.x>
- Hayford, S.R. (2009). The evolution of fertility expectation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y* 46, 765-783. <https://doi.org/10.1353/dem.0.0073>
- Hayford, S. R., & Guzzo, K. B. (2016). Fifty Years of Unintended Births: Education Gradients in Unintended Fertility in the US, 1960-2013.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2), 313-34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6.00126.x>
- Heshmati, A., Honkaniemi, H., & Juárez, S. P. (2023).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on parents'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Public Health*, 8(1), e57-e75.
- Heymann, J., Sprague, A. R., Nandi, A., Earle, A., Batra, P., Schickedanz, A., ... & Raub, A. (2017). Paid parental leave and family wellbeing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ra. *Public*

- health reviews, 38(1), 1-16.
- Holland, J. A., & Thomson, E. (2011). Stepfamily childbearing in Sweden: Quantum and tempo effects, 1950-99. *Population Studies*, 65(1), 115-128.
- Iacovou, M., & Tavares, L. P. (2011). Yearning, Learning, and Conceding: Reasons Men and Women Change Their Childbearing Inten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89-123.
- Jokela, M., Hintsala, T., Hintsanen, M., & Keltikangas-Järvinen, L. (2010). Adult temperament and childbearing over the life cours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4(2), 151-166.
- Kiernan, K. (2001) "The rise of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outside marriage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5(1): 1-21.
- Kim, H. 2016. Exploring the downside of social embeddedness: Evidence from a cross-national study." *Social Science Quarterly* 97(2): 232-251.
- Kim, H. 2020. Social capital and job search assistance: A multilevel analysis of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Sociology* 35(1): 45-69.
- Kim, K.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1), 145-172.
- Kim, S. (2019). Reproductive technologies as population control: How pronatalist policies harm reproductive health in South Korea.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7(2), 6-12.
<https://doi.org/10.1080/26410397.2019.1610278>
- Kulu, H. (2005). Migration and Fertility: Competing Hypotheses

- Re-examined. *Eur J Population* 21, 51-87.
<https://doi.org/10.1007/s10680-005-3581-8>
- Kunze, A. (2022). Parental leave and maternal labor supply. *IZA World of Labor*.
- Kye, B. (2023). Excess Morta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8, (Nov. 2023). DOI:<https://doi.org/10.12765/CPoS-2023-26>.
- Kye, B. & Choi, Y. (2021). Are parents and children coresiding less than before? An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in South Korea, 1980-2015. *Demographic Research* 45: 1-16.
- Lazzari, E., Potančoková, M., Sobotka, T., Gray, E., & Chambers, G. M. (2023). Projecting the Contribu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o Completed Cohort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2(1), 6.
<https://doi.org/10.1007/s11113-023-09765-3>
- Leridon, H. (2004). Can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compensate for the natural decline in fertility with age? A model assessment. *Human Reproduction*, 19(7), 1548-1553.
<https://doi.org/10.1093/humrep/deh304>
- Lien, H. M., & Wang, P. (2016). The timing of childbearing: The role of human capital and personal prefer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49, 247-264.
- Lin, N. and Dumin, M.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Macran, S., Joshi, H., & Dex, S. (1996). Employment after childbearing: a survival analysi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0(2), 273-296.
- Mare, R. (2011). A Multigenerational view of inequality. *Demography*

- 48(1): 1-23.
- Mare, R. (2014). Multigenerational aspects of social stratification: Issues for further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5: 121-128.
- Marteleteo, L. J., Weitzman, A., Coutinho, R. Z., & Valongueiro Alves, S. (2017). Women's Reproductive Intentions and Behaviors during the Zika Epidemic in Brazi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3(2), 199-227. <https://doi.org/10.1111/padr.12074>
- Menken, J., Trussell, J., & Larsen, U. (1986). Age and Infertility. *Science*, 233(4771), 1389-1394. <https://doi.org/10.1126/science.3755843>
- Miller, G. & Babiarz, K. S. (2016). Family Planning Program Effects: Evidence from Microdat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1), 7-26.
- Mooyaart, J. E., Liefbroer, A. C., & Billari, F. C. (2022).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family formation in four European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76(2), 235-251.
- Morgan, M. (1982). Television and adolescents' sex role stereotyp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5), 947-955.
- Morgan, S. P. (2001). Should Fertility Intentions Inform Fertility Forecasts? The Direction of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U.S. Census bureau Conference, October 2-3.
- Morgan, S. P., & Rackin, H. (2010). The Correspond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1), 91-118.
- Okun, B. S., & Raz-Yurovich, L. (2019). Housework, Gender Role

- Attitudes, and Couples' Fertility Intentions: Reconsidering Men's Roles in Gender Theories of Famil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5(1), 169-196.
-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 Pison, G., Monden, C., & Smits, J. (2015). Twinning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rends and Explana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4), 629-649.
- Presser, H. B. (2001). Comment: A Gender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Low Fertility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177-183.
<http://www.jstor.org/stable/3115255>
- Pulley, L., Klerman, L. V., Tang, H., & Baker, B. A. (2002). The Extent of Pregnancy Mistiming and Its Association with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and Pregnancy Outcome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206-211.
- Quesnel-Vallée, A., Morgan, S.P. (2003). Missing the Target? Correspondence of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 497-525.
<https://doi.org/10.1023/B:POPU.0000021074.33415.c1>
- Ruhm, C. J. (2000). Parental leave and child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6), 931-960.
- Ryder, R. G. (1973). Longitudinal data relating marriage satisfaction and having a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4), 604-606.
- Seo, B. and Kim, J. 2022.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The moderating role of homeownership.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 3199 - 3216.

- Sobotka, T., & Beaujouan, É. (2014). Two Is Best? The Persistence of a Two-Child Family Ideal i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0(3), 391-419.
- Sobotka, T., Hansen, M. A., Jensen, T. K., Pedersen, A. T., Lutz, W., & Skakkebæk, N. E. (2008). The Contribution of Assisted Reproduction to Completed Fertility: An Analysis of Danish Dat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1), 79-10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8.00206.x>
- Sobotka, T., Zeman, K., Jasilioniene, A., Winkler-Dworak, M., Brzozowska, Z., Alustiza-Galarza, A., Németh, L. & Jdanov, D. (2023). Pandemic Roller-Coaster? Birth Trends in Higher-Income Countr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https://doi.org/10.1111/padr.12544>
- Spéder, Z., Kapitány, B. (2009). How are Time-Dependent Childbearing Intentions Realized? Realization, Postponement, Abandonment, Bringing Forward. *Eur J Population* 25, 503-523. <https://doi.org/10.1007/s10680-009-9189-7>
- Tamm, M. (2019). Fathers' parental leave-taking, childcare involvemen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Labour Economics*, 59, 184-197.
- Thévenon, O., & Solaz, A. (2013). Labour market effects of parental leave policies in OECD countries.
- Toulemon, L. & Testa, M. R. (2005). Fertility intentions and actual fertility: A complex relationship. *Population & societies*, 415, 1-4.
- US Census Bureau. (2023). What Are Paradata? - An Example. <https://www.census.gov/newsroom/blogs/research-matters/201>

7/04/paradata.html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Contraceptive Use 2022.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 (1), 1-59.

Voas, D. (2003). Conflicting Preferences: A Reason Fertility Tends to
Be Too High or Too Low.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 627-646.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3.00627.x>

Westoff, C.F., Ryder, N.B.. (1977).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14, 431-453. <https://doi.org/10.2307/2060589>

Yoo, SH., Guzzo, K. B., & Hayford, S. R.. (2014).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Ambivalence Toward Pregnancy: Does It Predict
Inconsistent Use of Contraception?, Biodemography and Social
Biology, 60(1), 49-66, DOI: 10.1080/19485565.2014.905193

Zaidi, B., & Morgan, S. P. (2017).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A Review and Appraisal.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 473-492.



1. 시험조사 조사구 사항과 에러체크 내용

〈부표 1〉 조사구 대체 및 확대 결과

조사구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 일반	본/대체	전체 가구 수	결과
100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1	본 조사구	90	사용
100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3동	1	본 조사구	62	사용
10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	1	본 조사구	83	사용
1004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	본 조사구	60	사용
1005	대전광역시	동구	신인동	A	본 조사구	46	2003 조사구로 대체하여 진행
1006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A	본 조사구	48	사용
100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A	본 조사구	52	사용
1008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2동	A	본 조사구	74	사용
100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	A	본 조사구	79	사용
10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A	본 조사구	63	사용
2001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1	대체 조사구	42	미사용
2002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	대체 조사구	69	미사용
200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동	A	대체 조사구	53	사용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시험조사 에러체크 내용

연번	영역	문항 번호	에러체크 내용	비고
1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6-6	-동거와 결혼 영역 문1~문1-2에서 도출된 혼인상태와 가구원, 가족 사항 문6-6의 혼인상태가 동일한지 확인. 두 영역의 혼인상태가 다른 경우 동거와 결혼 영역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가구원과 가족 사항의 혼인상태를 수정해야 함. 문18 결혼횟수도 두 명 모두 카운트되어야 함 -영역 2 문1-1 법률혼인 경우, 가구원 사항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인지 확인	
	영역 2. 동거와 결혼	문1~문1-2	-영역 2 문8 사실혼인 경우, 가구원 사항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인지 확인(사실혼이었다가 헤어진 경우, 이혼으로 응답함) -동성커플의 경우 영역 2 문1 애인, 파트너 있음으로 응답하나, 혼인상태가 미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영역 2 문1-2 미혼,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혼인상태 응답과 동일한지 확인	
2	가구 일반 특성	문2, 문2-2	-문2의 시가/보증금이 문6의 자산과 같거나 작은지 확인 -문2의 월세/사글세 금액이 문5의 가구 지출과 같거나 작은지 확인	
	가구 일반 특성	문6, 문7	-문2-2의 대출 금액이 문7의 부채와 같거나 작은지 확인(무상 거주할 경우 대출이 없어야 함)	
3	가구 일반 특성	문6-5-1	-연령에 따른 교육 정도 및 상태 확인	
	가구 일반 특성	문6-5-2		
4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6-4, 문6-5-1, 문6-7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동거 여부, 생년월, 교육수준, 현재 취업 상태가 같은지 확인	
	영역 1. 부모와의 관계	문11-2~11-5		
5	영역 2. 동거와 결혼	문2	-커플 set 문항으로 응답자와 배우자의 응답이 같은지 확인	
	영역 2. 동거와 결혼	문3		
6	영역 2. 동거와 결혼	문6	-커플 set 문항으로 응답자와 배우자의 응답이 같은지 확인	
	영역 2. 동거와 결혼	문7		
7	영역 2. 동거와 결혼	문1	-임신·출산 건강 문5 ⑥ 상태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동거와 결혼 영역에서 문1 ① 배우자, 애인, 파트너 있음으로 응답했는지 확인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5		

연번	영역	문항 번호	에러체크 내용	비고
8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5-1	-문5-1 9) 여성 반영구 피임술, 10) 남성 반영구 피임술로 응답한 경우, 문5는 반드시 1) 항상 한다로 응답했는지 확인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5		
9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3	-문5에서 '항상 한다' 또는 '대부분 하는 편이다'로 응답했는데, 문3에서 '없다'로 응답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한국리서치 추가
		문5		
10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6-4	-임신·출산 건강 영역의 임신력 부분에서 임신 결과가 출생인 경우, 가구원과 가족 사항의 해당 자녀 생년월일과 성별이 동일한지 확인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7-6		
11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11-2	-문11-2에서 시술 결과가 ①~③이 나온 경우 임신이력에서 난임시술 중 임신 종결 형태 중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7-5		
12	영역 4. 산전·산후 관리	문0	-2020년 10월 7일 이후 출산이력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임신·출산이력에서 2020.10.7. 이후 출산자 유무 및 임신 회차 확인	
	영역 3. 임신·출산 건강	문7		
13	영역 4. 수유	문1	-문3의 수유 형태 중 '모유' 응답값이 있는데 문1 모유 수유 여부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한국리서치 추가
14	영역 4. 수유	문2-2	-모유 수유 중단 시점과 문3의 월평균 모유 수유 형태값이 일치하는지 확인	한국리서치 추가
15	영역 5-1. 자녀양육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2	-영역 5-1. 자녀양육 문2의 경우 별도의 로직 없이 가구원 및 가족 사항에 0세~초등재학자녀 유무를 조사원이 판단하여 문항에 응답하므로, 가구원 및 가족 사항에서 0세~초등재학자녀가 있는지 확인	
	가구원 및 가족 사항	가구원 정보		
16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6-7	-일 영역의 경제활동 상태와 가구원과 가족 사항의 경제활동 상태가 동일한지 확인	
	영역 6. 일	문1-1		
17	영역 6. 일	문1-3	-응답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합계 금액이 가구 일반 특성 문4 월평균 가구소득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	
	가구 일반 특성	문4-1		
18	영역 6. 일	문1	-문1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 직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직장 유형, 입사 시기가 문6 재직 중인 곳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영역 6. 일	문6		
19	영역 6. 일	문1-1	-현재 경제활동 상태가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데 마지막 직업이력이 '재직 중'인 경우가 있는지 확인	
20	영역 6. 일	문1-2	-문1-2 평균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문4-1 일(통근시간 포함) 시간보다 긴 경우가 있는지 확인	
	영역 6. 일	문4		
21	영역 6. 일	문6-1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와 해당 출산 회차의 자녀 생년월 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	한국리서치 추가

226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연번	영역	문항 번호	에러체크 내용	비고
22	영역 6. 일	문6-1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비교하여 오류 확인(3개월 초과 시 오류)	한국리 서치 추가
23	영역 6. 일	문6-1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내에 일자리 경 험이 있는지 확인[해당 시기에 일자리 경험이 없었을 시 '비해당(비근로)'으로 수정]	한국리 서치 추가
24	영역 6. 일	문6-2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해당 출산 회차의 자녀 생년월 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	한국리 서치 추가
25	영역 6. 일	문6-2	-육아휴직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비교하여 오류 확 인(1년 초과 시 일자리 정보 확인 필요)	한국리 서치 추가
26	영역 6. 일	문6-2	-육아휴직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내에 일자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당 시기에 일자리 경험이 없었을 시 '비해당(비근로)'으로 수정]	한국리 서치 추가
27	영역 6. 일	문6-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동시에 있다 면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출산 전후휴가 종료 시점, 육아휴직 시작 시점 확인	한국리 서치 추가
28	영역 6. 일	문6-4	-출산 회차 당시 배우자 유무를 확인하여 배우자의 출 산휴가 사용 여부 확인	한국리 서치 추가
29	영역 6. 일	문6-4	-출산 시점에 배우자의 일자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당 시기에 일자리 경험이 있는데 '비해당(비근로)'으 로 응답 시 '아니오'로 수정]	한국리 서치 추가

자료: 저자 작성.

2. 시험조사에 대한 연구진 제언

가. 임신과 출산 영역

〈부표 3〉 임신과 출산 영역 개편에 관한 개선 방향과 제언 요약

세부 항목	문항	개선 방향 및 제언 요약
생식계 증상	2	생식계 증상 관련 대응 여부를 구분하여 묻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2-1	부가 의문문이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등 병의원 방문”이 아닌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함[“한의원(한방병원) 방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시문을 “☞ 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문항 2-1로”로 수정
피임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5-2	현재 보기가 여성 응답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녀 모두 응답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보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⑧ 나 또는 상대방이 임신 중이어서”로 수정하고, “상대방이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불임 등의 상태이므로)” 추가
임신 시기	7-1	‘임신 시기’의 정의에 관한 지시문을 제공하여 면접원과 응답자 모두의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했던 임신 여부	7-2	임신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을 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자기 합리화’ 같은 측정오차를 제한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에 “7-2 임신 당시 원했던 임신 여부”로 수정
임신 시기의 적절성	7-3	임신 시기가 빨랐는지 늦었는지를 구분해서 묻고, 그 시기를 ‘년’이 아닌 ‘월’ 단위로 수정; “□□월”
	추가	원치 않은 임신 또는 부적절한 시기의 임신이 피임 실패 또는 비효과적인 피임의 사용 등 피임 실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임신 당시 피임 상황에 관한 문항 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임신 방법	7-4	임신 방법을 묻는 해당 문항의 보기를 “① 자연임신”, “② 인공수정”, “③ 체외수정”, “④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제외한 기타 난임시술” 등으로 수정
임신 종결 형태와 출산 경험	7-5, 7-6, 추가	임신 종결 형태 문항이 다태아 여부, 종결 형태, 신생아의 수 및 성별 구성을 모두 묻는 복잡한 형태; 다태아 여부, 출생아 수,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신생아 몸무게 문항 추가 필요 - 임신 상태와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태임신 여부에 관한 문항 포함; “다태아 여부” 문항 추가. “① 단태아”, “② 일란성 다태아(____아)”, “③ 이란성 다태아(____아)” - 임신 종결 문항에서 출생아의 수와 성별을 구분하여 별도로 확인

세부 항목	문항	개선 방향 및 제언 요약
		- “출생” 보기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로 구분하여 제시 - “정상분만”과 “제왕절개” 선택 시 신생아의 몸무게 확인하기 위한 문항 “_____kg” 추가
입양	추가	입양 자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난임과 불임을 겪은 커플의 경우 입양에 관한 생각 또는 실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음
난임	10	난임 관련 문항을 법률혼·사실혼인 여성으로 응답자를 제한하고 있음. 난임에 관한 문항을 남성으로 확대; 설문 문항에서 “배우자”를 ‘배우자 또는 파트너’ 등으로 수정
	11 추가	난임시술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시술 경험에 대한 문항 추가;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시술을 받으셨습니까?(중복 응답)”, “① 인공수정”, “② 체외수정”, “③ 배란유도”, “④ 기타”
	11-1 11-2	난임시술과 임신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문두에 “과거 3년 이내 난임시술 경험”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과거의 자녀계획	12	현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 내에서 자녀계획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 “귀하는 결혼 당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었습니까? 현재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초혼인 부부의 자녀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영역 2. 동거와 결혼”으로 옮겨 법률혼 또는 사실혼 상태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
	13	자녀 출산 여부, 시기, 자녀 수에 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답변에서 의견 반영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자녀 출산에 관한 의견 반영 정도’로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귀하는 지금까지 자녀 출산에 관해 배우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수정
	14-1	설문 문항에 시기를 특정하여 “앞으로 자녀는 (더) 낳을 생각하시면, 3년 이내에 출산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로 수정

주: 표의 내용은 이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나. 시험조사

1. 조사수행 과정

1-1. 조사 원칙 관련

- 조사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조사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음.
- 연령대 특성상 방문해도 만나기 쉽지 않고, 설문 길이가 응답자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부부가 모두 대상인 가구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면 상대 배우자는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음.

챕터 구분	내용
조사 원칙 관련	<p>쿼터를 채우면서 조사구 조사로 진행해야 해서 대상자 찾기가 너무 힘들었음</p> <p>부부가 대상일 경우 배우자가 설문을 부탁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음</p> <p>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대상자 찾기가 어려웠고 설문 길이가 길어서 설득을 해도 거부함</p> <p>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공감시키며 가족정책, 인구정책, 보건정책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득함</p> <p>보건사회연구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p>

1-2. 조사표 관련 의견

- 가구원 및 가족 사항
 - 가구원 관련 문항이 많고 복잡하여 응답자와 면접원 모두가 부담을 느낌. 또한 가구원 전원의 생년월일이나 정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지나치게 자세하여 응답자가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함.
- 부모와의 관계
 - 돌아가신 부모님의 정보를 묻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잘 기억

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음. 부모님의 직업, 정보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묻는 것에 불쾌함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음.

□ 동거와 결혼

-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림.

□ 임신·출산 건강

- 미혼인 경우 성관계 관련 문항 응답에 부담을 느낌. 부부가 해당 파트를 같이 응답할 때 동일한 문항에 대해 다르게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출산 시기를 역산하여 임신 시기를 적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음.

□ 일

- 이전 일자리를 응답할 때 입사 시기, 퇴사 시기 등 과거 정보를 정확히 응답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음. 특히 일자리 이동이 많았던 경우 겪었던 일자리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응답에 어려움을 겪음.

□ 가구 일반 특성

- 자산, 소득과 같은 문항은 개인정보 이슈로서 응답자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챗터 구분	내용
가구원 및 가족 사항	<p>재혼가구 조사 시 현재 가구원 조사만 진행하면 좋겠음</p> <p>개인정보에 민감한데 가족 구성원을 전부 물어본다고 거절률이 높았음</p> <p>탭이 아니라서 가족 구성원 입력하기가 번거로움</p> <p>가구원 입력 시 경제활동 상황까지만 조사했으면 함</p> <p>가구원 조사표를 보는 순간 거부감 느낌. 복잡하게 만들어짐</p> <p>생년월까지만 기록하면 좋겠음. 너무 자세하게 물어본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었음</p> <p>첫 페이지 가구원 입력 부분에 여백이 없어 조사표를 펴는 순간 부담 느낌</p> <p>미성년자 자녀는 가구원에서 생년월까지만 기록했으면 함</p> <p>가구원 구성을 물어볼 때 자녀까지 전부 해야 하나면서 꺼리는 경우가 있음</p>
부모와의 관계	<p>미혼자녀 응답 시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산 월 급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응답이 어려웠음</p> <p>돌아가신 부모님의 생년월일과 하셨던 일은 기억하기 어려웠음</p> <p>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응답하기 싫어함</p> <p>부모님 최종학교, 직업 문의 시 불쾌하게 생각함</p> <p>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문항에서 꼭 응답을 해야 하는지 물어옴</p> <p>부모님까지 동원하여 응답하기를 꺼려 함</p> <p>부모님의 일자리까지 물어본다면 꺼려 하는 분들 있음</p> <p>부모님 생존 질문 문항만 있으면 좋겠음</p> <p>부모님의 과거 일자리를 잘 모르고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음</p>
동거와 결혼	<p>동거하고 있다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응답자도 있었음</p> <p>젊은 연령대는 동거를 하더라도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었음</p>
임신·출산 건강	<p>응답자가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 역산이 어려워져 시간이 많이 걸림</p> <p>부부일 경우 따로 물어봐도 틀리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음</p> <p>피임도 부부일 경우 다르게 응답하는 경우가 생김</p> <p>미혼자한테 성관계를 물어보면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음</p>
수유	<p>의견 없음</p>
일	<p>과거 일자리 관계 문항이 없었으면 함</p> <p>현재 경제활동은 어려움 없이 응답하지만 과거 일자리 기록은 입사 시기와 퇴사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임금도 기억하기 어려움</p> <p>일자리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짐</p> <p>경제활동 시 소득 기억을 못함 (예) 100만 원 미만, 100만~15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예시가 필요함</p> <p>과거 일자리 1개 정도만 질문 문항에 있으면 좋겠음</p> <p>기간, 임금을 기억 못함. 횟수는 기억하고 있음</p> <p>과거 일자리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줌</p> <p>과거 일자리 변동이 많으면 입사 시기, 퇴사 시기, 임금 기억을 못함</p>
성장기와 주거이동/가치관과 인식	<p>의견 없음</p>
가구 일반 특성	<p>가구소득, 지출, 부채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임</p>

1-3. 실사 난이도 및 조사표 난이도 평가

- 투입 면접원 8명에게 가구 접촉이나 대상 설득 측면에서의 실사 진행 난이도를 평가한 결과, 8명 중 4명이 '최상'으로 평가하였고, 4명은 '상'으로 평가함.
- 설문 문항 내용이나 로직 측면에서 평가한 조사표 난이도는 '최상' 2명, '상' 4명, '중' 2명임.

연번	이름	경력	실사 난이도 평가	조사표 난이도 평가
1	김○○	10년 이하	최상	상
2	박○○		상	중
3	김○○		탈락	
4	홍○○	10년 이상	최상	최상
5	이○○		최상	최상
6	박○○		상	상
7	신○○		상	상
8	최○○		최상	상
9	임○○		상	중
10	윤○○		탈락	

2. 문항별 오류 내용

2-1. 가구원 및 가족 사항

-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1-5(교육수준)와 [일] 문1-0(최종학교 졸업 연월)
 -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1-5(교육수준)의 응답이 '재학, 휴학, 중퇴'임에도 개인조사표 [일] 문1-0(최종학교 졸업 연월)을 가구원 및 가족 사항과 동일하게 응답하는 예러 발생
 - 가구원 및 가족 사항에서 모든 가구원의 학력을 교육 정도&교육 상태로 자세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필요함.
 - 개인조사표에서만 확인하는 방식 제안함.

□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1-7(경제활동 상태)과 [일] 문1-1(경제활동 여부)

- 가구원 및 가족 사항 문1-7(경제활동 상태)의 응답이 [일] 문1-1(경제활동 여부)과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 가구원 및 가족 사항에서 모든 가구원의 취업 상태 확인이 필요한지 재검토 필요함.

→ 개인조사표에서만 확인하는 방식 제안함.

2-2. 동거와 결혼

□ 문1-2(혼인상태)와 문18(결혼횟수)

- 문1-2(혼인상태)에서 '미혼'으로 응답했으나, 문18(결혼횟수)에서 결혼경험횟수 1번, 문19(과거 결혼경험)에서 이혼 경험을 응답한 케이스 1건 발생

□ 문2(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 부부 응답 불일치 확인

- 문2(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에서 부부 응답이 다른 케이스 1건을 발견하였으나, 연도는 같고 개월이 1개월 차이가 남.

→ 부부지만 연상의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하는지, 일치시킨다면 어떤 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하는지 재검토 필요함.

2-3. 임신·출산 건강

□ 문3(생애 기간 동안 피임 경험)과 문5(현재 피임 여부)

- 문3(생애 기간 동안 피임 경험)에서 '없다'로 응답했는데, 문5(현재 피임 여부)에서 '항상 한다' 또는 '하지 않는 편이다'로 응답한 케이스 발생

→ 대부분의 경우, 문5-1(피임 방법)에서 정관수술 또는 월경주기,

질외사정의 방법을 응답함.

- 문3(생애 기간 동안 피임 경험)의 워딩이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피임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할 수 있는 반면에, 문5(현재 피임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피임을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문3의 워딩을 문5와 동일하게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으로 수정하는 방식 제안함.

(예시: “귀하는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애 기간 동안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문5-2(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기타

- 문5(현재 피임 여부)에서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로 응답했으나, 문5-2(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기타에 ‘정관수술 응답’을 한 케이스 발생
- 정관수술 등 남성/여성 반영구 피임술이 피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응답 결과임.
- 피임 경험에 대해 묻는 첫 문항인 문3(생애 피임 경험)에서 피임의 예시(문5-1의 보기)를 보여주고 응답하도록 해서 피임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례들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갖고 관련 문항들에 응답하는 방식 제안함.

□ 문7(임신 경험)

- 임신 시작 시기에 임신 종결 시기를 넣는 오류가 다수 발생함.
- CAPI로 조사 진행 시, 가구원 정보에서 자녀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보여주어 임신 결과가 출산인 경우, 출산 시기를 입력할 때 혼동을 줄이는 방법 고려 필요

2-4. 수유

- 문2-2(모유 수유 중단 개월/주), 문3-0(임신 회차), 문3-1(조사 대상 아이의 현 월령)
- 임신 회차를 기입하지 않거나 조사 대상 아이의 현 월령 계산에 어려가 일부 있으나, 종이설문이 아닌 CAPI 조사로 자동 계산하면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됨.

2-5. 일

- 문1-0(최종학교 졸업 연월)과 문5-1(일자리 시작 시기)⁷⁾
- 일자리 시작 시기를 최종학교(대학 기준) 졸업 시점 이전으로 응답한 케이스 발생
 - 대학 졸업 전이라도 응답자가 '일자리'로 판단하고 2개월 이상 유지되는 일자리로 응답했다면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문1-0(최종학교와 졸업 연월) 문항 삭제를 제안함.
- 문1-2(평소에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와 문3(각 활동의 평일과 주말 시간)
-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통근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과 차이가 나는 예러 다수 발생
 - 문1-2(평소에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를 '주당 근로시간'으로 묻지 않고 ① 주당 평균 근로일수, ② 하루 평균 근로시간, ③ 하루 평균 통근시간으로 각각의 사항으로 물어서 계산상의 오류를 줄이고, 중복 문항을 최소화하는 방식 제안함.
- 문3(각 활동의 평일과 주말 시간)
- 학생인 경우 공교육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포함된다는 지침이 있

7) 시험조사 추가 문항임.

지만 각주 형태로 달려 있어서 기입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

→ CAPI 조사 시 관련 문항인 일자리 여부, 자녀 사항, 교육 상태 등의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러 케이스 축소 가능

□ 문6(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임신 회차 기입)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 이용 자녀의 임신 회차 기입 오류가 일부 있었으나, 종이 진행 조사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CAPI 조사 시, 임신 결과가 ‘출산’인 가장 첫 임신 회차의 응답값을 불러와 응답 대상 자녀를 화면에 제시하여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제안함.

□ 문6-1/문6-2(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문5(과거 일자리 이력)

→ 응답자가 어떤 일자리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출산 당시 무직인 게 맞는지 등이 현재 설문 구조로는 파악이 어려움(출산 시기와 일자리 시기를 비교하여 제한적으로만 확인 가능).

→ CAPI로 조사 진행 시, 응답자의 과거-현재 일자리를 전부 보여주고, 출산 회차별로 어떤 일자리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했는지 응답하도록 설계하면 데이터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개선 및 제안 사항 종합

3-1. 조사구

□ 1개 조사구에서 5~10가구 성공 목표로 조사구당 가구 수를 줄이는 방안 제안

- 조사구에서 조사하면서 쿼터를 맞추고 1개 조사구에 10가구를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조사구 확대를 하지 않고는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수준임.
- 따라서 조사구당 목표 가구 수를 줄이고 조사구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함.

□ 조사구 확대 원칙 및 관리 원칙 필요

- 실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조사로, 조사구를 확대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불가피함.
- 확대 원칙과 관리 원칙을 세워 내년 본 조사 진행 시 필요함
- 표본 설계 · 통계 전문가와 연구진, 실사 담당자 간의 협의를 통한 실사 원칙 마련 제안함.

3-2. 가구 비성공 사유 수정

□ 가구 비성공 사유를 보다 명확한 용어로 분류 필요

- ‘비접촉 가구’는 사실상 단순거절에 해당하는 가구로 판단됨.
- ‘장기 출타’와 ‘거부’를 거절 강도에 따라 ‘단순거절’과 ‘강력거절’로 구분하여 기입하는 방식 제안함.

원안		수정 제안 (시험조사 적용)
진행 중		
완료		
미완	거부 [조사 대상자를 만났으나(접촉),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뜻함]	강력거절
	조사 중단	
	외국인	
	빈집	
	부재중	
	장기 출타	
	비접촉 가구 (가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는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뜻함)	단순거절
대상제외(연령 요건 안 맞는 가구)		

3-3. 문항 길이 및 조사 방법

□ 문항 길이는 시험조사 설문 문항 정도가 적절

- 기혼여성 설문 응답 평균 시간은 39.6분으로 자녀양육 파트 등의 문항을 삭제하였음에도 응답 시간이 평균 40분에 가까움.
- 시험조사 설문 문항 길이보다 더 길어질 경우 조사 난이도가 높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됨.

□ 자동 로직 또는 관련 문항의 제시가 가능한 TAPI 또는 CAPI 진행 필요

- 종이설문으로 진행할 경우 자동 로직이나 관련 문항 제시, 확인창/ 경고창의 기능이 없어 데이터 정합성이 떨어지고 CAPI나 TAPI로 진행하면 응답자나 조사원이 응답하지 않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까지도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3-4. 문항 개선 사항

□ 가구원 사항 최소화

-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상태, 종교 등 가구원 전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아도 되거나 개인 분석으로만 활용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개인 조사표에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회고 및 연상 최소화

- 회고 문항, 특히 일자리 시작 시점과 퇴직 시점 관련 응답이 현재 일자리 입/퇴직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일자리 이력을 응답 완료한 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현재 일자리 설문에 해당하는 자세한 응답을 받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응답자 직접 계산 최소화

- 응답자가 계산해야 하는 연상 단계가 많아질수록(가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응답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생각한 이후 근로일수로 곱해서 계산해야 함) 에러 발생률이 높아짐.
- 가급적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함.
- 시스템으로 계산하여 대체할 수 있는 문항이나 값은 자동 로직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 부담과 데이터 에러의 최소화가 필요함.
- 관련 문항의 응답값을 화면에 제시하여, 응답자와 면접원이 조사 진행 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중복 문항 최소화

- 가급적 한 문항으로 대체될 수 있는 내용은 반복되지 않게 질문할 필요가 있음.

3. 조사원 및 관리자 간담회 내용

가. 조사원 대상

1) 가구 방문

- 가구 조사 성공 노하우?

: 하루 2~3가구 정도 성공할 수 있음.

조사 대상의 연령이 만 19~49세이다 보니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이어서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음. 조사 거부를 하더라도 끈질기게 찾아가고 다시 컨택하면 성공률이 높아짐.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조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이해하고 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음.

- 재방문은 보통 어느 정도 하고, 언제 하는지?

: 10가구 조사 완료하는 데 일주일이 꼬박 걸림.

2) 설문조사의 난이도는? 로직의 어려움은? 설문 시간과 설문조사의 양은?

- 미혼남성 / 미혼여성 / 기혼남성 / 기혼여성

: 기혼여성이 제일 오래 걸리고 그다음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으나, 기혼여성을 우선 조사하고 나서 기혼남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조사 거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사적인 문항이 많아서 그러함.

- 답례품 금액은 적절한지?

: 기혼여성의 답례품 금액이 너무 적은데 희망하자면, 5만 원 정도 되면 조사 응답이 훨씬 쉬워질 것임.

미혼은 적절, 기혼남성은 많다고 느껴짐.

*노동패널은 가구당 4만 원+가구원+a.

3)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

- 성경험이나 낙태, 이혼 등 답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수용 정도

: 미혼은 그렇게 거부감이 많지는 않았음. 외려 기혼자가 꺼려 하는 경우가 있음. 결혼 이전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 보임. 민감한 질문은 유치조사를 허용했으면 함.

이전에 민감정보를 많이 물어보는 설문조사(부부생활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우편함에 넣어 놓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음(한국리서치: 회수율 100%였음. 답례품 금액이 높았음).

- 조사가 더 잘 될 수 있겠다, 싶은 의견

: 문항이 줄어들어야 할 것임.

가구원 사항에서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에 매우 민감함. 종교나 국적도 가구원 한 명씩 다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임.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생년월일, 교육수준 등을 물어보는 것이 꼭 필요한지? 부모 사망 혹은 이혼 시 해당 정보를 모를뿐더러 불편해해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음.

가구에 미혼자녀만 조사 대상일 때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조사가 명확히 되지 않았음.

일자리 영역이 너무 디테일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응답한 것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임금도 입직과 퇴직 시 임금을 다 물어보는 것이 불필요해 보임. 일자리에서도 부부 갈등의 문제가 있음.

(가치관 문항을 영역별로 배치하면?) 모아놓는 것이 훨씬 수월함.

가치관도 문항 수가 많아서 의외로 지켜워하는 분들이 많았음.

*전반적으로 이력 문항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음.

4) 조사가 끝난 후

-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 문화상품권/온누리상품권/농협상품권
: 도시는 문화상품권, 시골은 농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선호하지 않음.
농협상품권은 지류로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움. 한국 리서치는 문화상품권만 이용함.
- 상품권 금액이 잘못 전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미 썼다면?
: 회수함. 바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음. 그러나 이미 썼다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문항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 문의 체계가 있어서 수정 지침이 오는 대로 맞춰서 수정함.

5) 조사 성공과 실패 사례와 조사 관리

- 조사가 잘된 것 같을 때 어느 측면 때문에 잘된 것 같은지 / 혹은 반대 사례
: 끈기 있게 컨택하고 찾아갔을 때 성공률 높음.
접촉일지를 상세히 작성하면 그 집의 특징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성공률도 높아짐. 아이용 자전거가 있다거나 몇 시에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그러나 접촉일지를 다 데이터화 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하기는 어려움.

나. 관리자 대상

*이 조사는 신규 조사원이 할 수 없음. 패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조사임. 만약 ○○리서치에서 하게 된다면 패널조사 사이에 실시
해야 할 것(봄~여름).

1) 조사 관리

- 조사원 관리 방안: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 (길에서 컨택해서 조사) 현실적으로 조사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음. 그러나 아파트나 집 앞에서 출입하는 것을 보
고 컨택한 뒤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을 꼭 확인하고 조사함. 그 부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음.
- 가족과 출산 조사 질의응답은 없었는지?
: 없었음. 리스트에 맞춰 검토해 봤을 때 에러도 두 건밖에 나오지 않
았음.
노동패널과 여가패널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 문항에 대해 생소한 지
점은 없었을 것임.
- 초기 조사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변경했을 때 전달체계는?
: 지역 지부에서 슈퍼바이저가 있고 이분들이 조사원을 관리하는 체
계임. 조사원 중에서 관리자가 있는 내부 조사와 다름. 전체 지침이
바뀔 경우에는 본사에서 한번에 공지하는 시스템임(FMS라는 조사
원용 시스템이 따로 있음).
*조사를 이 조사만 하지 않음. 그렇게 할 수가 없음. 다른 조사 몇 개
를 묶어서 진행하는 형식임.

2) 데이터 에러체크

- 어떤 수준으로 하시는지?
: 전달한 로직이 그렇게 많거나 어렵지는 않았음. 패널은 더 많고 복

잡합(중단에러체크도 있어서 그러함).

- 조사 중간중간 나오는 에러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공유된 에러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함. 사전 체크리스트 공유가 중요할 것임. 에러가 사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나오게 되면 전화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체계상 불가능함.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에 따라 로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할 것임.
- 보내 주신 보고서를 보니 일자리와 휴직의 매치가 어렵고 주로 일자리 정보를 수정하셨던데 본 조사를 실시할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 요청
: 일단 일자리 문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일자리와 휴직이 매치되지 않을 때 육아휴직 정보가 더 정확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자리 정보를 수정한 것. 본 조사 때는 조사 전 사전협의를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조사 완료 후 최종 데이터 클리닝에 3개월가량 걸린다고 함.

3) 데이터 관리와 사후 처리

- 패널처럼 매년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데이터 관리와 사후 처리에 대한 고민이 됨. 다른 3년 주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신지?
: 다른 조사할 때는 조사 후 최종 데이터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데이터 관련 업무는 끝났음. 승인통계 관련한 업무는 분석표 작업과 정보보고서 작성한 부분은 효율성이 높거나 담당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작업함. 계약 시 사전 업무 조율이 중요할 것임.

4) 조사와 설문지에 대한 의견

: 이력과 매트릭스 문항을 줄이는 것 제안

가구원 정보 조사 시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개인조사 때 묻는 것이 좋을 것임. 종교나 국적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음(다문화 관련 분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 다문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국적은 더더욱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가구원 사항에서 조사하는 정보보다 개인조사에서 응답하는 사항의 정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됨.

양육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주요 영역으로 생각되어 빠지면 안 되지 않나 함.

5) CAPI → TAPI 혹은 UI 변경

- 현재 CAPI가 조사할 때 친숙한 스타일은 아님. 조사 시 처음 진입한 조사원이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UI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인터넷 조사처럼)

: 조사의 특성별로 장단점이 다를 것임. capi에서 tapi로 바꾼 사례가 있음(여가패널). 구현한 로직을 모두 옮기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음(개발 후 안정화까지 3개월).

TAPI로 한다면 링크를 대상자에게 보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그러나 조사 문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직접 응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다른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를 할 경우에 통신사 가입자와 조사구가 겹치는 대상자들에게 링크를 뿌려서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도 있었음(서울시 청년패널).